

農政,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임상규 56대 농림부장관 연설대담집



국정감사 (2007.10.19) / 국회



임상규농림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2007.8.30) / 청와대



제5회 건강식품박람회 (2007.9.6) /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5회 건강식품박람회 (2007.9.6) / 서울 양재동 aT센터



농업유전자원센터기념식 (2007.9.10) / 농촌진흥청



'머쉬하트' 방문 (2007.9.10) / 경기도 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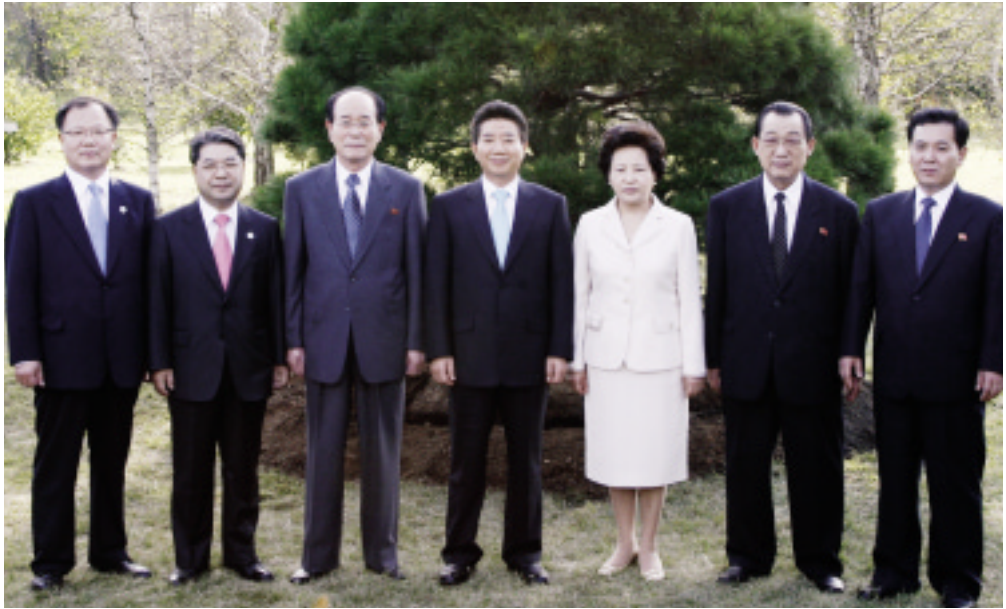
태풍 피해지역 방문 (2007.9.18) / 제주시



농업인 신문고 설치 (2007.9.28) / 농관원 전남 나주 출장소



남북 정상회담 (2007.10.2)



정상회담 공동식수행사 (2007.10.4)



농업인CEO 아카데미 (2007.10.23) / 경기도 용인



벼수확현장방문 (2007.10.23) / 경기도 용인



고양 화훼단지 방문 (2007.10.24)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2007.10.27)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2007.10.31) / 서울 양재동 aT센터



옥천농협 「OK Rice Center」 신축현장 방문 (2007.11.3)



제천 한방약선음식 전시회 (2007.11.6)



농업인의 날 (2007.11.9) / 올림픽공원



농업인의 날 (2007.11.9) / 올림픽공원



농업인의 날 (2007.11.9) / 올림픽공원



원주 농업인의 날 (2007.11.11)



원주 농업인의 날 (2007.11.11)



파프리카농장 방문 (2007.11.11) / 원주시 영흥영농



FAO총회 기초연설 (2007.11.19) / 이탈리아 로마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 면담 (2007.11.19) / 스위스 제네바



농림기술기관 간담회 (2007.11.29) / 대전 유성호텔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선정 및 표준조리법발표회 (2007.12.3) / 서울 양재동 aT센터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 발표회 (2007.12.5) / 서울 프레스센터



외식업계 CEO 간담회 (2007.12.14) / 서울 신사동



안복자한과 방문 (2007.12.23) / 전남 담양



농업인 신년인사회 (2008.1.7) /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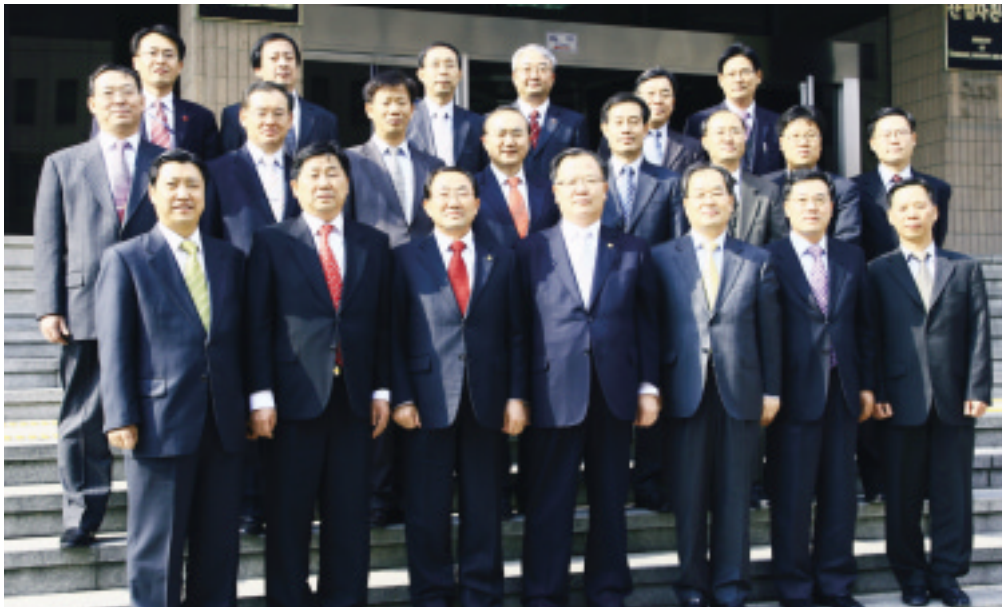
축산인신년인사회 (2008.1.8) / 한국마사회



농축산물 수급동향 현장점검 (2008.1.30) /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제9회 한국농업대학 학위수여식 (2008.2.21) / 한국농업대학



이임식 (2008.2.29)

차례

Contents

1. 취임·신년·이임사

제56대 농림부장관 취임사 2007. 8. 31	02
2008년 신년사 2008. 1. 1	08
이임사 2008. 2. 29	13

2. 연설문

농촌의 희망, 여성농업인 제4회 한여농전국대회 2007. 9. 4	16
식품의 위상이 높아지길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 2007. 9. 6	20
희망찬 미래를 위한 노력 농촌진흥청 초도방문 2007. 9. 10	22
전통주는 자연의 선물 전통주 한·일 심포지엄 및 시음회 2007. 9. 10	25
보다 맛있고 더욱 안전한 축산물 제5회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2007. 9. 12	28
농민 스스로 끌어올린 혁신의 바람 제2기 신활력사업 출범식 2007. 9. 13	32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전원생활엑스포 2007. 10. 18	35
한국 농업의 비전을 나누며 농업CEO아카데미 2007. 10. 23	36
영화의 감동으로 빛어낸 우리 식품 영화 '식객' 시사회 2007. 10. 24	38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40
제16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2007. 10. 25	
친환경농업은 농업의 대세	43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2007. 10. 27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46
특성화농고 육성 협약 체결식 2007. 10. 30	
명품 농식품	48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및 2007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 2007. 10. 31	
생명가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	51
제12회 농업인의 날 2007. 11. 9	
현장에서 확인된 '농업 희망'	55
제44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2007. 11. 11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기구	58
FAO총회 2007. 11. 19	
농업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66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 2007. 11. 26	
R&D 투자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68
농림과학기술 관계기관 간담회 2007. 11. 29	
음식문화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	70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선정 및 표준조리법 발표회 2007. 12. 3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73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 대응전략 심포지엄 2007. 12. 4	
세계일류의 축산물브랜드	75
2007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발표회 2007. 12. 5	
농업계의 힘으로 제2의 도약을	78
한농연중앙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2007. 12. 6	
농업인이 만족할 때까지!	81
농협중앙회 방문 2007. 12. 6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부가가치입니다	8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비전 찾기 연찬회 2007. 12. 11	
상향식 지역개발이 열쇠	86
농촌지역가꾸기 합동시상식 2007. 12. 24	
쌀은 미래입니다	89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추진 유공자 시상식 2007. 12. 28	
세계인의 건강은 강화약쑥으로	91
강화약쑥의 주요 효능 연구 보고회 2007. 12. 28	
책임농정·현장농정·성과농정으로 유종의 미 거두자	93
종무식 2007. 12. 31	
새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98
시무식 2008. 1. 2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104
농업인 신년인사회 2008. 1. 7	
작은 생각이 '축산의 미래' 를 바꾼다	107
축산신문 주최 축산인 신년교례회 2008. 1. 8	
농업·농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111
농업전망 2008 2008. 1. 23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부가가치 높여야	115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2008. 1. 23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농촌 활력을 키워야	117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 2008. 1. 23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119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현장 점검 2008. 1. 30	
주세인하 등이 전통주산업 초석이 되길	120
전통주진흥협의회 간담회 2008. 2. 4	
꿈의 라이스 센터	122
해남옥천농협 「OK 라이스센터」 준공식 2008. 2. 20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보여주는 증인	126
제9회 한국농업대학 학위 수여식 2008. 2. 21	

3. 언론 속의 임상규 장관

<인터뷰>

농산물 가공엔 고소득, 식품산업 적극 육성	130
농민신문 2007. 9. 21	

남·북한 농업 협력,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133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7. 10. 10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확대	137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007. 10. 10	

또다른 블루오션, 농촌	143
나라경제 2007년 12월호	

미래의 주역들에게 농촌사랑운동이 확산되기를	148
농촌사랑 2007년 겨울호	

21세기 농촌여성의 역할	151
농촌여성신문 07. 11. 9	

식품가공·수출로 농정 중심축 바뀌야	156
서울경제 07. 12. 17	

농업 R&D 확 늘렸죠	163
매경이코노미 2007년 송년호	

<기고>

연구개발로 첨단농업시대 연다	167
서울신문 2007. 12. 12	

한국농업의 성장엔진, 수출에서 찾는다	170
헤럴드경제 2007. 12. 18	

삶과 휴양, 농촌의 값진 선물	173
한국일보 2008. 1. 18	

‘농업의 블루오션’ 자연순환농업	175
한겨레신문 2008. 2. 2	

〈간담회〉

“한국농업 자신감 찾을 새 성장동력 창출할 것”	178
농민신문 2007. 12. 6	

“전통주 주세인하 곧 현실화”	180
한국농어민신문 2007. 12. 10	

식품산업으로 외연 확대 등 ‘성과’	182
농수축산신문 2007. 12. 6	

농정외연 · 예산확대 · 새 성장 동력 확보 총력	187
한국영농신문 2007. 12. 6	

FTA서 농민이익 최대화	189
파이낸셜뉴스 신년메시지 2008. 1. 2	

4. 농정철학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192
인사청문회 2007. 8. 29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200
국정감사 2007. 10. 19 / 11. 2	

국회 상임위 발언으로 보는 쌀에 대한 견해	218
-------------------------------	-----

국회 상임위 발언으로 보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견해	223
------------------------------------	-----

5. 재임시 역점을 둔 정책

식품산업 육성 기반 확보	226
---------------------	-----

농림 R&D 활성화 및 효율화 추진	230
---------------------------	-----

2008년도 농림예산 확보	234
남북농업협력 진전 - 남북정상회담	238
식품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본격 추진	241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	245
농업계 우군확보를 위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구성	246
농림부 조직문화 개선	249

6. 현장농정 기록

〈주요 행사〉

한여농 전국대회 개최식 2007. 9. 4	254
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개막식 2007. 9. 6	256
전통주 한·일 심포지엄 및 시음회 2007. 9. 10	258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개관식 2007. 9. 12	260
제2기 신활력사업 출범식 2007. 9. 13	262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 2007. 9. 17	264
전원생활 엑스포 개막식 2007. 10. 18	265
농업CEO 아카데미 교육 2007. 10. 23	268
영화 '식객' 시사회 및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 위촉식 2007. 10. 24	270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2007. 10. 27	274
"농업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MOU 체결" 행사 2007. 10. 30	276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및 2007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2007. 10. 31	277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2007. 11. 9	280
원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2007. 11. 11	282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2007. 11. 26	284
농림과학기술 관계기관 간담회 2007. 11. 29	285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기념행사 2007. 12. 3	286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움 2007. 12. 4	288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 2007. 12. 5	290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2007. 12. 6	29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비전 찾기 연찬회 2007. 12. 11	294
외식업계 CEO 간담회 2007. 12. 14	296
농촌지역가꾸기 합동시상식 2007. 12. 21	298
강화약속의 주요 효능 연구 보고회 2007. 12. 28	300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추진 유공자 시상식 2007. 12. 28	302
농업전망 2008 대회 2008. 1. 23	304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2008. 1. 23	306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 2008. 1. 23	308
설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2008. 1. 30	310
(사)전통주진흥협회 간담회 2008. 2. 4	312
전남해남 옥천농협 「OK 라이스센터」 준공식 2008. 2. 20	314
제9회 한국농업대학 학위수여식 2008. 2. 21	316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시찰 2007. 9. 10	318
머쉬하트, 안성마춤 브랜드 방문 2007. 9. 10	319
태풍 '나리' 피해지역(제주시 조천, 구좌읍) 현장점검 2007. 9. 18	321
전남 농촌현장 방문 2007. 9. 28~29	322

벼 수확 현장(용인) 방문 2007. 10. 23	323
고양 화훼단지 방문 2007. 10. 24	324
원주 영홍영농 파프리카 농장 방문 2007. 11. 11	325
경남 사천, 진주, 산청 농가 방문 2007. 12. 7	326
해가든, 부래미마을 방문 2007. 12. 15	327
전남·북지역(순창, 담양, 곡성) 현장 방문 2007. 12. 22~23	328

7. 부록

주요 농정 일지	330
감사패(외식산업협의회/한국전통주협회/한농연/농림기관장)	337
임명관련기사 - 보스기질있는 두주불사형	341
퇴임관련기사 - 옛 선비 처럼	344

〈에피소드〉

농림가족 희망나눔 캠페인 ‘그린하트’의 탄생	347
「두리반」에서	349
쾌도난마(快刀亂麻)!	350
공직 떠난 ‘인생 이모작’은 더욱 찬란하길	351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취임 · 신년 · 이임사

I

| 2007. 8. 31 |

» 제56대 농림부장관 취임사 (책임농정 · 현장농정 · 성과농정)

전국의 농업인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 여건을 볼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퇴임하신 전임 박 홍수 장관님께서 2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려운 농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후임자인 저로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임 장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국가 경제정책, 재정운용, 공정거래, 과학기술 등 많은 행정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업무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많은 인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을 제가 농림·농업·농촌 그리고 농림공직자들과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했던 것들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라면 가락동 도매시장 건설, 대단위 농업개발, 농어촌 구조개선과 42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등이 있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119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확정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욕에 찬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난관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농림 가족의 변방이 아닌 확실한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맘을 흘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농업인, 그리고 농림공직자 여러분!

참여정부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칠레 FTA 비준을 시작으로 쌀 협상 등 대외적인 개방문제에 잘 대처하였고, 안으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중장기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정제도, 협동조합, 농지제도 등 농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농업인과 농림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며, 우리 농림공직자들이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EU 등 거대 경제권과

의 FTA협상,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이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국민들의 시각과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점도 문화, 생태, 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은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농업·농촌 인구와 아직도 취약한 경영구조, 소득의 정체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농업인과 농림관계자들이 개방화라는 큰 파고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방화 추세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개방화를 우리 농업과 농촌이 도약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농업인과 농림공직자가 서로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고민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농업인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 여러분의 애로를 사소한 것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는 생활 속의 농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림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농촌 현장의 애로를 농림부에 알릴 수 있도록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와 현안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비한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FTA 이행 지원특별법, 농업·농촌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하는 작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은 피해보전을 넘어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자신감 회복에 중점을 두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개방 확대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립의지를 북돋워서 농업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참여정부 농정의 기초가 차기 정부 이후에서도 안정성·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농정의 기본 틀이 될 맞춤형 농정의 기반이 되는 농가 등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및 보전제도도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 모습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공직자 여러분!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림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어려운 일을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부처라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정책대상인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농림공직자들이 피동적·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농림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비록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농림부를 만들어 나갑시다.

제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관실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누구라도 일 잘하는 농림부, 자랑스러운 농림부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구호를 일단 세 개를 한번 외칠수 있기를 한번 기대합니다. 먼저, 책임농정 그리고 현장농정 그리고 성과농정입니다. 책임농정이라함은 우리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신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현장농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농정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결코 과거와 다릅니다. 정말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특히 농림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소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대 행정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꼭 함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대외관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내부의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농업에 대한 지원도 전 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농림공직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농림 외의 분야 분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그 분들 속에서 우리의 우군을 확보하는, 이러한 동지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일하는 자세에 있어서 제 경험에 의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행정능률도 올리고 또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호와 네 가지 업무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 순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이러한 잣대로 요구를 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조직을 맡든지 제가 맡은 조직은 상당히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저하고 맞춰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호흡을 맞춘다면 더욱 또 일은 쉬워질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열린 자세로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면 우리 농림부가 정말 일등 부처로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림가족 여러분!

저를 이처럼 농림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여년간의 공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림부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도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농업인과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농림부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2008. 1. 1 |

»» 신년사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잦은 강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농업계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만큼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7년의 가장 큰 쟁점을 들자면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일 것입니다. 농업분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협상결과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협상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안정장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향상대책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간 총 20.4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자자 계획 규모(04~13년)는 당초 119조원에서 12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제·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농림부내의 식품산업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이미 새로운 정책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등 작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된 농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기존 농림사업과의 체계화 작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농림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 지역개발을 주관하는 부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업·농촌이 농업인, 농촌주민만의 것이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상호교류·상생하는 산업과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농림공직자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림부·농진청 중심의 지원에서 범위를 넓혀 농업 외부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IT·B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한편, 오랫동안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확정하고 농협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에 매진하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방조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참여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까지 맡은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농정의 정책 기조가 새 정부의 농정 기조와 잘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셰이프가드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해외 농업자원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하고, 식품규격의 표준화 및 식품 품질인증제 정비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을 통한 한식세계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가등록제를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가의 농지이용, 축산현황 등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인 유형별로 꼭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원에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및 축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약·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육우 전 두수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화된 쌀, 김치, 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을 바탕으로 농촌관광이 사회적인 추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향토 문화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구성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계 내부의 힘만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풀어내고 농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우리 농업을 지지하는 굳건한 우호 세력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시장·군수와의 농정협의회도 활성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큰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부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조·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혁신역량을 가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농림식품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농업인의 만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생각의 전환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국민들은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아끼고 지원할 것입니다.

농림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등 정책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공직자로서 제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여서는 우리 농업·농촌은 한결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 이 임 사

존경하는 농림공직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자로 지난 6개월간 짊어지고 있었던 농림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동시에 3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을 별탈없이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나서 매일 아침, 날짜 세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장관이었기에 남은 날짜를 세어보며 '오늘은 더 열심히 해보자' 는 다짐으로 시작한 하루 하루였습니다. 먼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애를 쓴 시간들이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아쉬운 기억들이 하나, 둘씩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30여년의 공직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림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겠습니다만, 저 스스로 돌이켜 볼 때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식품산업을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고 도·농교류 촉진법 제정, 한·미 FTA 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향후 10년간 20.4조원의 재정지원계획 확정, 농림분야

R&D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난 반년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낸 이러한 성과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저의 30여년 공직생활에 큰 보람과 기쁨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농림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면서 농림부장관이 농림부 직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떠나는 저의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고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영원한 농림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농업·농촌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농림수산식품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연설문

II

»» 농촌의 희망, 여성농업인

제가 농림부장관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의 주역이며, 우리 농촌의 희망인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전국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우정규 한여농 중앙회장님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홍문표의원님, 이시중의원님 그리고 강기갑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님과 이봉수 대통령농업정책특별보좌관님 그리고 김두관 전 행사부장관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려운 농정을 잘 이끌어주신 박홍수 전임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한여농이 있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 오신 역대회장님과 임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국민들의 시각과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고,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점도 문화, 생태, 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위기가 곧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경영규모 확대의 기회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지식반사회입니다. 기술, 정보, 마케팅 등을 활용한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고품질·고가 농산물의 수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발전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그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회원여러분!

농림부도 변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





도록 농업인들의 민생문제를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 속의 농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농림공직자들이 수시로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현안 과제와 애로사항을 농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 등을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타 부처나 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비한 농업부분 국내 보완대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은 피해보전을 넘어서 농업인 여러분의 자신감 확보에 중점을 두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개방 확대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자립의지를 북돋워서 농업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농 회원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여성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농업과 농촌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온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해소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주체로 성숙되어 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정예화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여러분들의 요구사항과 고충을 더욱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여농 회원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험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서는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도약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먼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농업인들부터 힘을 모아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한여농 전국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성농업인들의 뜻깊은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 축사 | 2007. 9. 6 _ aT센터

»» 식품의 위상이 높아지길

오늘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님과 한국농어민신문사 서규용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지구촌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몸을 지키고 활력을 주는 건강식품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금수강산,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이 기르고 빚어낸 우수한 식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기회를 갖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림부는 ‘농식품 세계일류’를 농정비전으로 선포하고 식품 정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 규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었고, 산지의 가공산업도 점차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는 우리 김치가 처음으로 국제식품규격으로 공식 채택되었고, 지난 해 미국 건강잡지인 ‘Health’ 지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식품과 식문화가 세계시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안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의 주요 과제로서 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닦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연간 생산액 100조원을 돌파하는 거대산

업으로 성장하여 국민경제와 우리 농업 그리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개발과 통계조사와 같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업체와 식품제조



업체가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최근 일본, 태국 등은 자국 음식의 세계화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조리사 교육, 해외홍보 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자란 우수한 농산물에 장인의 집념과 지혜를 깃들여 빚어낸 식품들이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생산자가 애써 생산한 식품도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식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박람회가 우리 농산물의 핵심 소비처인 식품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희망찬 미래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는 청장이하 농촌진흥청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 31일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본부 실국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농촌진흥청을 이렇게 빨리 방문하게 된 것은 기술농업을 책임지는 농촌진흥청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농업을 둘러싼 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 FTA 국회 비준, EU와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등 개방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항구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농업인에 대한 교육업무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 만큼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께서도 현장을 매우 중시하시는 것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사에서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성과라도 현장에 적용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발된 성과가 조속히 농업현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수시로 듣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해주면 농업인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FTA 대응 품목별 기술개발전략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4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본 전략이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예산확보·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농식품, 농촌관련 연구강화입니다.

개방화, 소비패턴 변화,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도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식품 정책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환경변화에 맞게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농촌사회 등과 관련한 연구기능의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잠시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다녀 왔습니다. 유전자원관리는 미래농업을 좌우할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선진 각국은 좋은 유전자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기술부 차관 재직 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

전자원 수집, 보존, 특성평가, 활용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종자산업을 활성화 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탑프로젝트 기술 확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라이스, 탑프루트 프로젝트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이 시범사업 참여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농가에게도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진청 지방이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진청은 본청과 소속 연구기관들이 한자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 직원 모두가 농업의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각오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향후에 줄무늬잎마름병 등 돌발병해충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농진청의 혁신하려는 노력과 변화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구개발(R&D)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과 대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를 많이 보와 왔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한다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길 바랍니다.

»» 전통주는 자연의 선물

오늘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통주 한·일 심포지엄 및 시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바



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님, 한국전통민속주협회 김창수 회장님, 주식회사 가모뿌르의 고바야시 부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김인식 농촌진흥청장님과 조재선 한국전통주진흥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집집마다 독창적이고도 향기로운 술들을 빚어 아름다운 음주문화를 꽃 피울 줄 아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정성껏 빚은 술은 가정의례에 꼭 필요한 품목이었고, 일상의 피로를 씻는 청량제이기도 했으며, 생활에 활력을 주는 문화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육당 최남선이 조선상식 문답에서 조선 3대 명주로 꼽은 평양의 감홍로, 전주 이강고, 죽령고가 있고 흰노을 같다는 이름의 백하주, 푸른 파도빛을 띤다는

녹파주, 연꽃향기가 난다는 하향주 등 그 종류만도 천여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술은 금수강산, 그리고 뚜렷한 사계절이 길러낸 우리땅의 재료들로 절기에 맞게 빚어낸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약식동원’의 원리가 스며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새롭게 발견한 참살이 문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문화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술 소비량 중에서 우리땅의 재료로 빚은 술은 불과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고유의 향기와 맛, 멋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서구의 술과 국적 없는 술들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외래의 문화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좋은 전통을 잇을 경우 자칫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통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 술의 우수성을 되살리고 재창조해서 먼 훗날까지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림부도 우리 술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책적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술을 빚어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 면허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140여개 업체가 우리 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우리 전통술을 각종 국제행사에 건배주로 활용토록 추천하여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고 홍보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계, 업계 여러분들과 같이 ‘전통주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 누룩과 양조기술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산 명주를 발굴하여 농촌관광사업과도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술의 품질규격을 확대 제정하여 국제기준에 손색없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24일에는 각 지역의 명품 술 맛을 겨루는 ‘우리 술 품평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술의 부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술을 빚는 장인과 학계, 연구계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국민만 아니라 지구촌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아야 합니다. 금년에 새로 문을 연 농촌진흥청의 ‘양조식품연구센터’나 오늘 창립하는 한국전통주진흥협회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통주산업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과 시음 행사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찾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술을 통해 선조들의 문화적 향기와 지혜도 느껴 보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제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보다 맛있고 더욱 안전한 축산물

존경하는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참여업체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 홍문표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 준비에 애쓰신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님과 4개 축산단체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성호 대전광역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축산박람회는 14개국 208개 업체가 참가하고 10만여명이 관람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짧은 기간동안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85년 약 3조원 수준이던 축산업 생산액이 2006년에는 네 배인 11조 7천억원에 이르러, 우리 농업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굳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전업농가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위해요소 관리강화 등 축산물의 안전성 기반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으로 친환경 축산기반도 조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축산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끊임 없는 대내외적 도전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 DDA 협상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 사료가격 상승,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많은 장애요인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축산인들의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이렇듯 엄청난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축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환경을 우선 고려하면서 『보다 맛있고 더 싸고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면, 능히 세계와 경쟁하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최대한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친환경축산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하여 축산과 경종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을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광역화되고 규모화된 명품 축산물 브랜드가 축산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2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없이 건강한 사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보리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

쳐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본격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도 강화해 나가면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더욱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육 타운을 설립하고 브랜드 직영점과 가맹점도 확대 설치해서 판매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은 피해보전을 넘어서 농업인의 자신감 확보와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이러한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의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진취적인가,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농림부가 먼저 변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민생문제를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 속의 농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농림공직자들이 수시로 농촌현장을 방문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안과제와 애로사항을 농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 등을 발굴해서 신속히 개선하고, 타 부처나 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조·자립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축산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해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

해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와 축산인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차게 뛰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우리 축산업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국내 최대규모와 최고 권위를 넘어 세계 유수의 축산박람회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박람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남호경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농민 스스로 끌어올린 혁신의 바람

존경하는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 신활력사업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제2기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성과가 우수하여 상을 받은 8개 시·군과 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범식이 신활력사업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 제2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낙후된 농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취지는 낙후 지역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혁신동력을 모으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키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명칭도 ‘낙후지역 대책’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으로 출범시킨 것입니다. 2005년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지연 등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상을 받은 시·군도 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추진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양군의 ‘명품 고추 브랜드화’입니다. 청양고추가 원래부터 유명했지만 실제 청양의 고추농가는 큰 이득을 올리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명품화와 브랜드화에 주력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청양고추의 명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문경 오미자라든가, 순창 장류산업, 고창 복분자, 청도 반시 등 성공사례는 많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 혁신 아이디어는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활발히 상호작용

하는 농촌혁신체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1기 사업을 통하여 그런 농촌 혁신체제를 갖추는 일이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기 때는 이런 혁신체제를 바탕으로 정말로 농촌을 활력화시키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활력사업 주무장관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과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 없이는 체계화된 행동과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60년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국내외 정치적 어려움속에서 인간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아폴로계획을 추진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 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의 제시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신활력사업의 목표가 설정되면 설정된 목표를 선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부도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지역특화사업, 농공단지, 농촌관광 등 관련정책의 목표는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농촌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향토자원 200개를 산업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을 비롯하여 농공단지, 농촌관광 등 우리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주제선정에 있어서의 열린 마음입니다. 일부에서는 신활력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되어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 해야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어떤 주제든지 가능합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2차산업, 관광, 교육, 문화 등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면 무슨 주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진주체간의 열린마음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 담당자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머리를 짜내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설정된 목표는 훨씬 커다란 추진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은 시·군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부서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열린 마음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담당자의 자세, 특히 시장·군수님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위를 살펴보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특정 농산물의 공급이 과잉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자기 지역만 보는 협소한 시각 때문입니다. 시장상황이 어떤지 다른 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살펴서 과도한 경쟁에 의한 농산물 값 폭락과 같은 사태는 미리 막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농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신활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낙후도를 기준으로 한 기본예산 외에 우수시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우수시군 약 10여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산업 관련 정책은 통합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을 비롯한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농공단지, 농촌관광 등 관련된 정책을 농촌활력증진계획으로 통합하여 농촌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각기 추진되던 정책이 통합됨으로써 규모도 커지고 시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신활력 시·군 주민 여러분!

“이제 제2기 신활력사업의 힘찬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2011년에 있을 제3기 출범식에서는 우리 모두가 만족스런 성과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합니다.

»»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10월에는 행사도 많고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전원생활이 대안적인 삶의 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문화 혜택 등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농촌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을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에도 초고속통신망이 완비되고 있고, 앞으로 응급의료시스템도 갖춰지는 등 도시에서 받던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를 농촌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도시민이 돌아가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농업·농촌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인 Agenda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농촌이 매력적이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변신해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도시민들이 여유와 행복이 가득한 전원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해 보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 농업의 비전을 나누며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농업CEO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FTA체결 등으로 개방은 가속화되고 고품질 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높아지는 등 농업 여건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업 CEO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선도시장 개척에 관한 여러분의 노력이 많은 농업인의 활로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2006년 출범한 한국농업CEO협회가 농업 CEO간 정보교류, 각종 교육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농기업은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총 판매액 규모가 2000년 1조 7천억원에서 2006년 4조 2천억원까지 증가했으며 그 판매액 중 가공·유통 등 농업생산 이외의 수입이 71%를 차지하여 사업범위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결산법인당 평균매출액도 2000년 9억원에서 17억원까지 증가했고 순이익도 9.6배(5백만원→48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계기장 법인의 비율이 65%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좀더 노력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결산법인 비중은 2006년 61.5% 2007년 65.2%이며, 매출 1천원당 영업이익은 제조업체 54.7원이나 농업법인 26.8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농업CEO 여러분처럼 경영기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기개발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 농기업은 좀더 빠르게 선진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의결되었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농림부가 명실공히 식품산업 육성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을 아우르는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림부가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배움의 현장에 함께 하기 위해 찾아 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국 농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식객' 시사회 | 2007. 10. 24 _ 정부과천청사

»» 영화의 감동으로 빛어낸 우리 식품

오늘 우리 농림가족과 함께 영화 「식객」 시사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영화배우 김강우씨, 이하나씨, 임원희씨 감사합니다. 또한 영화 제작사인 지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는 '농식품 세계일류'를 농정 비전으로 선포하고 식품정책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액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한 식품산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에 식품산업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리 식문화와



음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식세계화 사업과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세계 어느 나라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음식과 식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 지난해 미국 건강잡지인 ‘헬스(Health)’ 지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바 있고, 비빔밥은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기내식으로 제공할 정도로 세계인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의 원리가 스며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참살이 문화가 녹아 있는 전통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수한 농산물에 장인의 집념과 지혜를 불어 넣어 만든 식품들이 세계인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기억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여운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영화에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식객」 시사회가 전통식품을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과 전통음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나아가 우리 식문화와 고유음식이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출연배우 및 제작사 관계자 여러분,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흥행에도 성공하시고, 이런 좋은 영화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정태기 재단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희선 의원님,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님, 풀무원 설립자이신 원경선 선생님,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산농촌문화재단은 지난 열여섯 해 동안 농업연구와 농업인 현장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업 · 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산농촌문화상을 제정하여 매년 농업 발전에 공헌한 농업인과 단체를 발굴 표창하여, 농업계의 사기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원광대학교 박윤점 교수님, 오창농협 김창한 조합장님, 경남농업기술원 정정석님, 팔당생명살림, 논산딸기시험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예의 수상자들과 같이 과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농업인들이 계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의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래를 대비한 준비의 일환으로 농가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농정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농가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금년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이틀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안에 식품산업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제조·외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년도 농림예산 확보에 특히 노력하여 당초 농림부 지출예산을 당초 1.2% 증액하는 계획에서 4천60억원을 더 추가하여 3.3% 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농정방향에 부응하는 농식품·농업·농촌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체질 강화와 농촌개발·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농정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119개소에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우리 농업계가 고민하는 깊이만큼 풀 수 있으며, 우리가 노력하고 흘리는 땀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진취적인가,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으로 일을 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기에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들을 발굴·격려하는 데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리며, 대산농촌문화재단의 무한한 발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친환경농업은 농업의 대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처럼 맑고 깨끗한 가을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과 친환경농산물을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을 동시에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상식은 40여개의 친환경농업 관련단체들이 힘을 합쳐 서울의 한복판 대학로에서 개최하는 '2007 생명평화 친환경농업 대축제'의 현장에서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강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위원장님,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생명평화 친환경농업 대축제'를 준비하신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70년대 중반 이후 민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오고,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농업인들의 노력, 소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 결과, 친환경농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천여 호에 불과하고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비중도 전체농산물의 0.2%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난 해에는 생산농가가 8만호, 생산비중이 6.2%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도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더 이상 틈새시장을 노리는 농업분야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제가 8월말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하여 2달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온 참여정부 주요 농정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자 합니다.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농업과학 기술 개발에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도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단순한 피해 보전을 넘어서서 농업인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해쳐 나갈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 나겠습니다. 개

방화 시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농업이 지향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과 소비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내년에는 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된 단체에 소비지매장 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판로 확보를 위해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과 현장 농업인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함께하면 우리 친환경농업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힘써 주시고, 소비자들께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성들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좀더 많이 소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광스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생명평화 친환경농업 대축제」 행사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명나게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저는 오늘 젊은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간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림부가 농업고교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김신일 부총리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성화농업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갈 교육감님과 농고교장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님,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장 여러분,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님을 비롯한 농산업계 대표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

지금 한국 농업은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DDA·한미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욱 세련되고 높아져 갑니다. IT·BT·문화컨텐츠 등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갖가지 기술과 관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속에서



서 경쟁하는 한국 농업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인재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 여건은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농가가 중소규모 경영을 하며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젊은 농가가 경영과 마케팅을 혁신하여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중견 농업법인도 2006년말 현재 800개에 이릅니다. 또한 지금 농촌에는 65세이상의 농업경영주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색혁명을 이끌었던 이들 세대의 은퇴가 머지않게 되었고 농림부도 이 분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체계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이 힘을 모아 특성화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함께 나서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업인단체, 농기업체 대표 여러분!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농업현장과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고 교육이 농업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들어와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농림부도 농업인력 양성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특성화 농고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성화 농고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사와 학생들의 해외선진농업 연수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과계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졸업 후 영농 창업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감님들께서도 특성화 농고가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이 농업고등학교 발전의 토대가 되고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및 2007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축하 |
2007. 10. 31 _ aT센터

»» 명품 농식품

전국의 산야(山野)가 온통 오색으로 물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와 ‘2007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님, 장자크 그로하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우수 브랜드 상품으로 선발되었거나 금년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국제식품전시회’는 올해로 17회의 짧지 않은 연륜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시장 진출로 이끌어가는 기회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제전시연맹(UFI)으로부터 공인을 받아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국제식품박람회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000여종의 우수 상품이 선보이고, 해외에서 350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하여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최되는 ‘2007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명품 농산물과 전통식품을 뽑아 한 자리에 선보이는 잔치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년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한 우수 브랜드 상품과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가 함께 전시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최근에 크게 달라진 우리 농식품의 우수한 품질, 그리고 더욱 깊어진 맛과 멋에 흠뻑 취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세계는 국가간 지역간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지구촌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안전한 식품, 건강·기능성이 높은 식품, 고급화된 식품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식품시장에 있어서도 높은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운 다국적 식품기업들에게 더욱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화·고령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식품도 무한 경쟁을 뚫고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온갖 정성을 쏟아 농사일을 해왔고,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우수한 음식과 식문화를 꽃 피워 냈습니다. 우리 음식과 전통술에는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의 원리와 참살이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식품은 지구촌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크나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우리 농식품이 개방체제하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들은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명품 브랜드만을 기억합니다. 소비자 신뢰가 바탕이 된 우수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농산물도 변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명품 브랜드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품종 선택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일관된 기준 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3년까지 우리 농산물의 50% 이상을 우수 브랜드경영체가 공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세계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각종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상품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외교부와의 협력 약정을 통해 세계 130여개소의 해외 공관이 우리 농식품의 수출 전진기지가 되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한식 세계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농식품 수출기반도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네덜란드는 매년 600억불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식품 강국입니다. 농식품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는 인식은 낡은 생각일 뿐입니다. 개방화 시대 경쟁력은 가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술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품질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국제식품전시회’와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을 계기로 우리 농식품이 세계시장의 명품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생명가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열두 번째 「농업인의 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 김우남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님과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신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성호 회장님과 농민연합 정재돈 상임대표님, 그리고 농협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한 농업인단체 대표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정부포상과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쁨을 함께 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귀빈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기상여건이 나빠서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태풍, 장마,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EU·캐나다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추진되는 등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대내외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농가인구 10명 중 4명이 60세를 넘어 이미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래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의 확보는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에서 문화, 관광, 생태, 휴양자원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칠레 FTA와 WTO 쌀 협상 등 대외적인 개방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농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안으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장기 농업·농촌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정제도, 협동조합, 농지제도 등 농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는 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농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단기적인 피해보전은 물론,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 육성, 신기술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과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농촌을 다양한 산업과 휴양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받아 이를 기초로 농가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컨설팅을 확대하여 전문화된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영위험으로부터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가단위의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농림부의 업무영역을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인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식품산업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농업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림분야 R&D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농림R&D에 대한 외부진단을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 조정, 민간참여 확대 등 R&D 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선도하기 위해 금년에 쌀과 원예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은 기존의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여섯째, 2007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진전될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농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위원회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조건 등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33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 119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신문

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고, 고쳐야 할 제도도 적극 발굴함으로써 현장 농정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금년도 농업인의 날 주제는 “생명가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 농업”입니다. 이번 행사가 도시민이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인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열두 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행사 준비에 애쓰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현장에서 확인된 ‘농업 희망’

존경하는 원주시 농업인 여러분!

농업인의 날 발상지이며 건강의 도시 원주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계진 국회의원, 그리고 김기열 원주시장님, 원경목 원주시의회 의장님과 원주시 농업인 여러분께 이처럼 뜻 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마흔 네 번째 「원주시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이런 좋지 않는 일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시느라 농업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올해 행사의 주제가 “소비자의 만족이 농업인의 만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주제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일류 농식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 발 앞서 고민하고 준비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현장의 노력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현장의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원예분야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첨단인 우수한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을 농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농촌을 다양한 산업공간과 전국민의 문화, 관광, 생태, 휴양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 농업인 여러분!

이러한 정부 정책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과 정부가 서로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여러분께서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개방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원주의 농산물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원주시의 농업기술이 강원도의 농업과 나아가 전국의 농업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주의 농업인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이번 원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소비자 농업체험, 향토요리 우수작품과 농경문화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농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 소비자가 한 데 어울려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 아울러 늦가을 농촌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마흔 네 번째 맞는 원주시 농업인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 내빈 여러분, 그리고 행사준비에 애쓰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기구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신사숙녀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총회를 준비해 주신 FAO사무총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의장으로 선출된 Mr. Carlos Vallejo Lopez(에콰도르 농업장관)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Statement by H.E. Im, Sang-gyu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
at the 34th FAO Conference



Honorable Chairman,
Director General,
Distinguished Delegates from member countries,
Ladies and Gentlemen,

I am honored to deliver the addres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is Conference, and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FAO Secretariat for arranging such a wonderful meeting here in Rome.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Mr. Chairperson(Carlos Vallejo Lopez) on your election for this Conference. I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be of a great success under your excellent leadership.

각국 대표단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FAO는 지난 1945년 창립 이래 올해로 6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FAO가 인류의 영양상태 개선과 빈곤·기아감축에 이바지 한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FAO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난 제33차 총회이후 구조개혁과 기구 전반에 대한 독립외부평가(IEE)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인은 FAO가 이러한 IEE결과를 반영하고 회원국의 협력을 통하여 인류의 당면 현안과제인 빈곤과 기아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호,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Distinguished Delegates

and Ladies and Gentlemen,

FAO is celebrating its 62nd anniversary this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5. Nobody denies the fact that, for all those years, FAO has made great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nutritive conditions and alleviating hunger and poverty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FAO, since the 33rd Conference, has conducted the overall reform and the Independent External Evaluation (IEE) for the organization to properly respond to changing environment and meet the new demand.

I believe that by reflecting the result of IEE and through cooperation with member countries, FAO will finally deal with an imminent challenge of efficient alleviation of hunger and poverty, and actively tackle such new challenges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bioenergy.

최근 국경을 초월하는 가축질병들의 확산, 환경오염의 가속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협력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최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정책, 동·식물검역,물관리, 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FAO의 기아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Recent events such as spread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and degradation of environment increase concerns and worri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regard to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afety.

To achieve the world's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each region should first establish network considering its special characteristics, and expand mutual cooperation.

Under the keen understanding on the necessity of such work, Korea has been building networks and conducting cooperation projects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al policy, animal and plant quarantine, water management and food culture.

Korea will actively join the endeavor of FAO in overcoming poverty by increasing our support to the projects for which the concerted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needed.

신사숙녀 여러분

인류의 건강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어린이들이 농업과 식량,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각국의 우수한 전통식품들이 세계 곳곳에 소개되어 인류의 식생활 개선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는데 FAO가 앞장서 주길 바라며, 일찍이 WHO가 한국의 전통식품을 적절한 영양균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였던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김치는 2001년 CODEX가 세계인들의 식품으로 규격을

확정한바 있고, 지난해 미국의 건강잡지 'Health' 紙에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건강식인 한국음식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인류의 건강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As a foundation for healthier dietary life of humankind, we need to teach our children to think about not only the food they eat but also agriculture and their community.

I hope that FAO will play a leading role in introducing excellent traditional food of member countrie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dietary life and cultural exchanges of humankind.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all of you the Korean traditional food which was recognized by the WHO as a good example of the nutritionally balanced one.

Kimchi, the Korean traditional food for which CODEX set the standard in 2001 by recognizing it as the food for the world was introduced in the US magazine "Health" as one of the five world healthy food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launch a project introducing and promoting Korean Food to the world, and will make every effort to mak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human health and culture.

대표단 여러분,

인류의 식량안보는 각국의 생산과 국제무역의 효율적인 조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에서 각국의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적절한 국내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축성이 부여되고, 수입국과 수출국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DDA협상에서 다원적 기능을 무시하고 무역자유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식량안보가 침해되거나 인류의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고귀한 목표가 손상되지 않도록 FAO가 중립적인 견지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농산물 재배확대 등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양상에 대하여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AO가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식량안보와 농촌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분석하여 인류의 기아 및 빈곤감축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Distinguished Delegates,

World food security can be achieved through an efficient harmonization of production and trade of each country.

Therefore, at the on-going WTO/DDA negotiations, flexibility should be given to allow the members to maintain proper level of domestic production basis considering the need for food security, and the interests of importing and exporting members should be reflected in a balanced manner.

FAO should raise its voice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takes a neutral position so that too much emphasis on free trade at the DDA negotiations without due consideration for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does not threaten food security nor damage the noble goal of FAO, alleviating hunger



and poverty for all people.

Also, some countrie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 of agricultural goods are loudly expressing their concerns regarding skyrocketing international grain price following recent increasing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bio-energy.

With regard to this issue, I would like to ask FAO to analyze the comprehensive effects of bioenergy production on f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and provide suggestions for alleviation of poverty and hunger.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난 33차 총회 이후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독립외부 평가(IEE)를 통하여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FAO가 IEE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여 회원국의 수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국제기구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ll agreed that FAO needed reform with growth based on IEE which was conducted with full support of all members after the 33rd Conference.

I hope that FAO, by humbly accepting the result of IEE and setting a future direction, will be reborn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efficiently and actively responds to the needs of member countries.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 농업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한·미 FTA협상, DDA농업협상 재개 등 농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현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출발점은 정부와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 농업계가 합심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으뜸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림부에 취임하면서 농림공직자 및 전국 농업인들에게 3가지 농정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를 포함한 농림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119개의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육성, 농업분야 R&D 활성화, 농지제도 개편, 수출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농약·중금속·잔류물질 검사 등 농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지난해 본격 시작한 GAP,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에서는 선진 위생관리제도인 HACCP을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확대·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소비자단체장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입농산물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단체장과 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농업계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노력에 소비자단체장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고를 해 주시면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소비자단체장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농림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D 투자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농림과학기술 관계기관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FTA·DDA협상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추세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림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림R&D의 효율화를 위해 R&D사업이 농업계 내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BT·NT·IT 등 첨단 과학기술을 농업부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농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는 생화학, 의약학, 정보통신 등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오늘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농림R&D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 중에 농림R&D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만한 많은 성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 연구소의 방사선 육종, 생명공학연구원의 미생물 유전체 연구 등의 결과물은 농림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농림R&D 수행기관과 공동연구나 공동기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농림R&D에서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분야나 공동으로 연구할 만한 과제 또는 분야를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음식문화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

우리 모두 황금돼지띠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정해(丁亥)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께 뜻 깊고 즐거운 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종을 선정하고 표준 조리법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고인식 한국음식업중앙회장님, 그리고 로페즈 부라보(Lopez Bravo) 주한 페루 대사님을 비롯하여 이집트, 코스타리카, 필리핀, 스리랑카 대사님 등, 많은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님과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음식문화는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인들이 즐기는 음식도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세계인들이 나누어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함께 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프랑스, 이태리 등 선진 각국은 자국의 음식문화 수출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지구촌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영양 균형이 우수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 참살이(well-being)문화가 깃들어 있는 음식에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로



부터 우리 전통음식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원리가 그 근본 바탕에 있습니다.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한국음식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우수한 건강식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미국 건강전문잡지 헬스(Health)지는 우리나라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음식이 기능적 우수성과 영양학적 균형성을 두루 갖춘 지구촌의 모범 음식임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 음식은 국경을 넘어 세계인들의 식탁으로 널리 진출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외국어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일부터 조리법을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일 등 가장 기본적인 작업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과 식재료에 얽힌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난해 3월 농림부와 문화관광부는,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한국음식 조리법 표준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음식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팀을 선정하여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음식 300종에 대한 조리법 표준화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이 첫 결실을 맺어 오늘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을 선정하고 표준조리법을 발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책자는 앞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 곳곳에 배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리법 표준화 사업의 결과물들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관련 웹사이트에도 게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음식의 맛과 멋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국음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사랑하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달에는 식품산업분야에 매우 뜻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농림부가 앞으로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그 기틀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이제 농림부의 업무 영역에 식품산업이 추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식품산업 발전이 농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과 음식문화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한식의 세계화 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더욱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음식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구촌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축산업계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여 주신 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님,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아 주신 서울대 김완배 교수님, 그리고 해외 농장 개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외진출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련 민간업체의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마가 지난 후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아열대성 날씨가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의 조짐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수입해서 쓰는 우리 축산농가와 식품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내연구기관에서는 향후 10년간 국제 곡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 개최된 FAO 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기후변화와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따른 곡물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곡물가의 상승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생산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국내 조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농장을

개척하여 생산된 곡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은 어려움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하겠습니다. 70년대 남미의 야따마우까 농장 구입과 농업이민 추진, 80년대 (주)선경의 미국진출에 이어서 90년대는 대륙개발과 고합물산이 각각 중국의 삼강평원과 러시아 연해주에 의욕적으로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부족과 지속적인 투자의 애로, 그리고 생산물의 판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농림부는 WTO·DDA, 한·미 FTA 등 농업협상을 통해서 우리 농업과 농업인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시다만, 더 이상 수세적인 방식만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과 함께,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우리의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한국농업의 외연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요국가의 투자여건과 환경을 조사하여 업계에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외농장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식량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해외농장개척을 위한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해외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간의 생생한 경험을 듣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세계일류의 축산물브랜드

우리 모두 황금돼지띠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정해(丁亥)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가 여러분께 뜻 깊고 즐거운 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7년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발표회』를 통해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여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인증을 신청한 59개 브랜드경영체 중에서 한우브랜드 21개를 포함한 48개 경영체가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와 회원농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깝게도 올해 인증을 받지 못한 브랜드 경영체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행사와 우수브랜드 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재욱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우수 브랜드 심의를 맡아주신 서울대 이무하 교수님을 비롯한 브랜드 인증위원과 실사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와 유통업체 등 각계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는 개방화시대에 농축산업의 경쟁력과 함께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자 우리 농축산업의 활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축산물의 브랜드화는 2004년 이후 정부와 축산농가, 그리고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축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만한 축산물이 그 만

큼 늘어난 것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은 시장에서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게 팔리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어, 날로 확대되는 시장 개방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농가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의 이러한 성과를 지켜본 쌀과 원예작물, 발작물 업계에서도 최근에 브랜드화 노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미국, EU 등 축산강국과의 FTA 발효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축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일류 수준의 축산물브랜드를 더욱 많이 늘려나가기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규모화,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해 축산물브랜드의 파워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브랜드 경영체에게만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에게는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 방식으로 통합 지원하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브랜드육을 저렴하게 맛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축개량을 촉진하겠습니다. 한우의 경우, 브랜드별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 암소집단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와 회원 농가 여러분이 더욱 노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산 축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업소를 현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 100㎡이상인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표시 대상 축산물도 쇠고기 한 품목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확대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말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본격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모든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차별성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가축 사육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식품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농림분야 R&D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새롭게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을 받으신 브랜드경영체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선정된 48개 우수 브랜드가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파워있는 브랜드, 언제까지나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농업계의 힘으로 제2의 도약을

사랑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여러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987년 그 전신인 전국 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창립된 이래 우리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농업인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경우 20세의 나이를 약관이라 합니다. 관례를 올려 명실상부하게 성인으로 대접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혈기 왕성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앞세워 무엇이라도 성취하려고 하는 청년기입니다. 시장개방확대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계의 힘을 모아 제2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의 농업경영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협상,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농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큰 가치를 두고 있고,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도 문화·생태·관광 자원으로 그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이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의 자조·자립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경영 혁신 노력과 경쟁력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열정이 있다면, 작지만 강한 한국 농업·농촌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국의 농업경영인 여러분!

정부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당면문제를 작은 것부터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는 ‘생활 속의 농정’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농림 공직자들의 농촌현장 방문이나 농업인신문고를 통해 파악된 농정현안과 애로사항을 농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시장개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조·자립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우리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

었습니다. 이제 농림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농업인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이치를 깨닫고, 생명을 가꾸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의 지킴이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농업경영인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농정추진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농연이 농업경영인들이 기술경영혁신 역량을 키우고 농촌지역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기능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농림부도 한농연이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정보제공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농연의 지난 20년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아 노력해 온 길이었으며 앞으로도 한국 농업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더많은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길을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한농연이 있기까지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커다란 공헌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농업경영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농업인이 만족할 때까지!

중앙회장이 상당기간 유고상태였음에도 국정감사 수감 등 어려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박석휘 전무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년 말, 새로운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될 텐데 신입회장 선출되기까지는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당면 현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현안 관련하여 첫째, 공정하고 조용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기 바랍니다. 금번 중앙회장 선거는 농협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 농업계의 여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번 행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조용한 선거가 되도록 간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시기가 대선일정과 겹쳐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는 조합장이신 총회회원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금권선거도 우려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태원 원북농협 조합장이신 이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니 금번 선거가 공정하고 조용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당면 업무에 대해서는 주어진 역할대로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 때문에 농협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장일은 우리 농업계에 뼈아픈 사건임이 분명하고, 최근 언론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비판적인 논조를 펴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 외, 다



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4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상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한 결과 내용이 상당히 충실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회는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각 사업부문 대표들은 현장의 농업인이나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농협이 많이 바뀌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할 때까지 무한봉사를 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로 농업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은 회장 부재기간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중앙회장 선거 기간 중이라도 현장의 농업인과 조합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업무라면 늦추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임 회장이 곧바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회장취임 전에 문제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정비하고, 향후 농협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은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자율조직입니다. 농업인은 농협의 주인이자 고객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 불만스럽다면 농협은 설자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조합원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금번 중앙회장 선거가 협동조합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공명선거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부가가치입니다

친애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CEO 그리고 식품·문화계, 연구원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림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났고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정해년 황금돼지해도 이제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우리나라를 끌고 갈 대통령 선거일도 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등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비전 찾기」라는 다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노령화와 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급물살 속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동력은 무엇보다도 농업인·농기업CEO 여러분들의 기술·경영 혁신 노력 그리고 자조·자립 의지,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및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CEO 그리고 식품·문화분야 등 각계 대표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농업 이외 분야를 함께 아우르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번엔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내실 있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자리에 함께 하신 전문수감독이 만든 영화 ‘식객’은 우리 농업과 전통식품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벌써 280만여 관객에게 감동을 주었고,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객의 주연 여배우 이하나씨를 우리 식품산업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식객’의 홍보에 저희 농림부가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 한분의 강사이신 윤홍근 회장님의 제너시스 그룹 BBQ는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1위 업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35개국에 치킨프랜차이즈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외식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매력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농업·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도전에 맞서, 농업 내부의 혁신과 농업이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폭넓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분야 연구개발(R&D)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농림분야 IT·BT 등 첨단기술개발 및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출유망 농식품, 신식품종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월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촉진되고 있는 남북농업협력도 남과 북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농업에도 활로를 열어주고 북한의 농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촌사회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보건·의료·복지 시책의 개선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계 대표, 농업CEO 그리고 각계 대표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은 농업인과 농업계의 힘만으로 이루어 낼 수는 없습니다. 식품·유통·문화계,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여러분들도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성원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농업계 대표들과 각 계 전문가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넓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 황금돼지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셔서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한해로서 기억되도록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8년 새해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상향식 지역개발이 열쇠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나고 우리 모두 황금돼지띠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정해(丁亥)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가 상을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께 뜻 깊고 즐거운 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7 농촌지역 가꾸기 합동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민영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님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와 업계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분야별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데 공이 큰 분들에 대해 시상하고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도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입니다. 주택도 부족하고, 길에는 차가 넘쳐나며, 이웃과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삭막함에 우리 인성도 점차 메말라갑니다. 반면, 우리 농촌은 사람이 줄어들어 갑니다. 도시에 비해 소득도 적고, 교육·의료·주택·문화 등 각 부문에서 도시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인구의 31%가 65

세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돌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농촌을 보는 눈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 살기 불편한 곳으로 여겨졌던 농촌이 이제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전통문화가 보전되어 있어 편히 쉴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쾌적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국민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농촌지역개발의 첫 걸음은 바로 농산어촌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농산어촌을 누구나 편안히 머무르고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시행중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자본과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농촌을 전통과 자연이 함께하는 정주와 휴양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며 농촌 지역에도 돈과 인재가 모이도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원마을과 체험마을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소관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는 명실상부한 농촌정책의 주관부처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전념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도시와 농촌은 상생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돕고자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오늘로 공포된 이 법에 의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지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사업자는 기부·체험·봉사활동 등에 대한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등도 가능하게 되는 등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을 근간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1사1촌 운동 등의 도농교류 사업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의 폐교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조상의 숨결이 서린 고택 등 지역별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장흥군 수문권역”이나, “개실마을” 등 오늘 수상한 지역과 마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을 주민들이 자조·자립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렇듯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주변의 호응과 도움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좋은 마을 가꾸기의 성과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진취적인가,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농촌마을 주민과 도시민,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서로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우리 농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여러 모범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널리 알려서 우리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도약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쌀은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고품질 쌀 생산 · 유통대책추진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수상하는 기관 ·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여러분!

오늘 『2007년도 고품질 쌀 생산 · 유통대책 추진 유공자 시상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림부에서 매년 고품질 쌀 생산 · 유통대책 추진 유공자와 기관 · 단체를 발굴 · 표창함으로써 쌀 산업 발전과 사기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품질 쌀 생산 · 유통대책 추진 유공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으시는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과 평가를 통해 최우수道로 선정된 전라남도, 최우수市 · 郡으로 선정된 안동시 등 기관,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경남 거창 대초단지, 최우수농가로 선정된 경북 의성 이동수님을 비롯한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수상하는 기관 ·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의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살아남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래에 대비한 준비의 일환으로 농가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농정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농가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금년에 9개 읍 ·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완료하여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에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식품산업육성 증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식품제조·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내년도 농림예산 확보에 특히 노력하여 농림부 지출예산을 1.2% 증액하는 연초의 계획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3.3% 증액된 규모로 늘려서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농정방향에 부응하는 『농식품·농업·농촌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체질강화와 농촌개발·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농정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119개소에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수상하는 기관·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우리 농업계가 고민하는 깊이만큼 풀 수 있으며, 우리가 노력하고 흘리는 땀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진취적인가,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리고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으로 일을 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기에 쌀 산업을 담당하시는 수상지를 비롯한 농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상을 받으신 농업인과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세계인의 건강은 강화약썩으로

존경하는 안덕수 군수님과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강화약썩의 주요 효능 연구 보고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회는 도농상생의 균형발전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1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강화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와 고용이 증가되고, 1·2·3차산업의 융·복합화로 지역특화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또한 신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도·농교류 촉진, 교육·인재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결실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군은 바로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것 입니다.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강화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강화약쑥의 산업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제2기 「신활력사업」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약쑥의 주요 효능 연구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세계인의 건강은 강화약쑥으로」라는 슬로건이 구체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시다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책임농정 · 현장농정 · 성과농정으로 유종의 미 거두자

지난 8월 3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취임식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딱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장관이 되고나서 날짜 세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진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늘 마음을 먹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금년 들어서 매우 추운 날씨지만, 이 자리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훈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종무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셨기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만큼 또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금 영광스럽게 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고, 상을 받지 않았지만 양보한 사람도 있고, 또 다음에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상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이라는 구호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사실 취임식 직전에 지어낸 말이지만 구호를 제창해놓고 보니 맞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이디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직자의 일 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4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선공후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자’, ‘외부의 우호세력을 확보하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들어주자’, 이 자세도 그동안 여러분이 잘 지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전 장관들께서 터를 잘 닦아 놓으셨겠지만, 그 수확을 대부분 제가 있는 동안에 거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농림부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눈빛이 살아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런 칭찬의 말을 제가 대표로 듣는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농림부로서는 농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있어 농업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후속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서 확정, 발표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품산업을 농림부 주요 업무로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림부 외부에 계신 분들도 ‘우리 농정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또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농림부가 담당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농림부의 역할과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서로 win-win 발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일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과제이며 협의의 식품산업, 식자재, 전통주 등 앞으로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이 내년 예산에 3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산업의 육성, 수출확대를 위한 한 방향으로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만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 R&D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났을 때 들은 의견 3가지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농민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것과 두 번째,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고 개발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끝으로 “여러 가지 생산이나 유통 쪽에 정부가 기반을 조성해주시면 저희는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림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림분야 R&D 확충안을 확정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고, 또 대덕 등 농업 외 다른 연구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낙후된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술산업,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농업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관심과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림부 장관에 취임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은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정부 공식수행원으로써 참여한 것입니다. 경제부처는 경제부총리 외에는 농림부장관, 물론 과기부총리도 경제부처로 포함을 한다면 세 사람이겠지만, 그 두 명 내지 세 명에 포함 되어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은 우리 농림부로서, 또 전체 농업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농업협력이 매우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앞으로 농림부의 새로운 블루오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농업유전자원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21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하반기인 지난 11월에 정기국회에서 16개 법, 그것도 정말 중요한 법들이 동시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도농교류촉진법, 새만금법, 쇠고기이력추적법등 열 여섯 개의 법률안이 정말 여러분의 노력과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연초의 탐다운 예산한도에 비해서 2600억 정도, 약 3.3%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해서 최종심의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예산의 내용도 좋게 끝났다는 것도 상당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제안했던 농업인 신문고가 지난 9월 29일 119개 농관원 출장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여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활발하게 전달이 될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현장농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약 100여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12건 정도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서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현장농정, 성과농정, 책임농정’

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농림가족과는 1982년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와 농림부수장으로써 일을 할 때, 같은 점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농업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순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에 우리가 많은 정들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열렸던 호프데이 행사에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농림가족 희망나눔 캠페인』도 농림공직자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사업 모델로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돕기에도 농협을 비롯한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유종의 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온 참여정부 농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칫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무식 말씀 | 2008. 1. 2

»» 새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관련 단체 임직원과 농림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해 잦은 강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농업계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만큼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7년의 가장 큰 쟁점을 들자면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일 것입니다. 농업분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협상결과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협상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안정장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경쟁력 향상대책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간 총 20.4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융자계획 규모는 2004년 부터 13년간 당초 119조원에서 12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제·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농림부내의 식품산업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이미 새로운 정책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등 작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된 농촌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기존 농림사업과의 체계화 작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농림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 지역개발을 주관하는 부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업·농촌이 농업인, 농촌주민만의 것이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상호교류·상생하는 산업과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농림공직자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림부, 농진청 중심의 지원에서 범위를 넓혀 농업 외부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IT·B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오랫동안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던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확정하고 농협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에 매진하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방조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참여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까지 맡은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농정의 정책 기조가 새 정부의 농정 기조와 잘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셰이프가드 확보에 협상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관련하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해외 농업자원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하고, 식품규격의 표준화 및 식품 품질인증제 정비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을 통한 한식세계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가등록제를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농가의 농지이용, 축산현황 등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인 유형별로 꼭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및 축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약·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육우 전 두수에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화된 쌀, 김치, 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을 바탕으로 농촌관광이 사회적인 추세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향토 문화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구성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계 내부의 힘만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풀어내고 농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우리 농업을 지지하는 굳건한 우호 세력으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시장·군수와의 농정협의회도 활성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큰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부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조·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혁신역량을 가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농림식품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장을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농업인의 만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생각의 전환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국민들은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아끼고 지원할 것입니다.

농림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소비자 등 정책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공직자로서 제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여서는 우리 농업·농촌은 한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한나라당 간사님과 정세균·최규성·이방호·김낙성 의원님, 박종문, 윤근환, 한갑수, 김영진, 허상만, 박홍수 前 장관님, 우리 농산물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단체 대표 여러분,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을 비롯하여 농업 발전에 애쓰시는 농업계 지도자, 그리고 관련 학계·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김동해 농민신문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우리 농업계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FTA 등 대외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농업인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부터 10년간 총 20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제·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등 작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된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체계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 바 있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50% 인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농정의 기틀을 보다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참여정부의 농정 기조가 새 정부의 농정 기조와 잘 연계되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로, 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 품질인증제 확충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착수하고, 한식세계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보다 나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유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및 축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육우 전 두수에 적용합니다.

다섯째,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을 육성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향토 문화와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부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자조·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질 때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혁신역량을 가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 계의 지도자분들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 작은 생각이 ‘축산의 미래’를 바꾼다

존경하는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 여러분!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자년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축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홍문표 의원님, 서갑원 의원님, 축산 단체장님들과 소비자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산인을 위한 귀한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축산신문사 윤봉중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7년은 한미 FTA 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사료값 인상 등 축산 분야에 난제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협상결과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협상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대책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 말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종식시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고,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과 양질의 조사료 확대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 감동을 주는 고품격 명품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 말부터 모든 소에 대해 이력추적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이 돼지고기와 닭고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러한 성과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축산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우리 축산이 명실상부한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여전히 많은 도전을 감내해야 합니다.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 DDA 협상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을 잣대로 여러분이 생산한 축산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 사료가격 상승,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지속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면서 『보다 맛있고 더 싸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면, 능히 세계와 경쟁하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친환경축산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계속 확대하면서, 친환경 축산농장을 지정하여 환경과 조화된 가축사육 기반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광역화되고 규모화된 명품 축산물 브랜드가 축산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한 사육환경이 조성되도록 금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근심을 줄이기 위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도 작년보다 18천ha 늘어난 30천ha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를 농장단계까지 정착시키고, 희망하는 농가와 판매점을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한육우 전두수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 음식점을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하고 브랜드 직영점과 가맹점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점간 경쟁을 촉진시켜 적정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은 피해 보전을 넘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축산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사료값 인상, 돼지소모성질환 등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분야는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큰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부 변화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조·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갑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자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농업 · 농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림기관 · 단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농업전망 2008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간, 이번 행사를 준비해 오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님과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전망 대회」가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초 농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고, 품목별 전망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농업전망 2008 대회」도 세계 경제와 농업 환경의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과 미래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농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성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농정의 외연(外延)을 식품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농산물이 가공 ·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활력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 지난해 농림부로 이관 받은 사업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 전반의 유기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사사업은 통합하고 지원체계는 단일화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협상 이후를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의 이행 등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이 안정적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안정 장치를 계속 확충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부터 10년간 총 20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품목별로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까지 농업·농촌분야 투융자 총액도 당초 119조원에서 123조 2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끝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 분야 R&D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농업계 숙원이던 전통주세의 인하, 남북한 농업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농업인과 농림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FTA협상과 DDA협상 등 대외 개방의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움직임, 그리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 논의 등 우리 농업이 장기적으로 대비해 가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우리 농업과 농촌을 도약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에 정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농정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교역상 예외적 우대조치와 세이프가드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DDA협상에 대해서도,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와 공조관계를 통해 우리 농업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곡물의 국제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물량 확보와 적정 규모의 비축, 필요시 해외 농업 자원을 개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식품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식품관련 통계 확충, 식품규격의 표준화와 식품 품질인증제 정비 등 식품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산업체·대학·연구기관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식품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로, 농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원이 가능토록 맞춤형 농정의 기반을 확충해 가겠

습니다. 금년에는 농가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개별 농가의 농지이용 현황, 소득·자산 및 경영 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인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과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선호기반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모든 한우와 육우에 확대 적용하고, 쌀, 육류와 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에 애정을 가지신 내빈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여건이나 현실은 우리를 매우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대처해 간다면, 어떠한 난관이나 도전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힘을 합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진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를 준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오늘 전망대회가 큰 방향과 유익한 담론(談論)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부가가치 높여야

먼저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최하는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에는 농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계, 학계·연구계 그리고 언론·문화계에서 훌륭한 인품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농업이라고 하면 1차산업으로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생산에서 가공·유통·문화·관광까지를 포함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까지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농업, 식품산업, 농촌정책 등에 관한 산·학·연·관 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 정책에 관한 혁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도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농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미 FTA 대책수립,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농업분야 R&D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FTA 등 대외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농업인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부터 10년간 총 20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제·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

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 바 있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50% 인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사업 등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체계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정의 기틀을 보다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다음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농업·농촌정책에서 농·어업 및 식품산업 육성과 농·어촌 지역개발까지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어촌 분야의 인사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책혁신 1차 협의회는 앞으로의 모임을 발전시키고, 위원님들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이 바뀌더라도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농촌 활력을 키워야

존경하는 농촌사랑 지도자 여러분!

농촌사랑운동을 주관하고 계시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님과 이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님! 그리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농촌사랑운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농협과 전경련 등 민간이 중심이 된 1사1촌 운동은 그 동안 8천 여 건의 자매결연 체결과 지난 한 해에만도 190만 명의 농촌 방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지난해 553억원에 이르는 등 우리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리의 운동을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농 상생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분들과 마을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사랑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농림부는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갖춘 바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등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습니다.



한·미FTA 발효에 대비해 올해부터 10년 동안 20조 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농업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주 주세를 50% 인하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보다 더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1사1촌 운동을 포함한 농촌사랑운동이 세계적인 농촌지역 발전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사랑지도자 여러분!

우리 농촌의 활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농촌에 바라고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최근 농촌 주민 스스로 자기지역의 특성을 살려 쾌적한 삶의 공간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은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촌사랑 지도자 여러분께서 계속하여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에 애쓰신 농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금년은 설 명절이 평년보다 조금 늦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등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의 대부분이 농축산물이므로 농협은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 설에는 농축산물의 공급여력이 충분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감귤·사과·배 등 과일류와 양파 등은 공급과잉으로 전·평년에 비해 산지가격이 매우 낮으므로 설 기간 중 소비 확대에 노력 해야겠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니 농협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농업인은 농협이 유통·판매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지역·품목조합의 영세성과 취약한 재무구조 등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협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분야에서 경제사업 역량을 높여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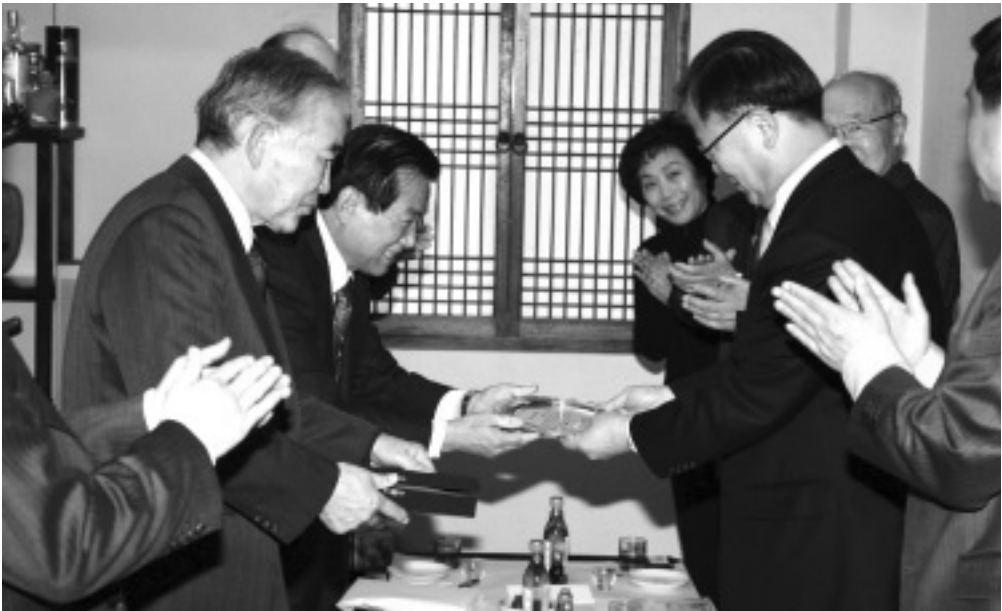
산지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수도권 등 도시지역 조합과 (주)농협유통 등 소비자 유통주체는 산지와 연계한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유통경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림부는 농협의 소비자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판매장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주세인하 등이 전통주산업 초석이 되길

오늘 전통주진흥협회 조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전통주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세 50% 감면과 지원대상 전통주 범위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사안이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전통주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정부, 국회 등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어 생산업계, 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통주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세인하를 계기로 전통주를 세계명주로 육성하기 위해 R&D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마련 하는 한편, 재외공관 선물용에 전통주 활용, 페스티벌 개최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신규예산에 포장 및 시설개선에 200억원, 홍보에 10억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재선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통주진흥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꿈의 라이스 센터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남 옥천농협 『OK 라이스 센터』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3일 이곳을 방문하여 라이스 센터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옥천농협의 열의에 감명을 받아 준공식 때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공식 현장에서 농업인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준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윤경하 조합장님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공사를 담당한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재영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과 오늘의 준공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김충식 해남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 지역 채일병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귀빈 여러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쌀은 반만년 역사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쌀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쌀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시판하는 등 외국쌀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쌀이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쌀의 품질과 차별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단위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천농협에서는 정부의 사업비 22억원을 포함하여 총 122억원을 투자하여 수매, 가공 등 일괄처리 시설과 농가 교육장, 전시실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현대화된 시설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라이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옥천농협 『꿈의 라이스 센터』가 우리나라 쌀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육성에 있어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쌀생산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 등이 대규모 라이스 센터를 견학하기 위하여 일본 등 외국을 방문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국내 농업인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곳 해남 옥천농협 라이스 센터 견학을 위하여 찾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옥천농협의 대표 브랜드쌀인 『한눈에반한쌀』은 소비자단체 주관 고품질 브랜드 쌀 전국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브랜드쌀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쌀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하여 2013년까지 시·군 대표 브랜드쌀 100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대표 브랜드쌀 경영체에 대하여는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매입자금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영농규모를 늘리고 농업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말 제·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농림분야 R&D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연구를 농업 외부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IT·BT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귀빈 여러분!

한국의 쌀산업은 4천 900만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부는 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시장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쌀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물론 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 문제는 다양한 직불제 확충과 농촌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해남 옥천농협 라이스 센터 준공식이 우리 쌀의 품질 향상은 물론 쌀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해남 옥천농협 『OK 라이스 센터』 준공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축원 드립니다.

»»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보여주는 증인

친애하는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학부 형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농업대학의 아홉번째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학교와 농업현장에서 배움의 길을 정진해온 학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정명채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의 변화, IT·BT 등 다양한 기술 진보, 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의 다양화 등 전방위적 여건 변화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이러한 도전에 농업 내부의 혁신과 식품산업·문화산업 등 농업이외의 분



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폭넓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농업뿐 아니라 식품·농촌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되었고 올 초에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탄생 하게 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과 식품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내실있는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또한, 생산과 가공·유통, 기술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농업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주인공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농업경영에 대하여 올바른 뜻과 의지를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이제 곧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앞날, 그리고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농업경영이라는 길에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자기의 꿈과 가치’를 부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갖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도 다 떠나는 농업, 과연 될까?’ 라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혀도 정부탓, 주변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바로 그 안에 몸담은 농업인의 생각만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한국 농업도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활용 그리고, 2·3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있는 산업, 농업의 미래를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를 읽고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니다. 성공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경영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령경영주 소유의 농지 등이 좀 더 쉽게 창업 농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농업인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농업·농촌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나 하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마을·조합·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남보다 앞서 실천하고 자기희생도 피하지 않는 헌신도 해야합니다. 정부도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품질 농축산물브랜드의 육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농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 최고의 농업교육을 받은 인재들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400여명의 선배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농업인입니다. 여러분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CEO로서 우뚝 설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 설계와 실천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길에 성공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언론 속의 임상규 장관

III

인터뷰, 기고, 간담회

농민신문 | 2007. 9. 21

》》 농산물 가공엔 고소득, 식품산업 적극 육성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 우리 농업·농촌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농민신문과 처음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30여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농업 발전 및 농정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정 포부를 밝혔다.

– 장관 취임 이후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 등 3대 농정구호를 제시했는데, 그 배경과 의미는.

▶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림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어려운 일을 많이 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농림 공직자들도 피동적·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3대 농정구호를 제시했다. 먼저 ‘책임농정’은 모든 직원이 책임을 지고 농정 현안에 대해 자신있게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뜻이고, ‘현장농정’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성과농정’은 아무리 작은 농림 정책이라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이 16만1,265원으로 현재보다 5.2% 하락하게 되는데.

▶ 농림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상의 산정방식에 의해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마련,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 목표가격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9월 말 이후 목표가격 변경

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목표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업계 등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린다.

- 최근 미국에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나.

▶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는 네차례 회의를 거쳐 보고서가 작성될 계획인데, 올해 3월 이후 두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우리 측은 개방 대상에서 농업부문을 최대한 제외시키기 위해 보고서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사전에 특정 부문을 제외하는 식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 추진은 이 공동연구 보고서가 나와야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최종 연구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또 본격적인 수입 재개에 대비한 한우산업 발전 대책은.

▶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미국 현지 실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대응해 나가되,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풀어 가겠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광역화·규모화된 명품 한우 브랜드가 축산업을 선도하도록 2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브랜드와 연계해 한우 개량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브랜드육 타운 설립, 브랜드 직영점·가맹점 확대로 판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청보리 등 조사료의 재배면적도 대폭 확대하겠다.

- 향후 농림부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 방향은.

▶ 마늘의 경우 생마늘로 공급하면 1kg당 단가가 3,500원 수준이다. 그러나 흑마늘로 가공하면 1kg당 4만5,000원으로 시장가치가 약 13배 높아지고, 마늘식초로 가공하면 41만6,000원으로 부가가치가 약 119배 향상된다. 이처럼 농산물은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해 판매할 경우 농가 소득에 더욱 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은 물론 농업의 활로도 넓어진다. 우선 식품산업 육성 근거가 되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외식·식품업체들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년에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식품가공업체에 수매자금 1,019억원과 위생시설 현대화 자금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에도 새로운 유망 개척 분야인 '블루오션'이 분명 있을 텐데, 정부는 이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종자산업과 생명공학 분야, 기능성 식품산업 분야를 농업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꼽을 수 있다. 농림부는 농림분야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내년에 연구·개발 사업비로 330억원을 책정했다. 또 기능성·편의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젊고 유능한 창업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연간 5만여명에게 맞춤형 경영·기술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담=박중곤 편집국장

» 남 · 북한 농업 협력, 그리고 미국산쇠고기

-이번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농업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와 논의가 오고 갔나요?

▶ 이번 정상회담 3대 의제 중 공동번영과 관련해, 남북은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은 농업분야 협력이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남북 총리 회담이 개최되고 뒤이어 남북 농업협력 위원회를 통해 시범 협동농장 운영, 종자생산·처리시설 지원 등 2005년 8월에 합의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협력사업이라면 ?

▶ 지난 2005년 합의 사항외에도 인적 자원 양성, 농업 전문가 연수와 교류, 유전자원 저장고 설치, 또 정보 교류, 농업과학 기술 교류협력센터를 설치해 공동운영하는 등 여러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피해입은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도 논의할 생각입니다.

-총리회담을 통해 제안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농림부 당국 차원에서 제안할 생각입니까?

▶ 아마 총리회담을 통해 북과 남의 전반적 협력체제 협의방식이 논의되고 부총리가 주재하는 남북 경제 협력 위원회와 유기적 연계를 맺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남북 농업 협력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급적 빠른 시일내 최소한 연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우리(정부와 민간 합해서) 북한 농업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고 내년엔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북한에 대한 농업 지원은 크게 중앙정부 지원, NGO 등 민간단체 지원, 지자체 지원과 국제기구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정부의 식량(쌀)과 비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정부 지원이나 자체모금 등을 통해 시범영농사업, 농기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한 2007년 지원규모는 정부, 민간 합해 약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지원 규모는 북측과 협의하여 사업을 구체화해야 그 소요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남북이 공동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내 일정한 지역에 농업 특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 농업특구란 하나의 개념입니다. 농업특구란 농업이 발달하거나 도시에 가까운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농업분야의 지원·교류·투자사업이 집중되도록 하는 지역으로서 북한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선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농업특구문제는 북한 농업생산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을 북측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것도 남북 농업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입니까?

▶ 그렇습니다. (다만) 북한의 전체적인 협동농장체제를 허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야별로 농자재 지원이나 위탁영농 등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북한 지역내 소나 닭, 돼지 등의 가축생산과 그 축산분야 제품 생산을 적극 돕는 방안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 북측은 축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육류단백질을 공급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돼지, 닭 등 가축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곡물 확보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측에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북측에서 생산한 육류를 남측으로 반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남측으로의 육류 반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자연자원(인광석) 등으로 대체하여 받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지역 내 가축질병을 근절하는 방역사업을 북측과 협의하여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북한 농업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북한 내부에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북한농업 현실을 들여다보면 생산·분배구조가 비효율적이며 생산기반이 상당히 나빠졌고 비료·농약 등 투입재가 부족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등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에너지 부족, 정치체제 문제 등 농업 외적 요인과 많이 결부되어 있어서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측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남측에서도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며 생산성 증대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자생산, 종축개량, 산림황폐지 복구, 그리고 농업기술 교류 등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으로 규정된 등뼈

가 발견돼 검역 중단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민노당이나 시민단체에선 “정부의 수입 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정부에서는 지난 10.5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먼저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미국에서의 수출선적 중단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금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미측이 이를 근거로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당면 수입검역 문제와는 별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자료 분석 및 미국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제기준과 과학적인 근거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나요?

▶ 전문가 협의도 하고 가축방역협의도 세번 거쳤습니다만 물론 입장에 따라 견해는 다릅니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에 비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따질 생각입니까?

▶ 그런 것은 상대방이 있고 저희 협상 전략도 있고 여타 수입국과 균형이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 · 확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굵직굵직한 현안에 밀려 비록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남북간에 또 하나 중요한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분야입니다. 남북의 농업 협력은 2년 전에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휴업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농업협력은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한 내용 임상규 농림부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 평양에서 임 장관께서는 주로 어떤 인사들을 만나셨나요?

▶ 이번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두 분 정상의 단독 회담이었습니다. 배석자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했고 분야별로 별도의 회담이나 이런 것은 갖지 않았습니다. 주로 농업분야 관계자들을 행사라든지 오·만찬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서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 그 쪽의 농업관계자들도 같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그 분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던가요?

▶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료문제라든지 농기계 문제, 비료문제,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문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비료, 사료, 농기계 이런 것에 관심을 보였다든 말은 그 쪽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쪽과의 협력과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북측의 농업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북측은 그 원인을 종자나 비료, 농기계 등 투입농자재 부족이나 또는 열악한 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 네, 이번 정상회담 워낙 큰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요. 농업분야 합의 사항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전체적으로 양 정상간의 전체적인 방향을 협의 하셨고 농업분야는 2005년 8월에 이미 남북간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진행이 안 되어 왔던 것이죠.

- 예, 이번에 합의된 내용 가운데 농업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분야 내용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해서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농업분야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 구체적으로 혹시 농업협력에 관해서는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 그러니까 기존에 논의되었던 2005년 8월에 합의한 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또 그러한 바탕위에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간다, 그리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다시 개최한다, 이런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 네, 그렇다면 지난 2005년에 열렸던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네, 그 연장선상 위에 또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합의가 되었었는데 2년 동안 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죠?

▶ 남북 농업 1차 협의의 가장 큰 내용이 시범협동농장 운영사업이었습니다. 협동농장

이라는 것은 북한 생산 분배체제의 근간입니다. 또 아울러 행정조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적교류가 수반되는 시범협동농장 사업이 조금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도 북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당국간의 협력사업보다는 민간차원의, 또한 지방자치 단체를 통한 지원사업을 선호해 왔습니다. 아울러 또 북핵문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협력사업이 부진했던 점도 농업협력사업이 부진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추진하실 때요. 협동농장 건도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아니, 협동농장은 기존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본격화 되는 것이 되겠죠.

- 아무래도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게 주요한 관건이라고 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북한 농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또 앞으로 농업협력의 근본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북한의 식량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서 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을 하게 되겠다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통일의 기반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우리가 아무래도 지원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 사업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에서 무상원조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적개발 원조 또는 민간자원투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소요지원문제는 이제 북한 농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북측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내용이 구체화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도 성과를 낼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단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 현재도 약 3백 억 정도가 남북협력기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네, 혹시 이번에 추진하는 것 가운데요. 협동 농장 이상의 단계 말이죠. 예를 들면 개성공단처럼 우리 자본과 기술, 또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는 방식의 어떤 남북농업협력 특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런 개념도 그 동안 제기가 되었습니다. 농업특구라는게 농업이 발달하거나 도시에 가까운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류,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경험모델로써 그 동안 북한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문제는 북한 농업 생산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앞으로 협의해서 그 필요성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남북농업협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농림부의 당장 현안이 또 하나 생겼죠. 쇠고기 문제 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고요?

▶ 네, 미측과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 당초에는 LA 갈비 수입이 올 해 안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였는데 협상 시작하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입니까?

▶ 그것은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은 금년 5월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오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광우병 위험물질인 이 등뼈가 다시 발견된 게 일주일 전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덜컥 협상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미국이 이렇게 수출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취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해당 수출작업장에 승인을 취소하고 또 수입검역을 중단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의 수출 선적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협의 중인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한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과 이러한 검역현안과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현재 미국 측 입장은 물론 내일 만나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현재는 부위라든지 연령제한없이 모두 개방하라, 이게 현재 미국 입장이지요?

▶ 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는 두 개 부위, 30개월 이상일 경우는 7개 부위를 제외하면 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동안 미국 측에서는 연령제한없이 SRM을 제외한 것은 다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SRM이라는 것은 광우병 위험물질.

▶ 특정 위험물질입니다.

-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또 협상 전략이고 또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건강, 아까 말씀드린 식품안전 그리고 다른 수입국과의 균형,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히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 네, 지난번에 맨 처음 LA 갈비가 들어왔을 때 말이죠. 물론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축산농가 반발이 대단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LA갈비 수입을 반겼지 않습니까? 줄도 서고 말이죠.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 쇠고기 수입문제는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또 국민건강을 또 고려해서도 염려를 하십니다. 또 한 편으로는 값싸고 질 좋은 육류를 소비하려는 소비자 후생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된다면 LA갈비라든지 그런 구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떤 적정수준의 또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 또다른 블루오션, 농촌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일시 : 2007년 11월 9일(금)

장소 : 농림부장관 집무실

농촌에서 젊은이와 아이들을 찾기 힘들다. 농업이 비교우위에 밀려 천덕꾸러기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7년 현재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EU와의 FTA도 곧 타결될 전망이다. 개방이 확대될수록 농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럴 때 농림부의수장을 맡은 임상규 장관에게 농림업의 미래와 대안을 듣고 싶었다.



과천 농림부장관실은 활기차고 분주했다. 여느 장관실 같은 근엄과 고요 대신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장관과 사진 한컷 찍는 게 소원이라고 찾아온 농민, 시상식 꽃다발을 장관에게 전하고 싶다는 중년 부부, 농민행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을 맞아 임장은 연신 악수하고 껄껄 웃고 사진 찍느라 바빴다. 인터뷰 시간 내내 활기를 잃지 않고 미래 청사진을 펼쳐는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농촌은 또 다른 블루오션이었다. 위기가 기회라고 농촌이야말로 새롭게 희망을 과종할 만한 지역이었다.

- 장관이 활력이 넘쳐 보기에 즐겁다. 임장관도 농촌 출신인가? 농업에 태생적인 애정을 가졌나?

▶ 당연하다. 우리 세대 중 농촌을 고향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아버지 따라 밭도 갈고 똥장군도 저봤고 돼지도 키웠다. 농촌의 흙 냄새 자체에 향수를 가진 사람이다. 1982년 이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면서 농림 예산을 편성해 왔기에 농림부는 내게 낯선 곳이 전혀 아니다. 일도 신난다. 한주에 두세 번씩 현장에 꼭 나간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이 평소 내 소신이다. 농업과 임업에 내 재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법 또 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촌은 식량 생산만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 돼야한다. 도시인이 찾아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돌아올 자연이 살아있는 휴양공간으로 키워 나가야한다.

- 이틀뒤가 마침 농민의날이다. 11월11일을 농민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는가? 그날은 '빼빼로데이'라는 종래의 풍속 대신 '가래떡데이'로 만들어 색색의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는 행사를 벌인다는 소식을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읽었다.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더라.

▶ 한자로 십(十)과 일(一)을 나란히 쓰면 흙 토(土)자가 된다. 그래서 그날을 농민의날로 정했고 쌀소비 운동을 촉진할겸 가래떡데이 행사를 여기저기서 벌이기로 했다.(원래 '가래떡데이'의 아이디어는 안철수연구소가 낸 것으로 11월11일 서양과자 대신 가래떡을 만들어 직원들끼리 나눠 먹은데서 유래했다 한다.)

- FTA 비준 이후의 농촌현실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농촌의 피해가 가슴아플 지경인데 FTA가 발효되면 더욱 심각해 지는게 아닌가? 장관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방금 장관도 말했듯이 농촌의 침체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의미 그 이상의 박탈감을 안겨 줄 것이다.

▶ 농민이 자신감을 갖고 개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농림예산을 20조4천억원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중장기투융자계획’도 당초 119조3천억원에서 123조2천억원으로 늘렸다. 우선 축산과 원예등 개방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 농촌진흥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식품종 곡물과 원예작물 33가지를 개발해 종자증식과정에 들어갔다. 옛기름을 만드는 보라색 보리(식혜가 보라색이된다), 껌질째 먹는 배, 항암효과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성 보리, 화병에 꽃으면 수명이 세 배나 길어지는 장미, 연두색 신비디움 등 새로운 품종들이 개방 파고를 이겨낼 것이다.

- 얼마 전 농림부에서 영화 ‘식객’을 상영했다고 들었다. ‘식객’에 나오는 훌륭한 요리들을 세계시장에 내다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장관은 과기부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내면서 국가R&D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림 부분에도 R&D를 도입할 건가? 연간 100조원 규모인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하던데?

▶ 식품산업은 향후 농업의 핵심수요처다. 미래 농업발전의 성패가 식품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외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 식생활 변화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최상의 방법이 외식과 가공 등 식품산업을 통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마련 중이다.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농림R&D는 식품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BT·NT·IT 등을 활용한 신식품종 개발, 친환경기술 개발, 재배기술 개발을 두루 강화할 것이다.

내년부터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한식 세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에서 영화 ‘식객’을 상영한것도, 주인공들을 홍보도우미로 삼은것도 세계적으로 탁월한 우리음식에 대한 홍보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FTA로 농식품수입이 늘겠지만 기술집약적인 화훼·특수작물 등은 거꾸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 현재 농식품수출액은 얼마나 되나?

▶ 2002년 16억달러이던 것이 작년엔 23억달러가 됐고 2025년엔 100억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유망 30대농산물’을 지정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다.

-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 노인들만 남은 들판은 쓸쓸하다 못해 우울할 정도다. 장관의 계획대로라면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 현재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3%가 채 안된다. 농촌을 문화 낙후지역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발전전략을 세우고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창업교육을 늘리고 젊은 후계인력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농촌의 고가나 폐교를 전통음식, 놀이, 세시풍속을 전승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산도 마련해뒀다. 앞으로는 농촌이 활기를 되찾아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뼈가 섞인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말 한적이있나? 신문마다 농림부장관이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육류협회 편을 드는게 아니냐는 공격이 난무하더라.

▶ 정말 기가막힌다. 기자들이 앞뒤 말을 잘라먹고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쇠고기 수입위험을 평가하는 8단계 절차가 있다. 지금 5단계를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왜곡 보도한 것이다. 양쪽이 팽팽한 줄다리를 벌이고 있고 단 한 차례도 줄속으로 협상한 적이 없다.

수출국과 잔류물질 검사 기준 등 동물·축산물수입에 관한 구체적 위생조건을 상호 협의하는 6단계는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다. 세계 116개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20개월 미만의 소를 사는데 일본 뿐이고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사오기로 돼있다.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국민건강이 최우선 이라는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 지난번 방북에서 남북합작 비료공장을 짓자고 제안했나?

▶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 그쪽 농업관계자들과 만찬장에서 얘기하던 중에 비료와 농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정도다.

- 농업인 신문고란 것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농촌문제에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발 빠르게 해답을 찾으려 한다.

- 아침을 뭘 먹나?

▶ 하하. 꼬박꼬박 밥을 먹지 먹긴 뭘 먹겠나.

그는 정부내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능숙한 조정의 달인이다. 설득력과 대화술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답은 간결하다. 자기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 무조건 상대방 말을 들어주기!

근무시간 이후 전 직원이 모여 맥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호프데이’는 농림부의 새 풍속도다. 그런 자리에서 직원들 이야기를 들을 때 입장관이 애용하는 건배사가 있다. “당신 멋져”인데 풀이가 더 멋지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때로 저 주면서” 이화여대 교직원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만 둘. 별명은 불도저. 아닌 게 아니라 추진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발이 넓어, 장관된 지 석달만에 벌써 웬만한 농촌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다. 입장관이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에 웃음과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천번만번 기대한다.

글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사진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농촌사랑 | 2007년 겨울호

»» 미래의 주역들에게 농촌사랑운동이 확산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난제가 산적한 시점에 한국농업을 이끄는 수장이된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자연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기업과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으며 농촌사랑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임 장관은 또 내실화와 장기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농촌사랑운동이 미래의 주역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촌사랑운동이 2003년 12월11일 선포되어 곧 4주년이 됩니다. 농촌사랑운

동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 “농촌사랑 1사1촌운동은 4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기업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0월 말 현재 8500여쌍의 도농 자매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농산물 구매 등 교류 금액 누계도 1800억원에 달해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도 알려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민간 주도로 기업과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농촌사랑운동이 정착·확산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언론계 및 기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혹시 ‘농촌사랑운동 내실화를 위해 이런 것도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 “이제부터는 1사1촌 농촌사랑운동을 내실화하는 차원과 장기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등 미래의 주역들을 대상으로 1사1촌운동이 확산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최근에 학교와 농촌마을 간의 자매결연 실적(10월 말 현재 575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 농촌의 전통문화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데, 관련 대학의 학과 등과 농촌마을 간 교류를 통해 우리 농촌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유지, 복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농촌사랑운동이 민간의 자발적인 범국민운동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농촌사랑운동은 글자 그대로 기업과 도시민이 자발적으로 농촌사랑에 나서는 운동으로 전개되고 정착될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마련, 대국민 홍보, 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화하는 한편 공익성 지정 기부금단체로 등록하고,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개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제정, 농촌마을 지도자 교육, 도농교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참여정부가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펼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참여정부는 쌀 협상, 한·미FTA등을 비롯한 대외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안으로는 정책적 관심을 농업중심에서 농업·농촌·식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 삶의질 향상기본계획 수립등을 통해서 중장기농업·농촌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정제도, 협동조합, 농지제도 등 농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정의 틀을 가지고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농업생산 구조의 규모화·전업화 진행, 농식품 수출액 연평균 7.4% 증가(2006년 23억 달러), 직불금 확충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2003~2005년간 6.5%), 1사1촌운동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활력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 농촌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및 도시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1사1촌 농촌사랑운동은 도시와 농촌,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1촌운동은 기업체의 경영·판매 전략과 컨설팅 등의 노하우를 자매결연 마을에 접목시켜 농촌발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 완수와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도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운동을 농촌을 체험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담: 오덕화 편집주간(농민신문사 출판국장)
 정리: 이선아 기자
 사진: 김천용 기자

»» 21세기 농촌여성의 역할

“21세기는 여성(Female),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에도 여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본지와 특별대담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식품분야의 농림부 이관에 따라 농촌여성의 식품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지만, 무엇보다 농촌여성들을 위한 복지·문화·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등 삶의 질 향상 방안 대책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9일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낸 임상규 농림부장관을 본지 오홍명 편집주간이 만나 역점 농정추진 계획과 농촌여성 지원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국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전국의 농촌여성을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 정부는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서 우리 농업·농촌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삶의 질은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소득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농림부가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동 부담을 덜어 드리는 도우미 사업과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농가도우미, 사고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한 도우미 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에게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을 통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의료 지원 확대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식품산업이 농림부의 주요 업무로 편입되면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영농, 식품산업 진출, 남북 농업교류를 농림부의 새로운 3대 블루오션 전략으로 설정하고 계신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올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부문이 농림부 소관이 되면 농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농림 R&D를 농업부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과 교류를 활성화해 농업이 첨단화의 길로 육성해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농업교류는 현재 어떠한 분야보다도 절박하고 현실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농업인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인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촌여성들은 영농에 종사하면서 가사일도 책임지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을, 눈높이에 맞춰서, 가까운 거리에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즘 인기가 높은 농촌관광 교육 분야에 여성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개발교육에도 여성리더과정을 운영하여 여성 농촌체험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인단체가 시행하는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 이상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결과에 따라 이듬해 지원을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이 영농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시 농업인이 아닌 단순주부로 보상 기준액을 산정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개정해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 증명이 가능토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 농촌여성들은 전통된장 만들기, 전통주 빚기, 천연염색 가공 등 우리 농촌문화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의 자원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 전통생활문화 전승, 농촌관광 서비스, 농산물 가공 등의 분야에서도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통 생활기술을 보유한 여성농업인의 기능과 노하우를 보전하고 농외소득으로 연계되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국 500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과, 장류, 김치 등 농산물 가공제품이 생산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연 염색, 삼베가공 등 비 농산물제품도 일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과와 장류 생산 과정에는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장도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소규모 맞춤형 평생학습’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시보다 낙후된 문화, 복지, 교육 부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농촌여성들이 입을 모읍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 좋지 않은 교육과 의료 등 생활 여건은 농촌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는 공공과 민간부문 투자를 위축시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농촌의 복지와 교육, 지역개발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중소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인구를 20%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 보건과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건강관리실 설치,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촌 우수고교 집중 육성,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도 힘쓰고 있습니다.

- 농촌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없는 농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우수한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 국제결혼으로 인한 농촌 이주여성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0년이 되면 3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40대 이하 주력 여성농업인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이 분들이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수한 농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문교육도우미 300명을 통해 1천800명의 농촌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생활 상담, 소그룹 활동으로 문화·예절과 영농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어교육 과정을 거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농사일 함께하기, 농업정보 제공, 영농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애로점은 작업환경입니다. 여성들이 운전하기 편한 농기계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 원예·화훼·축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 참여가 높아졌습디만, 여성농업인의 영농여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보급된 대부분의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져 있어서 여성이 운전·조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농기계 생산지원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결과를 검토해 여성농업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농촌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21세기를 3F의 시대, 즉 여성(Female),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의 시대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여성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치밀한 여성의 장점을 살리고, 때로는 남성 못지않은 독심으로 농업경영에서 성공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식품제조업, 외식업 등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인데 이는 여성농업인 여러분께서 축적된 경험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식품산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여러분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담 = 오홍명 본지 편집주간
정리 = 이종국 기자

서울경제 | 07. 12. 17

》》 식품가공 · 수출로 농정 중심축 바뀌야



“이제 농림부 업무는 단순한 농축산품의 생산·유통에서 식품가공·수출·소비촉진으로 과감하게 전환돼야 합니다.” 임상규(사진) 농림부 장관은 운이 좋다. 지난 9월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농림부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지던 식품산업을 농림부 업무로 끌어오며 부처 운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 덕분에 농림부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점쳐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느긋하기만 하다. 임 장관은 “지금까지 식품안전성 말고는 정부에서 방치돼 있던 식품육성 업무를 맡게 된 이상 식품산업 발전이 농정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로운 식품산업과 농가 생산·소득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농림부의 주요 쟁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 국회에서 숙원사업이던 식품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 농림부의 식품산업 육성에는 외식산업과 식자재 산업, 한식의 세계화, 전통주 육성

등이 모두 포괄됩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식품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연구개발(R&D)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는 광역 식품클러스터 신규 조성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전통주에 대해서는 이미 주세 50% 감면의 내용이 담긴 '주세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고 통신판매제한 규정 폐지 등 유통 관련 규제도 점차 완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웰빙 취향과 수요 다양화, 국제간 거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식품에 대한 특성화에도 힘을 신게 될 것입니다.

-R&D라면 포괄적인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요.

▶ 농업 분야의 R&D 여지는 가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법 개량과 신품종 개발, 정보기술(IT) 접목 등 무궁무진하고 농업계와 과학계 양쪽에서 모두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정부기관 중심으로 R&D 논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대학과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거세질 전망인데 식품산업을 주관하려면 인력도 상당 규모 확충돼야 합니다. 내년 농림부 조직 운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농림부는 조직을 축소할 일이 없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미 11월에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확대 개편했고 '식품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화된 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점 분야가 생기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충하면 됩니다.

-남북경협에서도 농업 분야는 할 일이 많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농업 부문의 남북협력은 2005년에 이미 농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회의 등을 통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빨리 이뤄질 부분은 종자 생산 및 가공 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지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종자 및 유전자원 관련 현지조사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농업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할 것이 많은 분야입니다. 북한농업은 매우 피폐화돼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하였고,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60~70% 정도에 불과하고 식량 자급은 커녕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농기계는 가동이 안 되고 시설 낙후와 토지 산성화 등 손 볼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접근하기 쉽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점차 협력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1차 협의 이후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미국 측에서 2차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안 하고 있어 현재는 관망 중입니다. 우리정부의 대처에 대해 현재까지는 축산업계로부터도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국민정서를 모두 감안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는 방안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FTA가 이뤄지려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쇠고기와 FTA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에서 항상 농업문제가 걸리는데 개방화시대에 농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 개방의 대세는 거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과 품목별 경쟁력, 상대국의 특성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미국과 EU의 경쟁력은 서로 다르므

로 상대국에 따라 우리의 입장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축산물과 낙농품은 EU와 캐나다가 많이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고 관심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개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아직 협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관심 품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수입이 급증할 것 같은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수입쿼터 설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예외적인 취급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아직 확고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제유가와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오 에너지 개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므로 확고한 입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농장을 개척하기 위해 과거에 실패했던 아르헨티나·러시아 농장개발 문제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방치됐던 대단위 농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농촌공사로 소유권을 이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농림부 산하기관 가운데 농협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요.

▶ 사실 농협도 나름대로 많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신용기능 등의 확대도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수익을 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월에는 10년 계획인 ‘중앙회 신·경 분리방안’을 수립해 2017년까지 중앙회를 교육·지원, 경제, 신용 등 3개 법인으로 분리할 방침인데 농림부는 이를 위

한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비농업인 출신 장관으로서 농림부와 농림산업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사실 농림과 인연을 맺은 지는 20년이 넘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농수산부 담당 사무관으로 시작돼 예산과 정책·가격·R&D·유통 등 주로 밖에서 농림과 관련해 많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농림부가 밖에서 보기에는 낙후되고 위축된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새 분야를 개척하면 얼마든지 위상을 키우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추진사업이 성공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109명이 승진을 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잘 해보자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습니다.

농림업에 대해 말하자면 대외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개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신감도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전업농과 고령농·부업농 등 농가별 여건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농정 어젠다를 제시해주신다면.

▶ 남북농업협력과 식품산업 육성, 농림 R&D에 역점을 두어 추가 어젠다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문화관광 활성화와 교육·복지·건강·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방안도 검토해 추가 발굴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농림부의 업무영역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농림부 내 식품산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액이 올해 대비 65% 늘어난 상태입니다.

농림식품산업은 굴뚝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입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런티어 정신을 가진 농업인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농업인

들의 자조·자립 의지와 기술, 정부의 적절한 기반 조성 및 지원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스스로 변하고 있고 농림부도 농업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이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신경립기자
사진= 김동호기자

》》 농식품수출 2025년 100억弗시대 열 것

30개 주력품목 선정 물류 등 인프라 구축
147개 해외공간 수출 전초기지로 활용도

“시장 개방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기회로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는 연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국내 농가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임상규 장관은 “우리 농식품 브랜드를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면 한국 농업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 들어서는 10월까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 육성 업무의 일환으로 앞으로 농식품 수출주력 상품을 집중 육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작물과 식품 등 30개 주력 품목을 선정,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전문경영체를 육성해 현재 연간 25억달러 안팎인 수출액을 2025년에 100억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4월 외교통상부와 ‘우리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147개 해외공관을 농식품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앞으로 세계 해외공관에는 한식 전문 요리사가 파견돼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우리 농식품을 사용한 한식을 내놓게 된다.

해외 인사들에게 공식 제공되는 선물로도 우리 농식품이 활용된다.

임 장관은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는 등 한식은 잘 개발하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립기자

»» 농업 R&D 확 늘렸죠

농림부가 바빠졌다. ‘농업농촌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업무 범위가 대폭 늘었고 처리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도 대폭 개편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농림부 조직은 ‘해보자’는 투지와 활기로 넘친다.

이런 농림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은 임상규 농림부 장관(58). 임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책임농정, 현장 농정, 성과 농정을 정책 과제로 내걸고 농림부 행정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농림부 직원들에게 “하루를 열흘처럼 일하자”는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2월 8일로 취임 100일을 넘긴 임 장관을 만나 농정 현안과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농림부 장관 취임 후 10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밖에서 봤던 농정 현실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 비록 농림부 출신은 아니지만 저처럼 객관적으로 농정에 관여해본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안에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농정과는 큰 차이가 있더군요.

무엇보다 절실하게 깨달은 건,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당장 해결을 요하는 현안들도 많고 새로 찾아야 할 일도 많은 부서죠. 무엇보다 농림부에 와서야 우리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대내외적인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분명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죠. 농업인의 날 캐치프레이즈가 ‘소비자의 만족이 농업인의 만족이다’라고 바뀔 정도로 농업인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요, 남북 교류 확대 차원에서 농림부가 할 일이 많겠습니다.

▶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13명 가운데 농림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남북 농업협력을 양측 모두에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식량 문제는 북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이기도 하죠. 농업과 보건·의료는 사회나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남북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돼 왔는데요, 종자 생산이나 가공시설 지원, 유전자원 저장고 지원, 산림 사업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농업시장 개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계화 시대 한국 농업의 생존, 발전을 위한 농정의 핵심은 뭘까요.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농업 구조 개선이 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거죠. 농업 구조 개선은 고령농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와 청장년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BT·IT·NT(나노테크놀로지)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농산물 생산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농림부가 이런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식품 산업을 키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 농업 분야의 R&D 예산이 부쩍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 그렇습니다. 새해 농업 R&D 예산이 1051억원인데요, 올해와 비교해 보면 무려 6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고부가가치로 가야 해요. 그래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하거든요. 예산을 대폭 늘렸을 뿐 아니라,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농업 R&D 부문에 민간 부문 등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R&D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 최근 식품 산업 육성에 대한 주무부처가 농림부로 정해지면서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농정의 화두가 되고 있다죠.

▶ 지난 11월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 진흥법'이 의결되면서 식품 산업 발전이 농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식품 산업 육성은 농림부가, 식품 안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죠. 광의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자재, 외식, 전통주 등은 모두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 의결과 함께 '농산물 유통국'을 '농산물 유통 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한 것도,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주세요. 식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면, 이를 바탕으로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한식 조리법 표준화, 명칭 통일, 한식당 인증제 등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해갈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 향후 농림 행정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신다면.

▶ 수출 농업, 과학 농업, 친환경 웰빙 농업 등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게 농림 행정의 최고 목표죠. 저는 문

제도 현장에 있지만 해결 방법도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농촌이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분명 농촌에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책임 농정, 현장 농정, 성과 농정이라는 3가지 구호를 밝혔는데요, 향후 몇 년간 농림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여부가 좌우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담 노성호 부장 / 정리 정광재 기자



임상규 장관은 누구?

◆ 다양한 부서경험 · 업무조정능력 ‘탁월’

“농정은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임상규 장관은 농림 행정의 큰 그림을 묻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 한마디 답변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데 충분했다.

행정고시 17회 출신인 임 장관은 재정경제원 물가정책 과장,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정통 경제 관료로 명성을 쌓아왔다.

논리적 언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과천 관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 인사로 통해 왔다. 강한 추진력과 친화력을 필요로 하는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낼 때는 농업 구조 개선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며 농림부와 끈끈한 관계를 맺었다. 행시 17회 동기 회장을 오랫동안 맡아 왔다.

임 장관은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관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특히 강조한다. 정기적으로 호프데이를 지정해 임직원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 농정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임 장관은 “농촌에 애정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가능한 많이 듣고 농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구개발로 첨단농업시대 연다

한국농업이 단순한 먹을거리만 생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2차 가공 산업과 3차 서비스·지식산업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의 형태로 발전 중이다.

고도 성장기 한국경제를 이끈 엔진이 자본과 노동의 대량 투입이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꾼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R&D)과 기술 투자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결실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다.

우리 기술로 젓소고기와 한우고기를 구별하는 현장감별용 키트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100% 완벽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자체기술로 개발됐다. 조만간 현장에서 즉시 수입산 쇠고기를 가려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우 산업을 지킬 '작지만 든든한' 기초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를 신속하게 종식시킨 밑바닥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발한 진단키트가 있었다. 이 키트는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조류의 분변을 이용해 현장에서 20분 이내에 질병의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때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을 위해서는 시료를 거둬 실험실로 이동시켜야 했고 감염여부 확인에 최소한 2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개발된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 키트는 국내 방역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 인도네시아, 몽골 등 46개국에 38만수 분량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우수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빛을 내는 경우도 희망적이다. 딸기는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 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작목인데 2004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종자의 4.6%만이 국산이었고, 90% 이상을



일본 종자가 차지해 왔다. 하지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김태일 육종팀장의 노력으로 2002년부터 새로운 품종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딸기 종자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2002년 ‘태향’을 시작으로 ‘설향’, ‘금향’ 등을 개발하여 현재는

딸기 종자의 36.4%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외국산 종자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오는 2010년까지 60% 이상을 국내산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 부문 연구개발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BT·IT를 농업에 접목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최근 (주)천년약속 바이오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장, 농촌진흥청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등 산·학·관·연 전문가 1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림 R&D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림R&D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였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농업분야 접목을 위해 농업계 내

부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전자통신연구원, 방사선연구소 등 농업외부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과제 공동기획, 공동연구 수행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전체 농림예산 대비 농림R&D 예산 비중을 현재 3.5%에서 2012년에 5% 수준으로 늘리고, 농림R&D 사업 중 민간과 농업 외부분야 연구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의 비중을 현재 20% 초반 수준에서 2012년 40%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농업이 단순한 먹을거리만 생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2차 가공 산업과 3차 서비스·지식산업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의 형태로 발전 중이다. 농림R&D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 농업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 한국농업의 성장엔진, 수출에서 찾는다

네덜란드·썬키스트 등 악조건 딛고 농수출 강국에 고품질 전략품목 집중육성 한국판 썬키스트도 자신만만

한국 농업의 발전모델을 찾을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네덜란드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와 바다보다 낮은 땅, 적은 강우에도 흉수를 겪는 불리한 환경을 지녔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 강국이다.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매년 400억달러 이상의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유통망을 갖고 연간 12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썬키스트’는 약 6000명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품목농협이다. 놀랍게도 오늘의 ‘썬키스트’는 1870년 선물로 받은 오렌지 나무 세 그루로부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라는 브랜드는 전 세계 키위시장의 20%를 점유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키위는 100년 전 한 농민이 가져온 중국의 야생다래를 개량해 탄생했다.

네덜란드, 썬키스트 그리고 뉴질랜드 키위는 처음부터 현재의 명성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거나 아예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다.

최근 한국 농업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경제 국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외국 농식품과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아니다. 한국 농업의 크고 작은 희망을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남 고흥의 영농조합법인 한성푸드는 유자차를 중국 일본 홍콩 등지에 1년 동안 1100만달러 이상 수출했다.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에서 네덜란드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만 4500만달러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김치는 지난해 미국의 건강 잡지 'Health'에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되었고, 비빔밥은 홍콩항공사의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등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의 입지와 세계 시장상황을 보면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은 밝다. 세계 최대 농식품 수입국 중의 하나인 일본과 최근 들어 고품질·고가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이 우리 바로 이웃에 있다. 세계 농식품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농식품 수입규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하개발어젠다,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 완화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이제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야 할 때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23억달러였다. 세계 일류 농식품을 만들겠다는 현장 농업인과 관련 업계의 의지가 있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는 농식품 수출의 비약적인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중장기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품질의 수출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등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47개 재외공관을 우리 농식품의 수출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의 대책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과 수출업체들이 광활한 해외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외 바이어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케팅에 관한 새로운 감각을 익히고 발전시킨다면 한국판 ‘썬키스트’와 ‘체스프리’가 나올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 삶과 휴양, 농촌의 값진 선물

작년 12월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 이천시 올면 부래미 마을에 다녀왔다. 부래미 마을은 400년간 이어진 안성 이씨 집성촌으로 30여 가구, 약 7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2004년부터 마을을 찾는 도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에는 2만8천여명이 다녀갔으며 그들 중 20% 정도는 다시 찾는다고 한다. 명절에 친인척이나 들르던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석산저주지 등 수려한 경관 때문만은 아니다. 유기농 반찬, 손두부, 인절미, 메밀묵 등 먹을거리가 많은데다 방울토마토·딸기·포도 따기, 감자·고구마 캐기, 친환경 벼농사 체험, 미꾸라지·우렁이 잡기, 풍물놀이 배우기, 짚 공예, 풀피리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 농기구를 진열한 농기구 전시장, 수생식물과 반딧불이를 보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공원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흥미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놀랍다. '부래미주경야독'이라는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출향민 및 최근 귀촌한 주민들과 협력해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부래미 마을과 같이 농촌을 도·농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의 농촌에서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 살기 힘들고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 농촌은 자연이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 전통과 문화 자원이 보전돼 있는 곳,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과 주5일 근무제의 확대에도 도시민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건강, 웰빙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환경, 경관, 문화적 가치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1촌1사 운동이 확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농업의 블루오션' 자연순환농업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축산업은 농가에서 부업으로 많아야 소·돼지 한 두 마리를 키우는 게 전부였다. 소는 논밭에서 거둔 농작물의 부산물이나 들과 산에서 자란 풀을 베다 먹였고, 돼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 먹었다. 우리나라 외양간은 짚이나 풀을 깔아 배설물은 자연스럽게 퇴비가 되었다. 땅에서 자란 작물을 가축한테 먹이고, 그 배설물은 거름으로 만들어 다시 땅에 돌려주었다.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농업 형태는 식량 증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축산업이 규모화하면서 한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70년에 240만 마리에 불과했던 소·돼지 사육 두수가 2001년 이후 10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다.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외에서 들어온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축분뇨 발생량도 함께 폭증했고, 반면 농지에는 화학비료만 뿌려졌다. 경종농가가 품이 많이 드는데다 품질을 불신하여 가축분뇨 거름 사용을 기피했던 것도 한 이유다.

최근 다시 자연순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가축분뇨가 국토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고,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약해진 땅심을 높이는 것이 농업계에 큰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덜 쓰거나 안 쓴 환경친화적 농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연순환 농업의 성공사례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충남의 논산계룡축협과 인근의 지역농협은 2003년 이후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공급하고 이를 논과 밭 농사에 이용하는 협력체계를 유지했다.

가축분뇨 거름을 사용한 결과 과실의 당도가 높아지고, 벼가 튼튼하게 자라 농약 사



용이 줄어들었다. 가축 분뇨 퇴비와 액비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충남 대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수박연구회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딸기·수박 등의 재배연구를 통해 실증되었고, 농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축분뇨 거름의 인기가 높아져 액비 사용 면적이 2006년 1100ha에서 지난해 2200ha로 늘었다.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 농가 중 처리비용이 어느 쪽이 덜 들까? 답은 자원화 농가다. 실제로 돼지 1천 마리를 치는 농가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액비를 사용하는 벼 재배 농가도 1ha당 10만원의 비료값을 줄였다.

충남 논산의 이런 성과는 지자체와 농·축협, 농가가 서로 협력하여 고품질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생산·공급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 농협·축협, 농가 등이 자연순환 농업 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2006년 18곳에서 작년 말에는 39곳으로 늘었다.

이제 우리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야 할 때

다.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잘 만들어진 퇴비와 액비는 유기물이 많아 땅심이 적은 우리나라의 토양에 꼭 필요한 비료자원이다.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을 현행 82%에서 2013년 90%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만큼 화학비료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를 위해 부숙도 판정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축분뇨 거름의 품질 안정성과 균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가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거름을 운반하고 살포하는 작업을 해주는 유통조직을 현재 39곳에서 2012년까지 70곳까지 늘리고,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순환 농업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농민신문 | 2007. 12. 6

》》 “한국농업 자신감 찾을 새 성장동력 창출할 것”

한국농업 이끌어갈 3대 핵심축

식품산업 ... 농업과 연계 육성·수출확대

농림 연구·개발 ... 예산비중 5%까지 확충

남북농업협력사업전개 ... 유망분야 개척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적극 육성하고, 남북농업협력사업을 본격 전개하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유망개척분야)’ 이 나올 것입니다.”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농림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방화시대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3대 핵심축으로 ‘식품산업’ ‘농림 연구·개발(R&D)’ ‘남북농업협력사업’을 꼽았다.

임장관은 “우리 농업이 개방화란 물결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 증장기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농림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식품산업 및 수출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분야 R&D사업 활성화를 위해 R&D 예산을 전체 농림예산의 5%(2007년 현재 3.5%)까지 확대해 나가고,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림 R&D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임장관은 또 “농업이나 농촌도 국민 속에 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원활한 농정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구하

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로부터 주요 농업·농촌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한편으론 협의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자문기구 형태로 운용될 협의회는 내년 1월 첫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임장관은 “다양한 시각에서 농업·농촌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농업에 애정을 가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남아 있을 때 농정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며 “현재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분들을 위원으로 초빙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는데, 대부분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쌀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려면 현행 법률대로 연도별 쌀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목표가격을 현행 80kg 쌀 한가마당 17만83원에서 16만1265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동의 요청서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장관은 “소모성질병 확산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돈산업 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양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양돈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품목을 늘리고, 사료원료 구매자금 예산을 올해 515억원에서 내년에는 7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대가축 사육농가들을 위해서는 보리 등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늘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내년 청보리 재배면적을 올해의 두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어민신문 | 2007. 12. 10

》》 “전통주 주세인하 곧 현실화”

연도별 쌀값 반영, 쌀 목표가격 단계적 조정

우리농산물 사용 외식업체 인센티브 검토

전통주업계가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왔던 주세 인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지난 6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동안 추진해온 농정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임상규 장관은 전체주류시장의 1%미만에 불과한 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식품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임 장관은 “전통주의 주세를 50% 인하하는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했고, 국회 재경위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라며 “전통약주 1kl생산에 쌀 1톤이 소비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로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임 장관은 “전통주육성은 지금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본적이 없고, 세수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접근하는 수준이라서 매출 5억원에서 10억원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 기존 유통망에 끼어드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며 “누룩에 관한 R&D투자를 지원하고 통신판매 등의 제약을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장관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식 등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의 오랜 요구였다”며 “취임 이후 관계부처 설득을 통해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식품산업의 육성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만 각 부처와의 중복업무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며 “외식업체들이 우리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우리농산물도 원료로서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공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관련 최대 현안인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도별 쌀 가격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현재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할 당시 목표가격을 변경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는 농협법대로 일을 처리해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농협은 전국적인 조직이고 조합장들의 영향력도 크며, 농협개혁은 오래된 문제”라며 “농협 스스로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도태될 것이며, 농협법에 기본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 장관은 농림R&D 예산을 농림예산의 3.5%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하고, 내년 1월에는 과학기술부와 농림·생명공학 분야 R&D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 2007. 12. 6

»» 식품산업으로 외연 확대 등 '성과'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지난 8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참여정부 마지막 농림부 장관으로서 길지 않은 기간동안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구현키 위해 노력해온 임 장관은 "한·미 FTA 등 개방의 가속화 속에 향후 몇 년이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해 왔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특히 임 장관은 "농림부의 역할도 진취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만한 제도를 갖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임 장관의 소신은 3개월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농정의 외연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키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2007년 11월 30일 임상규 농림부 장관

식품산업으로 외연 확대 등 '성과'

임상규 장관이 지난 8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참여정부 마지막 농림부 장관으로서 길지 않은 기간동안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구현키 위해 노력해온 임 장관은 "한·미 FTA 등 개방의 가속화 속에 향후 몇 년이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해 왔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특히 임 장관은 "농림부의 역할도 진취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현할 만한 제도를 갖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임 장관의 소신은 3개월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농정의 외연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키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

‘식품산업진흥법’ 등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 장관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들어봤다.

-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을 두고 이견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변경안은 현재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목표가격을 현행대로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 쌀의 공급과잉 초래, 탈농 및 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조정 저해, 외국쌀 가격과의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향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키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연도별 쌀 가격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일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담당케 했는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농림부의 업무영역에 식품산업이 추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식품산업 발전이 농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우선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강화, 전문인력 양성,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등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겠다. 특히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식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식품의 세계화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전통식품과 KS식품 인증제’ 등을 확대해 식품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

이와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식품산업 발전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출농산물 육성대책이 있다면.

▶ “고품질의 수출주력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된 수출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내용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수출농업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농업용 면세유류 개편방향에 농가의 관심이 높다.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 “부정유통 등을 사전 예방키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는 관할 지역 내에서만 구입토록 하고 농기계별로 공급기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농기계 보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농업인과 부정 유통 주유소에는 면세유류 공급을 일정기간 중단할 방침이다.”

- DDA, FTA 등 대외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은.

▶ “DDA 협상이 언제, 어떻게 타결될지 불투명하나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EU와의 FTA도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키 위해 예외적 조치 인정과 농산물 셰이프가드 도입, 수입쿼타 설정 등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의 고비마다 관련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개방 확대에 대응해 시설현대화 지원이나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농업

R&D 투자 체계화· 확대 등을 추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

- 낙농산업 발전 대책이 수 년 째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지난 2005년 7월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한 이후 생산자단체와 유관업계 등과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이해 관계자간 의견 대립으로 아직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확대에 대응해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적인 생산쿼터 조사 관리, 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 시행 가능한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젖소개량, 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홍보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양돈산업은 칠레·미국·유럽연합·멕시코와의 FTA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대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양돈산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며 최근 사료 원료곡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을 볼 때 사료비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나 축사시설 현대화, 종돈 개량, 사양기술 개발 등을 통해 모든의 생산성 제고와 폐사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으로 외국산과의 차별성을 높여 나간다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양돈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양돈산업 발전 TF팀’을 구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사료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나 사료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국에 비해 훨씬 크게 사실이다.

현재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늘려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자급도를 향상시켜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양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농정의외연 · 예산확대 · 새 성장 동력 확보 총력

“농림부 역할 진취적으로 변해야 한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만한 제도를 갖추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취임후 지금까지 농정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제·개정을 통해 식품산업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체험등 도농교류 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새만금 개발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임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와 쇠고기를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여 가축질병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R&D 투자 효율화, 수출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농림분야 R&D 예산을 전체 농림예산의 5%(’07년 현재 3.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고, BT·IT·NT등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농림 R&D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임장관은 이밖에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이 수세적으로만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농업외 분야의 명사들을 농업계의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구성, 농업·농촌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FTA서 농민이익 최대화

농림부는 농정의 정책 기조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농정 기조와 잘 연계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튼튼히 하겠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해외 농업자원 개발 등도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고 식품규격의 표준화 및 식품 품질인증제 정비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다. 또 정부·산업체·연구기관 등을 연결한 광역 식품클러스터를 조성,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 차별화를 위해 '맞춤형' 농정 기반을 구축하겠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농가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해 농지이용·축산현황 등의 경영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농업인 유형별로 꼭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도 확대하겠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및 축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구성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겠다. 농업·농촌의 현안을 풀어내고 농업 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농정철학

IV

인사청문회 | 2007. 8. 29

»»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모두 발언〉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농림부 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예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의 말씀에도 귀기울여 듣고 깊이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75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경제정책과 재정 운용, 과학기술, 공정거래, 정책 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재직 시에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와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국가 재정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119조 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차관으로 재직 시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범 준비 작업을 지휘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재직 시에는 새로이 출범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정착시키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R&D 투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농림 분야 R&D 추진 체계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무조정실장으

로 취임한 이후 장항산단 대안산업 마련, 목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민 합의 등 해묵은 갈등·과제들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조정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 구상을 확정하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행정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열정을 농정에 쏟아부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발전하는 데 있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하에서는 해외시장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너무나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되고 줄어드는 농업·농촌 인구와 정체된 소득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시각과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 및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농산물의 선택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고 농촌에 대한 관점도 문화·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농촌이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 휴양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농림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농림부장관후보자로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속의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 공직자들이 수시로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현안 과제와 애로를 농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 등을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타 부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명실상부한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등을 강화해 나가고, 주업농에 대해서는 농업소득 안정화라는 목표하에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충 등을 통한 소득·경영 안정,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 촉진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도 규모화의 이익과 기업적 경영기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인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령 제정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촌을 주거·휴양·산업이 조화된 복합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며, 농촌의 복지·교육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사1촌운동과 같은 도·농 교류운동을 확대하고 아울러 전원마을 조성 등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통해서 농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 향토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직원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 더욱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농림 공직자들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어진 과제와 역할을 완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주요 발언록〉

예산구조의 경직성에서 오는 재원 마련 부담에 대한 해결책

정부의 지향하는 농업 정책 방향에 맞춰서 소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경쟁력 효과가 큰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매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재원구조를 항상 바꿔 나가는, 또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농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진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고양운동 이런 쪽에도 재원이 배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9조원 대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목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또 최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 부채증가율도 둔화되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9조원 대책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방이 추진되었고 최근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 중 농업행정과 관련해서 한 일

다음달 10일이면 공직경력 만 32년이 됩니다.

말씀 올린 대로 82년에 농림예산을 사무관 시절에 담당을 했고 또 과장 시절에는 정책조정국에서 농업구조정책 등을 정책 차원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국에서는 유통 쪽을 해 봤고 또 그 후로는 예산국 시절, 예산처에서 다시 한 5년 동안 농업 문제를 봐 왔습니다만, 또 과학기술부에 있을 때는 농림 분야 R&D 추진 체계를 농진

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계속 한 네 가지 분야에서 농업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도 농림부 일부 간부들이 계십니다마는 오랫동안 농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의 농업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의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농민단체들이 저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농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를 모르셨기 때문에 초기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제는 저한테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진심으로 대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역량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업활동을 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농토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은퇴하고 고향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고향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직무와 소명

국가의 농업정책을, 농림부장관이라면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농촌 문제를, 현실을 명확히 진단해서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농림 R&D사업의 문제점

그동안 농림 R&D가 세계적인 추세가 생명산업, 생명과학 쪽으로 가는 것에 조금 뒤쳐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했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앞서 나갔어야 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당면한 한·미 FTA 등 수입 개방 확대 등으로 많은 농민과 농촌에서 염려를 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가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 도 그런 자세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산림환경과 농업기반

북한의 산림이 특히 황폐화되어 가지고 지금 홍수도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복구를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림만이 아니고 대체연료 확보 등 그런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경인가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 간의 농업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신 질책과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격려

에 힘입어 농림부장관에 임명되면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구하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 등 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농림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 | 2007.10.19 / 11. 2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인사말씀〉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평소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유난히 잦은 비로 인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쌀의 경우 전년보다 3.8% 감소한 450만t 수준의 생산이 예상되는 등 작황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태풍, 장마,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를 이겨 내고 국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 공직자들은 농업인들의 노고가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여건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 농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 EU,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U와 캐나다 역시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만큼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이러한 대외적인 개방 확대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농가인구 10명 중 4명이 60세를 넘어 이미 고령화된 인구구

조를 나타내고 있고 도농 간 소득격차 외에도 농가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의 9배에 달하는 소득격차 등 농촌 내부의 양극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온정적인 정서는 점차 퇴색되고 있고 가격과 품질만 좋다면 수입농산물이라도 구입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신토불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는 것만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농정 혁신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는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이라는 비전하에서 농정시스템의 체계화,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농업 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농 상생의 활력 있는 농촌 구현 등 5대 전략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개방이 닥쳐오더라도 품질로써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우리 농촌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쾌적하고 잘 가꾸어진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한·미 FTA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 보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의 규모화와 소득 및 경영 안정,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농촌을 다양한 산업과 휴양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보완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의 투융자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농정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농정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농가등록제를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금년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서 농업통계 개편 등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식품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식품산업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농림부가 식품산업의 육성 업무를 맡고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림부의 업무 영역을 식품산업 육성까지 확대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식품산업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 제조와 외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금년에 쌀과 원예 분야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 16개소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기 선정된 축산물 우수 브랜드 경영체 73개소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관리 제도들도 그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이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농림해양수산추진할 수 있도록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합·정비하는 등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에서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종합하여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향식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리모델링위원회를 통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조건 등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는 33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농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운용상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농업용 면세유 공급과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119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주고 고쳐야 할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농정 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기존 시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성심성의껏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10.19. 국정감사 질의 답변 주요 발언록〉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

지금 유가상승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 이상기 후, 인구증가 문제, 또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에는 세계 곡물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이런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문제가 21세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우량 농지 그리고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작목과 또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1500명 수준의 후계농업인을 선발해서 정착자금과 또 컨설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교육의 문제도 인식을 해서 10개의 농고를 특성화고교로 선정해 가지고 이

건 농림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특성화를 위해서 이달 말경에 교육부와 저희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되게 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일정 규모 이상 변경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 협의할 때도 농림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라든지 구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소외되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박등 시설재배 채소류의 재해보험

채소류에 대한 재해보험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조기에 보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8년과 2009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분야에 대한 투자

9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성을 올리고 또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마는 어느 정도 기반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 실정에서는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조금 생산기반 정비의 필요성은, 시급성은 조금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외개방 확대 등으로 해서 농업정책의 방향을 생산증대도 중요하지

만 농어촌 복지라든지 또 소득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원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정비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배수 개선이라든지 경지정리 이런 쪽의 방법을 바꿔서 생산기반정비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해 왔고 현재 많은 사업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공 위주로 해서 성과를 빨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한다면 이걸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위 종합개발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 제가 실무자로서 예산을 했던, 80년대 중반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종합개발사업 또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같은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 4단계 사업을 현재 수준인 200억 원 수준으로 투자한다면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가능하면 완공 위주로 하고 또 부분 완공이라도 해서 실효성 있게 투자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가축 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지 축산단지 등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을 금년보다 56% 증액된 66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액비유통센터 등 민간전문유통조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료값 인상

기준에 정해진 정책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학비료가격 보전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 7월에 화학비료 가격보조 폐지를 결정해서 실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이라든지 농민들의 반응, 문제점은 저희들이 농심을 살피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장기 대책과 투융자 계획

일단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고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지난 6월 28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축산 분야는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유통 차별화, 친환경 기반 구축 등을 정책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축산 분야에는 특별히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도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 기금 포함해서 26%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투융자 계획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직접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은 FTA 이행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대상을 축산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단위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해서 거기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이 문제는 농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빈집 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소유자의 철거 거부 등으로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 농림부가 빈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재원확보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농림부에 오셔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농정에 대한 관심, 안목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업·농촌도 어렵지만 저희 농림부가 처한 여건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또 격려를 든든한 뒷받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 공직자들이 기존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업무영역을 발굴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이라든지 농업과학기술 개발이라든지 남북 농업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또 기존의 사업도 내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농림예산의 규모도 늘어나가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올립니다마는 지도 농림부 공무원들이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한때는. 그렇지만 제가 한 달 20여 일 가까이 와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농림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구나, 농림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

4000명이고 양 청을 포함하면 7700명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11. 2. 국정감사 질의 답변 주요 발언록〉

한우 유통개선 문제

정부로서도 브랜드화, 원산지표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직거래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통마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거래를 확대해서 생산자단체가 소비지에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대도시 인근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양돈산업 대책

양돈농가의 염려가 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역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는 문제, 또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고 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값 인상에 대한 지원대책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이상급등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도 확대하고 또 할당관세율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사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고, 또 국내산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채보리라고 했던 청보리 생산 면적도 금년에 1만 5000ha에서 두 배로 늘리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고 다양한 국내외의 사료 확보 대책,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작년 말에 목표치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생산량과 소비량 동향, 앞으로의 국민 식생활 전망 등을 반영해서 전문기관 용역,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설정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있다면 또 중간에 보완할 수도 있고 또 5년에 한 번씩 보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최근 국제 식량 수급 동향을 주시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수입 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 직불제라는 것은 급격한 수입 증가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득 보장을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제도적 취지로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해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서 시행 기간은 짧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다든지 또 대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 받아서 국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액의 직불금을 받아가는 문제, 또 소득보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많은 소득이 있는 분이 직불제를 받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일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지원책 및 농촌사회 내부의 양극화 해소 계획

농림부장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하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기에 약속한 대로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많은 농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고 있구나, 자조·자립 의지를 가지고 또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쌓고 또 노력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혁신이다 이런 인식을 한 걸 봅니다. 또 그 책임을 정부에만 돌리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의지, 자조·자립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듣고 참 농림 공직자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림 공직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림부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지금 많이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을 고쳐서 이제 식품산업을 주 업무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농림 R&D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림 R&D를 농림부 내부에서나 양 청만 했다면 앞으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다가 농림 R&D 활성화방안을 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농업협력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관계기관이나 부처를 설득한다면 농업 분야의 투자도 늘려갈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 쪽의 양극화 문제는 역시 젊은 주업 농업인과 고령농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확실히 하고 특히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을 안심하고 영위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유지하는 문제

기본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 농림부가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과 취향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경험이 없는, 또는 애정이 부족한 청소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의 몇 가지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첨단기술농업, 고부가가치농업 그리고 문화관광농업, 환경웰빙농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호로 삼아 가지고 또 살기 좋은 농촌, 문화가 있는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 이런 방향으로 저희 농림공직자들이 현재 뜻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

금년 들어서 국제 곡물가격이 굉장히 오른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습니다. 금년 7월 OECD, FA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강세는 가뭄으로 인한 공급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향후 10년 정도는 과거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 물론 이 전망을 다 믿는 것은 아니고 또 안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의주시를 해서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은 기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급도가 낮지만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콩이나 조사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휴경농지 이용 등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 조사료 관련해서 재배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청보리의 경우는 전용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또 종자 구입비 지원 확대 그리고 종자 정선시설의 추가 설치 그리고 청보리 제

조·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언론에 보도된 갈비를 포함한 전면 수입계획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발설한 바가 없고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국 측과 전문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이 어떤 경위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 측과 수입 쇠고기에 관련된 위생조건 협상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국민 건강,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과학적 조사 결과 또 국제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로부터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주문과 압박은 현재까지 전혀 그런 간섭이나 압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오직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취약계층을 좀더 배려하는 정책전환

정부도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취약계층 문제 등을 감안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양극화 문제, 노령화 문제 등은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도 다각적인 대책을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대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농이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이라든지 또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 노후연금제, 물론 이것은 자산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마는 그 밖에 복지부나 노동부 등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찾는 그리고 소득원을 찾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이라든지 농촌관광 등에 노인들이 기여할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소액이나마 시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촌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따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림부에 주어진 업무범위가 농촌사회의 안정, 농촌을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농촌·농민의 복지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농촌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농촌의 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농림부로서는 나름대로 업무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총리 주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주여성 문제는 지금 이주 여성농업인이 한 2만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농림부가 처음으로 전국 30개 시·군에 방문 교육도우미 300명을 활용해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어 교육, 그리고 생활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더 내년 예산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앞으로 영농인으로, 여성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문제나 교육하는 문제는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통주 진흥

제가 농림부장관 취임해 가지고 열흘도 안돼서 전통주 관련 국제 세미나가 농진청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바가 있고요. 그동안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모여서 전통주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적 관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지원 체계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영세하고 주세 체계라든지 또 유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통주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조세 체계 개편 문제도 재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마무리 인사말씀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9회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농림공직자를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존 시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성심성의껏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5년간에 참여정부 농정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FTA·DDA 협상 등 개방확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양정제도, 농지제도 등 각종 제도를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여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나름의 성과와 결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 EU 등 농업 강대국과의 FTA로 대표되는 대외 개방확대와 농업인구 고령화 그리고 농업소득 정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농촌이 도시와 균형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정이 더욱 혁신하고 변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가 등록제를 통해서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교육·컨설팅 등으로 전문화된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소득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별도의 고령농생계지원과 복지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외식·식자재산업 등 식품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림 분야 R&D 활성화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새로운 농업성장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지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을 체계화해 나가면서도, 도시민의 휴양과 정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농촌 활력 증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과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세심한 교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의 농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정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도 농림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국회 상임위 발언으로 보는 쌀에 대한 견해

〈2007.9.17. 269회 국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문제라든지 또 보전비율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일부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당하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다든지 또 의사나 변호사 등 별도의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직불금을 수령한다든지 또 대농들이 많이 직불금을 수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의 제정 취지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작동은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85% 보전비율이라든지 산식까지도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불제 도입의 취지라는 게 앞으로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또 수입 개방 확대, 특히 2015년에는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와 농민이 역할 분담을 해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직불금의 수준을 법에 의하면 200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직불금의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좀더 다른 방식을 선택하거나 또는 현행의 직불금 수준을 당분간 끌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7.9.20. 269회 국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값정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현실이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목표가격제도를 설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일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2015년에는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부와 농민이 역할 분담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을 보전해 주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장기적인 제도의 기본 골격을 흔들 수가 없다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7.11.16. 269회 국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식량자급목표치 법제화

지금 식량자급률을 법정화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죽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식량자급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정책, 쌀 산업 정책이라든지 사료정책, 농지정책 등 관련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외부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기상 여건이라든지 국제곡물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식량자급계획을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이번에 법률안에도 뭔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목표가에 대한 입장

쌀 목표가격 문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지난번 국정감사 또 상임위 정책질의,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현행 목표가격을 유지하고 또 적용기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취지를 깊이 저희들도 이해하고 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는 것은 또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내에서 목표가격 변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말씀을 깊이 새겨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정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과 또 위원님들께 발의해 주신 안과 병합을 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림부로서도 정부 내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농가의 어려움 또 농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농업·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또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농촌기본법 등 11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법안들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기갑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김낙성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신중식 의원님, 이방호 의원님과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한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깊이 유념하여 본 법안들이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문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구체화 문제, 또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경지정리 등으로 기준기간 농사를 짓지 못한 농지에 대한 예외적 인정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를 받들고, 또 저희들도 농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항은 법의 시행령 제정 등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1.29. 271회 국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입장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 그리고 농민에 대한 애정,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 또 목표가격제도의 근본취지는 2015년 쌀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법이 2005년에 통과돼서 불과 3년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도 최근의 농업의 현실이 어려운 점, 농민들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방 확대라는 문제는 2005년에도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흥

작, 그리고 최근의 비료값 상승, 사료비 상승 등의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결정된 것이고, 지난 3년 전의 입법취지, 그리고 2015년 완전개방이라는 현실에 입각해서 정부도 고심한 끝에 지난 12월 28일날 현행법에 의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오늘 의결하신다면 저희 농림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또 최근 분위기가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서 농민의 자조·자립 의사를 고양해 나가는 농정 방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 감귤 사태를 저도 현지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농민들 스스로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농민 의식 수준에 비춰서 볼 때 이게 농정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 제정 당시에 3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개정을 통해서 그 3년 단위를 5년을 더 늘려서 총 8년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정부로서만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으로서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회 상임위 발언으로 보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견해

〈2007.10.10. 269회 국회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역 중단이 아닌 수입 중단 필요

우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수입 중단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계신 직후에 어제 제가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 또 인터뷰 과정에서 주로 그 내용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참여 공식수행원으로 다녀온 소감과 농업계의 협력 전망을 묻는 과정 말미에 쇠고기 문제가 물론 언급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KBS에 말씀드린, 답변한 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갈비 정도는 어떠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는 지난 5월에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런 검역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 등뼈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등뼈 발견과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아주 신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작업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또 검역을 중단하고, 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선적까지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협의 자체를 또 미루기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 발언의 의도 여하간에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농민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불안감을, 또는 의구심을 끼쳐 드렸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국이 수출 검역을 하는 과정 또는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강력히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그리고 또 목표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 동향이라든지 국제기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우선을 두고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쇠고기 수입 문제와 FTA 비준과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재임시 역점을 둔 정책

V

1. 식품산업 육성 기반 확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제·개정 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로써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21C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면 식재료 공급을 맡고 있는 농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국제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12월 27일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근거법인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기반 조성 시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지원했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생활 문화를 장려했다. 우리의 고유 음식 식품화의 해외 전파와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가 공식품인증제 등 식품관련 인증제 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조정 등으로 다소 일정이 지연 되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 27일 공포하였다.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2007년 11월 30일을 기해 식품산업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기존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식품산업 담당을 기존 식품산업과 14명에서 식품진흥과를 신설하여 총 19명으로 확대하였다. 신정부에서 역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고, 식품본부를 신설하는 등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셋째,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식품통계 정립 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다.

국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08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성 지역 선정, 클러스터 사업 추진단을 구성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 기업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로 07년12월 전북도를 국가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중기재정계획('08~'14)에 총사업비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08년 40억원)하는 등 식품 R&D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식품도소매업체의 국내농산물 이용실태, 생산액, 매출액 등 식품산업분야 기초 실태 조사 및 분석('07.5~12월)이 이뤄졌다.

넷째,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농·식품 연계강화,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로 구분하여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08.1.25).

〈 15대 정책과제 〉

①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②외식산업 육성 ③식재료 가공·공급 활성화 ④식품 R&D 강화 ⑤인력 양성 ⑥한식 세계화 ⑦지역 특산식품클러스터 조성 ⑧전통식품 산업화 ⑨전통 술 산업 육성 ⑩식품산업과 농업 연계강화 ⑪식생활·식문화 교육확산 ⑫식품통계·정보체계 구축 ⑬식품인증제 활성화 ⑭행정체계 정비 ⑮제도·규제개선

또한 2008년 1월 25일 국내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T/F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대책반 협의·공청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발전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등 농촌활력이 제고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농업 및 식품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한식 세계화도 앞당겨 질 것이다.

〈식품산업 육성 기반 확보에 대한 의지〉

임상규장관은 2007년 8월 29일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식품산업 육성 기반 확보에 대해 언급했다.

“농식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령 제정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10.10)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식품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식품산업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농림부가 식품산업의 육성 업무를 맡고 보건복지부가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림부의 업무 영역을 식품산업 육성까지 확대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식품산업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 제조와 외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2일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농림부 업무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림부 업무 영역이 이제 식품산업까지 포괄해서 넓어진 데 대해서 농업계에서도 아주 기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논란을 거쳐서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일단 현재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꾼 연후에, 그것은 또 정부 조직법을 손 대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식품산업의 육성 업무를 확실하게 농림부 업무로 정착을 시키고 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9월 10일 농촌진흥청 초도 방문에서는 “농업경쟁력은 생산성, 고품질, 고부가가치에 의해 좌우된다. 전통주 등 우리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기 바라며, 특히 한식(韓食)의 개량, 표준화, 세계화에 농진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실국 업무보고와 1급회의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절차 진행,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 확보 등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니 여수 국제 EXPO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감각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쓸 것과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해외공관 활동 계획 등을 종합 홍보할 것과 한식 세계화 차원에서 해외 공관에 근무할 요리사를 사전에 교육시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치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김치 페스티벌’ 또는 ‘김치축제’ 개최방안을 검토, 식품관련 포럼 구성을 지시하였다.

2. 농림 R&D 활성화 및 효율화 추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림 R&D의 효율화·체계화·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FTA·DDA 등 개방가속화에 대응하여 농림R&D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농림분야 R&D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관련기관 협의체 구축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2007년 11월 29일 대전에서 과기부 산하 14개 출연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림분야 R&D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R&D 역점 추진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농림R&D 예산을 농림전체 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BT·IT·NT 등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수용능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농림부의 새로운 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식품분야 R&D 투자를 확대했다.

둘째, 민간의 참여와 연구 외연을 확대하였다. 민간에서 참여 할 수 있는 R&D 사업 비중을 2006년 21%에서 2012년 4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생화학, 미생물, 의약학 등 농업 연관분야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농림R&D 기관의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조사·분석·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연구 전담인력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셋째, 연구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농림R&D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외부진단을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육성한다. 또한 농정방향과 농림R&D 사업방향에 대한 조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림 R&D 활성화 및 효율화에 대한 의지〉

임상규 장관은 2007년 8월 29일 장관인사청문회에서 크게 4가지 사항을 피력했다.

“82년에 농림예산을 사무관 시절에 담당했고 또 과장 시절에는 정책조정국에서 농업 구조정책 등을 정책 차원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국에서는 유통 쪽을 해 봤고 또 그 후로는 예산국 시절, 예산처에서 다시 한 5년 동안 농업 문제를 봐 왔습니다. 또 과학기술부에 있을 때는 농림 분야 R&D 추진 체계를 농진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계속 네 가지 분야에서 농업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업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으로 본 것이 사실이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관계 부처나 유관 기관 간에 협조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농촌의 농업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 경쟁력의 대안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계 각국도 규모화 쪽으로 갑니다마는 거기에 새로운 작물의 개발과, R&D 투자 그리고 경영혁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영 효율화가 됩니다. 또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아마 범지구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후변화협약의 범부처적인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고온 적응품종 개발이라든지 재배기술 변경 또 효율적인 작부체계 개선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의 주축인 바이오 쪽에서 농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고, 제가 과학기술부 혁신본부장을 할 때 R&D 체제는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제 구체적인 R&D 과제를 선정하고 일부에서는 또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과 조직을 정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2일 국정감사에서는 감귤의 R&D 연구와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연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다.

“감귤의 R&D 연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난지농업연구소 내의 감귤과를 감귤시험장으로 확대 개편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4명이 증원되었고 2008년 협의 과정에서 요구 수준대로 미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가상승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서 농림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저희 농림부와 양 청에서 금년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3개 기관 합해서 약 140억원 정도 금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 9월 10일 농촌진흥청 초도 방문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미래 종자전쟁에 대비해 유전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농업유전자원센터의 발전계획을 잘 수립하고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탐 프로젝트 추진 관련하여 “탐라이스, 탐프루트 프로젝트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임상규 장관은 또한 농림분야 R&D 추진 강화방안으로 “농림분야 R&D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ARPC, 농진청, 산림청,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생명공학 연구소 등)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축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대덕단지 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을 농림R&D 지원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농촌 현장의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농림부 홈페이지, 농경연 등)를 두고 전담 연구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3. 2008년도 농림예산 확보

“2008년도 총지출은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신규 투자소요를 반영하여 2007년 대비 2.5% 증액된 12조 4,242억원 확보, 한·미 FTA에 발효에 대비해 2008년 부터 10년 동안 20조 4천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2008년 재정지원 방향〉

첫째,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하였다.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조정(80→85%)하는 등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보강하였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농지·연령·지급기간을 확대하여 고령농의 경영이양의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첨단기술 R&D투자 확대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역점을 두었다.

둘째, 개방 환경에 맞도록 부문간 재원배분 비중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의 실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투융자계획('04~'13)」을 재조정하였다(119조→123조). FTA 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차질 없이 반영하는 한편, 기존 투융자사업 중 타당성이 낮거나 투자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병행함으로써 동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화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개방환경에서도 우리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체질강화(농업인력 양성, 유통개선 등) 및 농촌개발·복지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농가소득보전 및 생산기반 조성부문은 쌀 공급과잉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였다.

셋째, 농어촌 개발사업의 체계화와 복지기반 확충에도 관심을 쏟았다. 중복·분산된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3,132억원)으로, 지역특화사업과 신활력지원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3,474억원)으로 통합 하는 등 농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지원 대폭 확대(372→657ha),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등급 인상(14→16등급), 재해공제 보장수준 상향조정(3,500→4,500만원) 등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도 대폭 확충했다.

〈2008년도 농림예산 확보와 FTA 보완대책에 대한 의지〉

2007년 8월 29일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임상규 장관은 농가부채, 119조원 대책 성과, 농림부의 과제 등을 내놓았다.

“농가부채는 우리 농촌의 정말 오래된 문제이고 과거에 부채 탕감대책이나 유예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19조원 대책의 결과로 최근 부채 증가추세가 다소 완화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도 호당 농가부채가 2800만원 정도 되고 농가로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가부채의 큰 원인이 재해라든지 가격 불안 등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강구하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농업 정책 방향에 맞춰서 소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경쟁력 효과가 큰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매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재원구조를 항상 바꿔 나가는, 또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농업·농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고양운동 등에도 재원이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9조원 대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목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또 최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 부채증가율도 둔화되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9조원 대책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방이 추진되었고 최근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또 경쟁력 강화대책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쇠고기 수입 문제 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정책 방향이 과거의 농업생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농정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분야의 재정지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농림부가 담당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 2007년 10월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 FTA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 보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의 규모화와 소득 및 경영 안정,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편하고 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농촌을 다양한 산업과 휴양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책보완이라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59개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2011년까지는 140개소로 늘릴 계획이고 또 보조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 예산을 금년에 424억에서 내년에는 664억으로 대폭 늘리도록 예산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서 1078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최근의 유가 급등 추세 등을 감안해서 관련 보온시설을 개발·보급하고, 또 고효율 난방시설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또 대체 난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 추이 등을 분석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남북농업협력 진전 - 남북정상회담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13인 공식수행원 중 일원으로 참여했다.”

방북기간 중 임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식물원에 소나무 1그루 기념식수를 했다. 기념식수에는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가져온 흙과 물이 사용되었다. 임 장관은 남북한 흙과 물이 합해지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남북 농업협력은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농업낙후성을 감안해 「지원·교류·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남북 상호 이익의 경협사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농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로 전환시켜 남북 농업의 보완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남북 정상은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 있다. 농업분야 협력이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10.4 공동선언이 농업분야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당국간 남북농업협력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의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고 남북 양측에 실무협력단을 구성하여 농업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본격적인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식량·비료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셋째,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의 기후특성, 풍부한 노동력 및 지하자원 등 장점을 활용한 농업분야 경협사업을 발굴한다.

넷째, 남한의 잠업, 양돈, 농자재 산업체의 새로운 시장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남북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이 열리고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착수와 산림녹화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어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07.12.4~6, 서울)가 열렸고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개최(2007.12.14~15, 개성)를 합의했다.

아울러, 농업협력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2007.12.21~25) 추진에 합의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교류, 산림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계속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2007.12.14~15, 개성)에서 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 종자 정선, 유전자원 저장 시설 규모 협의 및 전문가 기술협의,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접촉, 과수·잠업·축산·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등에 합의한 것이다.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은 농업과학기술교류를 위한 전문가 협의를 시작으로 남측 농업과학기술을 전수하여 북한의 식량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남북 동식물 검역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추진하여 농산물교역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형성에도 기여한다.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의 주요 원인은 북한의 체제 및 제도에 있다고 판단해 시범협동농장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생산 및 체제의 기본인 협동농장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인적교류를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북한 내 확산을 촉진한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남한 내 농업계에도 이익이 되는 투자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당국간 및 농업분야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여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경협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남북농업분야에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남북의 입장차이를 조정할 것이다. 식량지원(단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산림복구(중장기) 지원사업은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으로 추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기업의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의지〉

임상규 장관은 2007년 8월 29일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산림이 특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산림 복구를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림만이 아니고 대체연료 확보 등 그런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경인가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 간의 농업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2007.11.2)에서는 “남북농업협력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관계기관이나 부처를 설득한다면 농업 분야의 투자도 늘려갈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한식세계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전통주 육성 등 농식품 산업육성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조리법 표준화

한국전통음식연구회는 한국조리법 표준화를 위해 “한국음식 100선 선정 및 표준 조리법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국음식 100선을 선정하고 표준조리법을 연구·개발해 그 결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식과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식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2007년 12월 3일 aT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한국음식 조리법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경과보고,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책자 소개(한글·영어판) 및 배부, 아름다운 한국음식 동영상물 소개, 한국음식 전시(50여점), 대표음식 시식, 민속공연 및 리셉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상규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음식문화는 한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상품이다. 우리 음식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고 조리법을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일 등 기본적인 작업부터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황민영 농특위위원장, 윤장배 aT사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동수 한국식품연구원장을 비롯한 국내인사 150여명과 주한 외국대사 8명(페루, 필리핀, 이집트, 도미니카,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수단, 에쿠아도르), 외교관, 주한 외국문화원, 대사부인 등 외국인사 32명이 참여했다.

한국음식의 조리법 표준화를 통해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 및 한식 및 식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최초로 과학적인 한식 표준조리법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하여 대표음식 전시·시식 행사 추진으로 한식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다.

전통주 주세인하

대기업 제조 주류 및 수입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주 등 전통식품 산업과 농촌관광 등을 연계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통주 주세를 50% 인하한다는 '주세법 제22조 제3항'을 신설토록 했다. 주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으로 전통주 주세인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전통주산업 활성화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제고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출 증장기 대책 마련

한국음식 세계화 사업은 DDA·FTA 협상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위기를 수출산업 육성으로 신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농식품이 2·3차 산업 또는 소프트 요소와 결합하여 세계 일류 상품화로 국제 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농업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첫째, 2025년까지 1천만불 이상, 세계 일류 30대 수출상품을 육성한다. 각 단계별 품질기준을 마련해 신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비관세의 장벽을 해소한다.

둘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농식품 수출경영체 전문화·조직화, 수출물류지원 시스템 개선 및 수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 혁신을 이룬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대형 유통점 판촉사업을 개선한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한식을 세계화한다.

그 결과 농식품 수출사상 최초로 구체적 로드맵이 설정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을 마련했다.

영화 '식객' 홍보

임상규장관이 영화 '식객' 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리농산물과 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농림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24일 영화 '식객' 시사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주연배우인 이하나씨를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등 농림부 직원, 농림관련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직원 등 8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영화 '식객'의 주연배우 인사, 홍보대사 위촉식, 영화 시사회, 전통식품 시식 등이 진행되었다.

영화 '식객' 시사회 및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 선정을 계기로, 주요 오피니언 리더 및 핵심고객에게 영화 관람권을 제공하여 우리 농산물과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영화 식객의 흥행성공(최종관객 301만명)으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농림부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식객 시사회 및 농림부

장관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내용이 종합일간지 및 인터넷 뉴스 14개 매체에 보도되면서 높은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6.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

“2007년 정기국회(11.22)에서 농림부 소관 16개 법안이 의결되도록 하여 향후 농정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개방 확대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주요법률이 제·개정 되도록 힘썼다.

첫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전부개정 2007.12.21)개정이다.

「농업·농촌기본법」법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였다.

식량자급목표(5년 단위)를 설정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2007.12.21)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7.12.21)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등 도농교류 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넷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7.12.27)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 새만금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다섯째, 「농어촌정비법」 개정(2008.2.26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 소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통합했다.

7. 농업계 우군확보를 위한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구성

“농업 외 분야 명사들을 농업계의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구성, 제1차 협의회를 2008.1.23일 개최하였다. 혁신협의회는 농업계 뿐 아니라 산업·경제인, 학계, 예술계를 망라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있다.”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는 농업·식품산업·농촌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하고자 구성되었다. 또한 농업·식품산업·농촌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관련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1월 9일 마침내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가 발족했다. 농업인 단체, 농산업 CEO, 농업관련 학계 및 연구소 등 농업계 관계자, 일반 경제·산업계 인사, 농업계 이외의 학계 및 연구계 관계자와 언론·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농업 농촌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다. 위원장은 농림부장관, 위원은 정부(1), 농업계(8), 경제·산업계(8), 학계 및 연구계(7), 언론·문화계(9) 등 33명이다. 간사는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이 담당하게 됐다.

제1차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는 2008년 1월 23일에 열렸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보고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는 농업·식품·농촌정책의 대국민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농업 외 분야 명사들을 농업계의 우군으로 확보하여 농업·농촌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 농촌정책 혁신협의회 장관님 말씀〉

지난 1월 23일에 열린 농업 농촌정책 혁신협의회에서 임상규 장관은 다음과 같은 인

사말을 전했다.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특히 이제 농업계가 작년에 비교적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식품산업을 농림부가 전적으로 식품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어촌과 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도농교류촉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 활력사업과 오지개발촉진 사업이 행자부로부터 농림부로 이관돼서 농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이 갖추어졌습니다. 또 숙원사업이던 전통주 주세 50% 인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R&D 분야도 그동안 농업계 내부에서만 하던 것을 대덕을 포함한 전 과학기술계가 함 께 앞으로 농림 R&D를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등 상당 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지난해 11월에 한꺼번에 16개 숙원이 돼왔던 오랜 논의가 있었던 법들이, 방금 말씀드린 법 포함 16개가 통과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농업·농촌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규 모가 작고, 또 노령화가 진전이 되고, 농촌사회가 공동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또 개방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또 정부로서는 비교적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새 정부하고 참여 정부하고의 가장 이점이 적은 분야가 이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업정책의 방향도 잘 가는 것 같고, 또 농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어떤 의지, 자활, 자립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정부의 유 기적인 협조체제, 또는 기반조성,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개방의 파고가 있더라도 해 내 갈 수 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성공한 농업인들이 많이 와 계시고, 이런 것들이 농업분야 에도, 또 식품분야에도 성공사례가 계속 확대됨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정부(1)	정학수(54)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농업계(8)	박익규(5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 장	
	정운천(54)	한국농업CEO연합회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회 장	
	남호경(59)	전국한우협회	회 장	
	배영호(49)	배상면주가	대표이사	
	최정섭(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김동수(55)	한국식품연구원	원 장	
	윤숙재(60)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 장	여
	이돈구(61)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 수	
경제·산업계(8)	신중목(57)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 장	
	고인식(63)	한국음식업중앙회	회 장	
	윤홍근(53)	제너시스 그룹	회 장	
	이창근(56)	CJ 푸드시스템	대표이사	
	박인구(62)	동원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경상(59)	E-마트	대표이사	
	김희정(61)	경원 엔터프라이즈	회 장	여
	윤종용(64)	삼성전자	부회장	
학계 및 연구계(7)	최병선(60)	국토연구원	원 장	
	이상기(5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 장	
	하성규(61)	중앙대 산업과학대	교 수	
	임현진(59)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 장	
	현정택(59)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장순홍(54)	KAIST	부총장	
	장만채(50)	순천대학교	총 장	
	류춘수(62)	건축사무소 이공	대 표	
언론·문화계(9)	황선구(46)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 수	
	황지우(56)	한국예술종합학교	총 장	
	이계민(62)	한국경제신문	주 필	
	이성림(6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 장	여
	김년균(66)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박형식(55)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 장	
	전윤수(37)	영화 감독	영화감독	
	박정수(55)	연예인농촌돕기운동본부	이 사	여

8. 농림부 조직문화 개선

“농림부 조직문화 개선,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사기 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호프데이 개최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대화를 활성화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해 9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호프데이’에 농림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포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수 직원을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직원들의 숨은 장기를 자랑하는 시간과 참석자에 대한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간부와 직원 간에 자유롭게 편안한 대화로 상호간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미루었던 실·국 및 과별 단위의 단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린하트 운동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등 농촌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 농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농촌지역의 불우한 이웃에게 농림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그린하트 운동을 추진하였다.

농림부 본부에 근무하는 농림공직자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5천원/구좌)을 모금하여 ‘농림가족 희망나눔 기금’을 마련했다. 2008년 2월 25일 현재 모집 회원은 총 285명(on-line : 29명, off-line : 256명)으로, 584구좌 총 모금액은 1,084만원(2월분까지 누적모금액 및 기부금 포함)이 되었다.

이 기금은 농민단체의 추천으로 후원마을(전국 9개 마을)을 선정해 1년간 매월 20만원씩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농림부 직원들은 2007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기안마을을 찾아가 '농림가족 희망나눔 캠페인' (Green Heart)의 취지를 소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마을단위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에 격려하고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오찬을 나누었다.

2008년 1월에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동촌마을을 찾아가 독거노인에게 장수사진 촬영행사를 열었다. 부내 사진예술연구회 회원들이 동촌마을 회관에 이동 스튜디오를 설치해 장수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액자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이 같은 사업은 독거노인 등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범 봉사활동 우수마을을 매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돌봄을 솔루션법하는 '그린하트 캠페인'을 통해 농림부와 농림공직자의 대국민 이미지의 제고를 기대한다. 농림공직자와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농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농촌 봉사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농림공직자 업무매뉴얼' 발간

2007년 12월 5일 임상규 장관은 1급회의를 통해 농림부 주요업무 매뉴얼 작성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제부처로



서 그동안 축적해온 업무 노하우를 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자 이를 '매뉴얼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조직 개편 후, 신규로 전입하게 될 직원들이 농정 업무를 쉽고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난 2월 4일 발간된 「농림공직자 업무매뉴얼」은 보고서 작성을 비롯하여 의전, 민원처리, 예산 및 법제업무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분야의 업무 노하우를 담고 있다. 특히 농림부 내의 각 분야별 베테랑 직원들이 직접 관련 내용을 집필하여 현장 감각을 높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성공사례를 언급했다. 농수산식품부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농림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암묵적 지식의 공유’를 표방한 이번 매뉴얼 발간은 정부 부처로서는 획기적인 시도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농림공직자 업무매뉴얼’은 농수산식품부로 조직과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신규로 전입하게 될 직원들이 농정 업무를 쉽고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림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

2007년 8월 29일,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임상규 장관은 조직문화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농림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직원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 더욱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배치를 해야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업무 성과를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닌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모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게 또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맡게 되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대폭적인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을 것이고 현재의 우리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도록 인사관리와, 조직의 화합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앞으로도 저희 농림 공직자들이 기존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업무영역을 발굴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이라든지 농업과학기술 개발이라든지 남북 농업협력 등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사업도 내실화해서 농림예산의 규모도 늘려나가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올립니다만 저도 한 때는 농림부 공무원들이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달 20여 일 가까이 와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농림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농림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 4000명이고 양 청을 포함하면 7700명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피력했다.

실국 업무보고와 1급회의를 통해 수시로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농업·농촌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농정 학습 동아리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과 “농림 공직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주체적인 자세로 임할 것”,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등을 지시했다.

또한 “직원 교육 차원에서 신입 직원 멘토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과” 농촌 소년 소녀가장 및 조손가정 지원방안으로 “농업인과 농촌에 다가가는 농림부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자매결연 추진”을 지시했다.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현장농정 기록

VI

주요 행사, 현장 방문

주요 행사

»» 한여농 전국대회 개회식 (2007.9.4)

□ 행사 개요

• 목적

- 농업·농촌의 생명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갖고, 미래의 희망과 활력을 창조하는 주역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

• 일시 및 장소 : 2007.9.4(화) /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

• 행사 내용

- 개회식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면담

- 정부 포상 수여 및 격려사

* 정부포상 : 산업포장(1), 대통령 표창(2), 국무총리 표창(2), 농림부장관 표창(10)

* 격려사 :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는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 주제 : 밝은 미래 농업 아름다운 생명농촌,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 국회의원 : 권오을의원, 이시중의원, 홍문표의원, 강기갑의원

• 김두관 (前)행자부 장관, 황민영 농특위원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 농민단체장 : 박의규 한농연회장, 우정규 한여농회장, 강춘성 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엄성호 쌀전업농중앙회장,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 등

• 여성농업인 등 3000여명

□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써 장관의 농정철학과 비전을 전달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한국농업인신문 2007년 9월 10일

“뜨거운 열정으로 농업 위기 극복을”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가 지난 4~5일까지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8000여명의 회원 및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했다. ‘밝은 미래 농업 아름다운 생명농촌,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여성농업인 비전선포와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한여농은 출범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한여농의 힘찬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4회 전국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여성농업인들이 참여율이 높아 대회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대회를 참관하던 한 남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들의 행사였으면 벌써 모두 숙소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한여농 회원들의 열의를 높이 평가하기도. 또한 한여농 회원들은 단체 참여마당 행사 후 어지럽혀진 행사장 주변청소까지 맡김히 해 행사에 참석한 농업관계관 담당자들로부터 ‘역시 여성농업인’ 이란 찬사를 받기도.

주요 행사

»» 서울국제건강식품 박람회 개막식 (2007.9.6)

□ 행사 개요

• 목적

- 국산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 및 건전한 식소비문화 인식 제고를 통해 농식품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일시 및 장소 : 2007.9.6(목) 10:30 / aT센터 제1전시관

※ 박람회 기간 : 2007.9.6~9.9(4일간)

• 행사 내용

- 농림부 장관 축사, 테이프 커팅 및 전시장 관람

*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축사

- 행사장은 테마별 전시관(자연과 사람, 건강과 생활 등)으로 구성

-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세미나 및 이벤트 행사 개최 등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서승진 산림청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장,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장, 박의규 한농연회장, 서규용 농어민신문사장 등 100여명

□ 행사 결과

-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계기
- 다양한 우수 농식품으로 현장 시음·시식 적극 운영함으로써 방문객 관심도 제고와 호응 유도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한국농어민신문 2007년 9월 10일

국산 건강 농·식품 한자리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7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에는 햇사과를 비롯한 한과 굴비 민속주 인삼 장류 등 다양한 건강 농·식품이 선보였다. 왼쪽부터 김경진 농협 경제대표, 권오을 국회 농해수 위원장, 임상규 농림부 장관, 박익규 한농연 회장, 김인식 농진청장, 서규용 본사사장.

주요 행사

»» 전통주 한·일 심포지엄 및 시음회 (2007.9.10)

□ 행사 개요

- 목적
 - 우수 전통주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생산자 의욕 고취
 - 전통주 품평회 개최로 “양조식품연구센터” 인지도 제고
 - 농업·농촌의 문화상품으로서 육성·발전 및 소득 향상
- 일시 및 장소 : 2007.9.10(월) 10:00~10:30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대강당
- 주요 행사 내용
 - 축사 및 전통주 시음회 참석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고바야시 전 일본주류종합연구소장, 조재선 전통주진흥협회장 등
- 학계, 업계, 언론계, 관련단체 등 150여명

□ 행사 결과

- 전통주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생산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
- 언론매체를 통한 전통주 홍보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내일신문 2007년 9월 10일

농진청, 전통주 심포지엄 개최

농촌진흥청이 10일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수원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한·일 전통주 심포지엄과 시음회' 를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고바야시 신야 전 일본 주류총합연구소 소장이 '일본 전통주의 복원과 현대화 시사점' 이란 주제로 일본의 전통주 현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에서는 조재선 한국전통주진흥협회장이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농촌사회 발전' 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농진청 김태영 박사와 술 품평자인 허시명씨가 각각 '전통주 산업의 품질 대화를 위한 제언' 과 '한국 소주의 어제와 오늘' 을 제시한다.

이어 열리는 시음회에서는 전국 26개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출품한 45종의 전통주와 농진청이 자체 개발한 11종의 전통주 시제품을 맛보고 품질을 평가한다.

주요 행사

»»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개관식 (2007.9.12)

□ 행사 개요

- 목적 :
 - 국내외 축산 기자재의 비교 전시로 상호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축산발전에 기여
 -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 증진
- 일시 및 장소 : 2007.9.12(수) 11:00 / KOTRA 대전무역전시관
 - ※ 박람회 기간 : 2007.9.12~9.14(3일간)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축사, 테이프 커팅 및 전시장 관람
 - *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축사
 - 전시행사 : 축산기자재 · 장비 · 시설, 사료, 동물약품, 생명공학 제품, 가축자원화 처리시설, 종축 · 가공 축산식품 등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서승진 산림청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장,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장, 박의규 한농연회장, 서규용 농어민신문사장 등 100 여명

□ 행사 결과

- 축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 전달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뉴스 2007년 9월 12일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12일 오전 KOTRA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임상규 농림부장관(오른쪽서 두번째) 및 참석 인사들이 한우 조형물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축산박람회는 221개 업체가 참여해 14일까지 개최되며, 무역전시관을 비롯, 갑천 등에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라이브뉴스 2007년 9월 12일

12-14 대전무역전시관서, 221개 업체 참가역대 최대 행사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12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임상규 농림장관과 권오을 농해수위원장, 홍문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날 남호경 박람회대회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의 다짐을 국내 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축산업이 개방화를 맞아 큰 변화와 함께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 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쌓아 간다면 축산업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

» 제2기 신활력사업 출범식 (2007.9.13)

□ 행사 개요

• 목적

- 제2기 신활력사업의 중앙단위 주관기관(농림부·균형위)과 일선 지자체간에 제2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 공유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선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부각
- 새로운 파트너의 참여 등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체계 시범 가동
 -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협력단의 체계 정비 등 신활력사업 이후의 전체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 확립

• 일시 및 장소 : 2007.9.13(금) / 충남도 청양군

• 주최 : 농림부·균형위

• 행사 내용

- 2006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
- 신활력사업 취지에 대한 특강(균형위원장)
- 신활력사업 추진경과 및 제2기 추진방향 보고(농촌정책국장)
- 청양 고추 및 산청 친환경 한방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례 보고
 - ※ 출범식 후 청양군 대치면 수곡리 소재 동화농장(무농약 고추재배) 방문

□ 참석자 : 400여명

- 농림부장관, 균형위원장, 충남정무부지사
- 신활력시군 단체장(단체장 22, 부단체장 33명)
- 신활력지자체 공무원 210, 자문위원 70, 지역주민 70여명 등

〈주요행사 사진〉



주요 행사

»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 (2007.9.17)

□ 행사 개요

• 목적

–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향 모색 및 성과 홍보, 지역혁신의 성공적 모델 발굴, 확산

• 일시 및 장소 : 2007.9.17(월) 10:40 / 서울 삼성동 COEX

※ 박람회 기간 : 2007.9.17~18(2일간)

• 행사 내용

○ 개막 행사

– 국가균형발전 주요정책 현황보고, 균형발전 및 지역유공자 훈·포장 수여

○ 성공사례 발표회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성공사례 발표

○ 국제컨퍼런스

–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의 국제화, 세계 지역혁신 우수사례

○ 지역혁신 세미나 개최

–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농촌사회과 주관)

– 식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식품클러스터의 역할과 비전(식품산업과 주관)

□ 참석자

- 정부관계자 : 대통령, 농림부장관, 균형위원장, 교육·행자·산자부장관,
 건교·복지·기획예산처 차관, 농특위원장, 농진청·중기청장
-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유관기관 단체장
- 대학총장 및 학장(고대, 울산대, 국방대, 충북대 등) 등 1,000명

□ 행사 결과

-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등에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활성 도모

»» 전원생활 엑스포 개막식 (2007.10.18)

□ 행사 개요

• 목적

-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 설명회, 정부 정책·전원마을 소개, 전원생활 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귀촌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

• 일시 및 장소 : 2007.10.18(목) 11:00 /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지

※ 엑스포 기간 : 2007.10.18~10.21(4일간)

• 행사 내용

- 개막축하공연 : 타악공연팀 드럼켓
- 테이프 커팅 : 농림부장관, 단체장 등 주요 초청인사 25명
- 기념사진 촬영 : 특설전시장 입구 개막식 아치 앞
- 전시장 관람

• 주최 : 농림부, 농어업특위, 한국농촌공사

• 후원 : 균형위, 행사부, 보건복지부, 해수부, 농진청, 안산시, 마사회, 대한은퇴자협회, KBS 한국방송

• 슬로건 : Bravo! Green Life/전원에서 여유와 행복을!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숙 전원마을 홍보대사, 박주원 안산시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등 300여명

□ 행사 결과

- 전국의 전원마을 소개, 전원생활 준비요령 및 정부지원 안내, 전원주택 전시 등 전시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붐 조성
- 행사 관람객 : 14,275명(계획 10,000명 대비 143%)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조선일보 2007년 10월 15일

전원생활 무엇이 궁금합니까?

2007 전원생활 엑스포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 사동 농어촌연구원에서 개최된다.

한국농촌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 17개 시·군이 참가해 귀농 정착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거주여건을 소개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전원마을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입주 상담도 한다.

농어촌연구원에는 현재 개량한옥, 목조주택, 황토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원주택 10채가 전시용으로 지어져 있는 상태다.

참가비 1만원을 내고 '전원마을체험단' 신청을 하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중 하루를 택해 전북 진안, 남원과 전남 담양에 조성중인 전원마을 사업지구 중 한 군데를 둘러볼 수 있다.

전원마을 체험은 선착순 480명 모집. 엑스포기간엔 황토벽돌 시공, 구들 쌓기, 산야초 효소 만들기, 천연염색 등 전원주택 건축 및 전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첫날엔 전원마을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창숙씨의 팬사인회가 열리며, 매일 오후 1시부터 사물놀이와 민요마당공연이, 18~20일에는 오후 4시 20분부터 현악4중주, 금관5중주 등의 전원음악회가 개최된다.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야생화와 철새를 볼 수 있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이 있어 가족 단위의 하루여행코스로 손색이 없다.



주요 행사

»» 농업CEO 아카데미 교육 (2007.10.23)

□ 행사 개요

• 목적

- 농림부장관을 포함한 농림부 간부들이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험하고 농업교육 발전방안 제시
- 선도 농업인과 현장 대화를 통한 한국농업의 미래 발전방안 강구

• 일시 및 장소 : 2007.10.23(화) 13:50~15:30 / 현대종합연수원(용인)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인사말
- 농업CEO회원 해외연수결과 발표 청취
- 질의 및 응답

□ 참석자

- 농림부장관, 농업CEO연합회장 등 회원

□ 행사 결과

- 농업CEO회원 격려 및 농업교육 발전방안 모색
- 농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농림부 주관으로 최고경영자 연찬회 추진 지시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농림부
www.maff.go.kr

[대한 산림지보](#) |
 [농경뉴스](#) |
 [멀티미디어 뉴스](#) |
 [농경소식지](#) |
 [국경영농포럼](#)

농경뉴스

- ▷ 새소식
- ▷ 농협
- ▷ 농촌
- ▷ 서당
- ▷ 옥산
- ▷ 국제
- ▷ 귀농·귀촌
- ▷ 기타
- ▷ 연세/동행
- ▷ 거고/집결

새소식

임상규 농림부장관, 농업인교육에 함께 참여

농림부 국장급이상 농업인교육과정에 함께 참여

농림부 장관인 임상규 부장은 11월 23일 한국농업CEO연맹에서 주관하는 '농업CEO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에 '국장'으로 참석했다.

○ 이날 자리에서 임 장관은 농업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을 격려했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또 임 장관은 이날 진행된 한국CEO연맹회장의 환영연설에서 CEO 30여명과 함께 농민들의 행복과 선진적 양파 생산, 내수산업의 고부가가치 농업 파우더가 파우더에 함께 참여한다.

한편, 임 장관은 지난 10월 농림부 국장을 지냈던 김학규 부장은 이미 11월부터 다양한 농업인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농수산부차관직에 임직을 수월한면허과정(14승행)을 통해 임직한다. 경기도 삼척출생인 임 장관은 농·임업농업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처 | 농경부 기획팀 사무관 302-958-1620

홍사관 3027-18-23-8804-020

농경뉴스

1월이 본 뉴스

- [농경뉴스] 한덕 760 -
- [농경뉴스] 농부 100 -
- [농경뉴스] 농부 100 -
- [농경뉴스] 계획 100 -
- [농경뉴스] 농경 100 -

1월이 본 뉴스

- [농경뉴스] 한덕 760 -
- [농경뉴스] 한덕 760 -
- [농경뉴스] 한덕 760 -
- [농경뉴스] 한덕 760 -
- [농경뉴스] 한덕 760 -

주요 행사

»» 영화 ‘식객’ 시사회 및 농식품소비촉진 홍보대사 위촉식 (2007.10.24)

□ 행사 개요

- 목적
 - 우리농산물·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농림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전달할 목적
- 일시 및 장소 : 2007.10.24(수) 18:10~20:30 전후 /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 행사 내용
 - 주연배우 인사, 홍보대사 위촉식(영화배우 이하나), 영화 시사회
 - 시사회 후 농림부장관, 주연배우 등과 만찬
 - 행사 시간 및 홍보 효과를 고려하여 전통식품 시식코너 마련

□ 참석자

- 장·차관 등 농림부 직원, 농림관련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직원 등 800여명

□ 행사 결과

-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및 식품산업 육성 의지 홍보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007년 11월 15일

‘식객’ 홍보 나선 농림부 흥행성공 ‘흐뭇’
임상규 장관 영화표 돌리며 적극 홍보

농림부가 영화 ‘식객’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영화 시사회를 여는가 하면 임상규 장관이 직접 영화표를 돌리며 식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식객’은 만화작가 허영만씨의 동명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단행본으로 발간된 뒤 54만부 이상의 판매부수를 기록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일일 조회수 40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영화는 천재요리사 ‘성찬’ 과 또 다른 요리사 ‘봉주’의 운명을 건 요리대결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특

히 우리 먹거리와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화려한 영상에 담아 관심을 끌고 있다.

‘식객’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농민의 마음도 달래고 있다는 평가다. 입소문을 탄 영화를 보러 온 가족단위 관람객으로 농촌극장가가 북새통이다. 농림부는 특히 내년부터 우리 식문화와 음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부 입장에서 ‘식객’은 더할 나위 없는 정책 홍보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식객’ 시사회가 농림부 주최로 열렸다. 과천청사에서 개봉 전 영화 감상영던 것은 ‘왕의 남자’ 이후 두번째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연말 부처 송년회로 ‘왕의 남자’ 시사회를 가졌다. 임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을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슴에 감동을 줘야 오래 기억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식객’을 극찬했다. 여주인공 이하나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농림부는 영화표 1200장을 단체구매했다. 농협 역시 1만장을 사들이며 힘을 보탤다. 15일에는 임 장관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식객’ 표를 돌리며 영화홍보에 나섰다.

이에 응답하듯 ‘식객’은 개봉 2주차에 140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 하반기 최고의 영화로 자리잡고 있다.

농림부서 영화 '식객' 시사회

영화·영화 인기 업과 전통음식 관심 높여

... 주인의 마지막 선물은 사랑이다. 대명숙이가 들린 소고기칼국수 맛을 한 입도 남김없이 먹고 울었다. 손톱이 국물에 잠기고 뒷안엔 딸이 그 요리사에게 손톱이게 바친 소고기칼국수 반달이 하나도 다 그에게 건넨 것을 이룰 수 없었다. 요리사는 일본 자양이 손을 내미자, 손톱이 울고도 갔다.

... 손톱이 된 살면들, 대명숙이가 음식을 통해 바친 주인의 단상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본 농장을 짓고 죽어선 주선에게 고기를 바치는 손톱이 허탈을 알았다. 5년 영혼들이 자살 부린 것밖에 알지 못하는 주선의 뜻을 알았고, 요리사는 손톱의 신세가 알게 되었다. 대명숙이가 바친 소고기칼국수 피어난 고향에서 아이와 손톱이 재결합하였다.

... 책방의 연회를 배양으로 변한 영화 '식객'은 음식이 주는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을 통해 이어지는 것은 화해와 소중함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영혼이다.

영화 '식객'이 국가 지원에 힘입어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는 손톱이 그렸을 때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손톱이 하나를 딱 관개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될 때는 물론이지"

24일 오전 9시 농림부 청사에서 영화 '식객' 시사회가 열렸다. 임 장관이 참석. 우측부터 이하나, 손톱이, 요리사, 김민준이 참석했다.

영화 '식객'을 소개하는 'The Food & Beverage NEWS'가 주목성을 부여하고 있다.

2005. 11. 24. 14:30

이하나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대사' 위촉

농림부 과천청사에서 24일 -식문화진흥과 주최

상당히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하나가 24일 농림부 청사에서 임 장관을 만나 축하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하나를 축하하며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을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슴에 감동을 줘야 오래 기억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식객'을 극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을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슴에 감동을 줘야 오래 기억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식객'을 극찬했다.

농림부는 이하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영화 '식객'의 개봉을 기념하여 'The Food & Beverage NEWS'를 창간했다. 이 뉴스는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하나가 24일 농림부 청사에서 임 장관을 만나 축하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하나를 축하하며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을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슴에 감동을 줘야 오래 기억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식객'을 극찬했다.

농림부는 이하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영화 '식객'의 개봉을 기념하여 'The Food & Beverage NEWS'를 창간했다. 이 뉴스는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하나가 24일 농림부 청사에서 임 장관을 만나 축하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하나를 축하하며 "우리 식품이 안전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을 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슴에 감동을 줘야 오래 기억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영화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식객'을 극찬했다.

2005. 11. 24. 14:30

주요 행사

»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2007.10.27)

□ 행사 개요

- 목적
 - 친환경농업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농업인, 유통업체, 우수관계자 등을 발굴·시상
- 일시 및 장소 : 2007.10.27(토) 11:00 ~ 12:00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주관 : 농림부, 환경부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행사 내용
 - 인사말
 - 격려사
 - 축사
 - 경과보고
 - 시상식
 - * 진행 : 김병찬 전KBS 아나운서
 - * 부대행사 : 친환경 쌀 수확체험(탈곡), 수상자 사진전시 등
 - ※ 생명평화친환경농업대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시행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수현 환경부차관,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황민영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김희중 여성단체연합회장, 김경진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친환경농업관련단체장 등 400여명

□ 행사 결과

- 친환경 농업의 현장 확산 분위기 조성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문화일보 2007년 10월 26일

경남 산청군 '친환경농업대상' 수상

농림부와 환경부는 26일 경남 산청군 등을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수상지는 ▲대상-경남 산청군 ▲특별상-충청북도 ▲친환경농업우수지구-남해군 서호지구 ▲생산자-홍성군 박종권 ▲소비·유통부문-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 ▲학교급식-아라중학교 ▲우수관계자-상주환경농업협회 등이다. 이들에게는 대상 3000만원, 특별상 2000만원 등 모두 1억 8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임상규 농림부 장관과 김수현 환경부 차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대상을 받은 산청군은 90년대부터 부산 YWCA와 협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온 지자체다. 전체 경지 면적 가운데 8.1%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기르고 있고,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특별상을 받는 충북은 최근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예산 707억원을 투자, 친환경인증 재배면적이 20% 이상 늘어졌다.

국산 호밀 종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지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 투자도 1400억 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작년 기준 112만8000t으로, 친환경농업대상이 제정된 2004년의 46만 1000t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행사

»» “농업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MOU체결” 행사 (2007.10.30)

□ 행사 개요

- 목적
 - 특성화 농고 육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 기반 마련
- 일시 및 장소 : 2007.10.30(화) 11:30~13:3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행사내용 : 농림부·교육부·교육청간 역할분담 내용 및 협력체계,
농업고등학교 생산품 전시(분경, 화훼장식, 육가공품 등)

□ 참석자 : 62명

- 김신일 교육부총리, 임상규 농림부장관, 엄명호 농진청차장, 박익규 한농연회장, 우정규 한여농회장, 정운천 농업CEO회장, 안정균 신지식농업인회장, 김준기 4-H본부 회장, 김진춘 경기교육감, 한장수 강원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10개 특성화 농고 교장 등

□ 행사 결과

- 언론보도내용
 - 농림부, 농업·식품 특성화고교 지원 강화(YTN-TV)
 - 특성화 농고 육성 본격화(내일, 동아,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 농림부 농업계고교 65억원 지원(연합뉴스, 한국농어민, 농수축산 등)
- 의미
 - 특성화 전문계 고교 육성을 위하여 8개 부처 중 가장 먼저 MOU 체결
 - 성공적 시행을 위한 농림부, 교육부, 교육청간 협조체계 구체화

»»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및 2007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2007.10.31)

□ 행사 개요

• 목적

- 한국식품의 우수성 홍보로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및 세계화 유도
- 원예농산물 및 전통식품 브랜드에 대한 우수성 전시홍보
- 해외 신상품 등 정보수집 및 해외바이어와 거래상담으로 수출 촉진

• 행사 주제 : “한국식품으로 하나 되는 세계”(Discover the taste of Korea)

• 일시 및 장소 : 2007.10.31(수)~11.3(4일간) / aT센터 제1·2전시관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축하, 시상(우수 원예농산물 브랜드 및 전통식품, 우수 전통주), 제막식 및 전시장 관람
 - *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축하
- 행사장은 국내외 업체관, 파워브랜드관, 수출홍보관 등으로 구성
- 농식품 소비확대 관련 세미나 및 향토식문화 대전 등 이벤트 행사 개최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장, 김경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장, 장자크 그로 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장 등 200여명

□ 행사 결과

- 22개국 225업체(국내 147, 해외 78)가 참여하여 우리 농식품 우수성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에 기여
- 방문 바이어 : 해외 14개국 350여명, 국내 6,500여명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K-TV 국정와이드 2007년 11월 1일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식품

김치나 불고기, 유자차와 같은 우리 농식품은 이제 세계로 팔려나가는 효자상품이 되었습니다. 장인 정신에 의한 명품화로 수출길 개척에 성공한 국산 농식품들이 31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식품 개방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지만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로 진출한 농식품 업체들은 브랜드 마케팅과 고품질로 승부하면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마련된 2007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 심포지엄에서는 개방의 시

대에 우리 농식품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중에 단연 강조된 것이 장인정신.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의 소량 생산으로도 대규모의 대량유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국산 김치의 명품화에 성공해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인 김순자씨. 중국산 저가 김치가 드세게 밀려드는 김치 시장에 다소 비싸지만 고품질의 김치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김치의 안전성을 의심하던 외국 바이어들은 조금 비싸지만 안전한 한국 김치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는데, 올해 매출액만 500억원에 이릅니다. 지역도 다양해 김치의 주 수입국인 일본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이라크, 인도네시아에까지 수출합니다.

세미나와 함께 시작돼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2007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는 이처럼 해외로 수출되는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20여개 업체에서 2천여개의 상품을 전시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상담을 통해 약 3천5백만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2007년 10월 29일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개막

농림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147개, 해외 73개 등 220여개 식품업체에서 출품한 2천여개의 상품이 전시된다. 해외관에는 EU·일본·대만 등 20개국의 전시관이 따로 설치된다. 주최측은 행사기간 해외 14개국, 350명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하고 6천500여명의 국내 바이어도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시장에 마련된 거래상담 공간인 비즈니스 센터와 수출정보관 등을 통해 약 3천500만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3천100만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국제식품전시회는 지난 6월 세계적 권위의 국제전시연맹(UFI)으로부터 인증을 얻어 국제적 식품전시회로 인정받은 바 있다.

주요 행사

»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2007.11.9)

□ 추진 배경

- 정부는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 로 정하고, 1996년부터 기념식과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

□ 행사 개요

- 목적
 - 제12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하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 일시 및 장소 : 2007.11.9(금) 11:00~12:00 /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축사
 - 농업발전유공자 포상(훈장 7, 포장 7, 대표 2, 국표 1, 장관 1)
 - “2007한국농업 희망의 빛” 비전 선포식
 - 농촌사랑 한마당축제 부대행사 테이프 커팅 및 1111명 비빔밥 퍼포먼스
 -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관람,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시식
 - 농촌체험행사(인절미 만들기 떡매치기 시범, 압화만들기, 짚신공예 등)
- 행사슬로건 : “생명가득 푸른농촌, 희망가득 미래농업”

□ 참석자

- 농림부장관,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특위위원장, 농민단체장, 소비자대표, 기관 및 단체장 등 550여명

□ 행사 결과

- 농촌사랑 우리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등 부대행사 추진으로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의 장 마련
- TV, 일간지, 전문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농업인의 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갖는 계기 마련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노컷뉴스 2007년 11월 9일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9일 서울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농림부는 농민단체장, 농협조합장 등 농민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18명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은 경기도 용인에서 낙농업을 하는 황병익씨에게 돌아갔다.

황 씨는 종축 개량에 노력해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산유능력 검정 사업과 젖소 전상등록 시스템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이호열씨가 은탑산업훈장을, 경북 문경의 주신복씨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또 9일부터 3일간 기념식장 앞 야외광장에서는 '농촌사랑 한마당' 행사가 진행돼 내고향 특산물과 먹거리장터 등이 운영된다.

주요 행사

»» 원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2007.11.11)

□ 행사 개요

• 목적

–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웰빙농업 실천을 위하여 금년도 44회째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11.11(일) 11:00 / 따뚜공연장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축사

– 어울림마당 부대행사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소비자 농업체험행사, 농경문화 전시행사, 공연 및 경연, 먹거리 장터 등 이벤트 행사 참석 등

– 농산물 홍보·판매 전시장 관람

– 떡메치기 시범 및 토종과실 개발 와인 시음

– 농업인의 날 제창자 원흥기 옹 미망인 접견 등

□ 참석자

• 농림부장관, 한나라당 이계진의원, 원주시장, 시의회 의장,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 의장 및 단체장, 원흥기 옹 미망인, 탤런트 전원주 등 1,000여명

□ 행사 결과

• 원주시 농축산특산물 전시·판매행사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계기로 농가소득에 기여

• 다양한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소비자 참여 유도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강원일보 2007년 11월 10일

오늘 원주시 농업인의 날 내일까지 체험행사 다채

【원주】제44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일부터 11일까지 명륜동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원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 만족=농업인만족’을 주제로 소비자 농업체험을 비롯해 농산물 직거래 및 먹거리 장터, 농경문화 전시회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는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비롯 농산가공품 전시판매, 원주 치약산한우 시식 등이 마련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행사기간 치약산한우브랜드육성추진단과 원주시연합낙우회와 함께 불고기 무료시식, 치약산한우 고급육 노마진 대박 세일 등을 실시한다.

주요 행사

»»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2007.11.26)

□ 행사 개요

- 목적
 -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식품안전 정책 설명, 협조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07.11.26(월) 11:00~13:00 / 서울교육문화회관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취임 후 농정 추진 상황 및 식품산업육성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 친환경농업정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리 및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등 소개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 청취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최우성 소협 국장, 김천주 주부클럽 회장, 이윤자 주부교실 회장, 김형 서울YWCA 회장,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 원장, 전성자 소비자교육원 원장, 이에스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 식량국장, 축산국장, 농관원장 등 10명

□ 행사 결과

- 소비자 단체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교환의 기회
- 소비자단체 측에서 농업정책의 주요고객이 소비자임을 강조하고 정책 수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과 우리부에 소비자 교육 지원을 요청

»» 농림과학기술 관계기관 간담회 (2007.11.29)

□ 회의 개요

• 목적

- 농림R&D 사업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과기부 산하 출연(연) 기관장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07.11.29(목) 12:30 / 유성호텔(대전) 프린스홀(2F)

□ 참석자

• 농림부장관(주재), 농진청·산림청 차장, 한식연 원장, 대덕소재 출연(연) 14개 기관
원장 등

※ 배석 : 식량정책국장, 농생명산업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회의 결과

• “농림R&D사업 활성화 방안”과 농림R&D의 외연을 확대하는 우리부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협조 당부

• 각 출연(연)에서는 농림R&D 참여 가능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우리부의 연구기
획 및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희망

• 농림부와 기초과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출연(연)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급 기술협력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기로 함

* 토론회에는 농촌공사, 농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 산하기관도 참여

주요 행사

»»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기념행사 (2007.12.3)

□ 행사 개요

• 목적

- 한국음식 100선 선정과 표준조리법 연구·개발 결과 발표를 통해 한식과 식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

• 일시 및 장소 : 2007.12.3(월) 15:00~17:00 / aT센터 5층 대회의실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인사말, 축하 케이크 커팅 및 한국음식 전시장 관람

* 주한 페루대사(로페즈 부라보), 고인식 한국음식업중앙회장 축하

* 황민영 농특위위원장 및 주한 필리핀대사(수산 카스트렌세) 건배 제의

- 행사장은 한국음식 전시(50여점), 대표음식 시식, 리셉션장으로 구성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황민영 농특위위원장, 윤장배 aT사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동수 한국식품연구원장, 김석동 농업과학기술원장 등 국내인사 150여명

• 주한 외국대사(8명, 페루, 필리핀, 이집트, 도미니카,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수단, 에쿠아도르), 외교관, 주한 외국문화원, 대사부인 등 외국인사 32명

□ 행사 결과

• 한식 세계화 사업이 농림부 주도로 본격 추진됨을 대내외 선포

• 국내 최초로 과학적인 한식 표준조리법 연구·개발 결과 발표와 대표음식 전시·시식 행사 추진으로 대내외 관심과 책자 구입문의 쇄도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서울=연합뉴스, TV 2007년 12월 3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100가지

정부, 대표한식 100선 표준조리법 개발. 정부가 한식 세계화의 첫 단계로 대표적 전통음식들의 조리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외국인들도 손쉽게 '한국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농림부와 문화관광부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선정 결과와 함께 표준 조리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정부 및 지자체, 음식 관련 학회, 업체 관계자들과 주한외국대사, 외교관, 외신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베스트 12'에 선정된 음식들과 코스요리, 다과상 등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식 표준화 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 300종에 대해 표준조리법과 외국어 명칭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200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연구소는 1차로 규합총서(1815년) 등의 고문헌과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100가지를 뽑아 조리법과 기본 영양소,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조리서에 담았다. 특히 이 책에서 비빔밥·삼계탕·쇠갈비구이·김밥·순두부찌개·해물파전·호박죽·잡채·배추김치·냉면·불고기·호박떡 등은 '한국 음식 베스트 12'로 소개됐다.

또 이번에 개발된 조리법은 '약간', '적당량', '일맛계' 등의 애매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량과 조리시간 등을 모두 'g', 'cm' 등 국제 계량단위로 표시해 외국인이 조리하더라도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부는 이 조리서를 앞으로 영어·일어·중국어 등으로 펴내 해외에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행사

»» 국제곡물가격 상승영향과 대응전략 심포지움 (2007.12.4)

□ 행사 개요

• 목적

– 향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영향 전망 및 대응전략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07.12.4(화) 13:30~18:30 / aT센터 회의실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축사

*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개회사

– 제1부 : 국제곡물가격 상승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발표

– 제2·3부 : 해외진출 사례와 전략 발표

– 제4부 : 종합토론

• 해외진출사례 : 코란도(임업/인니), 아그로상생(유기농/연해주), 장원낙농(사료/러시아), 풀무원(콩/중국), 굿네이버스(사료/캄보디아)

□ 참석자

• 학계, 해외진출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 임직원 340명

* 국제곡물가격 상승 및 해외농업 진출에 높은 관심 표명으로 당초 예상(150명)보다 많은 민간기업 및 관련단체 참석

□ 행사 결과

• 향후 식량수급에 대한 만성적 공급 부족 전망 발표에 따른 대응책 모색에 대한 관련 주체간의 공감대 형성

• 해외농업개척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농업개발 진출 전략 모색

– 해외 농업개발 추진을 위한 가칭 『민·관·학 해외 농업개발 포럼』 창설 제안

• 행사내용은 KOREA뉴스, 파이낸셜뉴스 등에 보도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KOREA 뉴스 2007년 12월 3일

Korea 뉴스 2007년 12월 3일

11월 26일 | 11월 27일 | 11월 28일 | 11월 29일 | 11월 30일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11월 26일 | 11월 27일 | 11월 28일 | 11월 29일 | 11월 30일 | 12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값 수년간 더 오를 것"

- "에너지와 수산물까지 가격 상승압박 심해"
- "농산물도 10년간 2배 가까이 오를 것"

【서울 3일 연합뉴스】 최근 치솟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이 앞으로 수년간 더 상승할 것을 포괄적으로 예상한 전망이 나왔다.

3일 농림수산자원경제연구원(농수자원)은 오는 4일 발간될 17번째에서 불리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 및 대응전략"이란 심도조사를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수자원은 "에너지와 수산물까지 가격 상승압박에 의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수산물 가격은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7년 12월 4일

"곡물값 내년 10% 넘게 상승"

2008년 12월 4일

내년에 세계 시장에서 종과 쌀 가격이 5~10% 오르고 곡물 가격이 내년에 연평균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수자원연구원은 4일 서울 잠정동 17층에서 열린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 및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내년 국제 곡물가격을 이같이 예측했다.

연구원은 내년에 국제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경우 국제 곡물 가격 상승률은 10%를 넘어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두(콩)로 대표되는 유지작물과 소맥(밀) 같은 작목은 4.5%, 8.1% 상승해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10년에는 올해보다 곡물 가격이 7% 하락하고 종과 쌀은 각각 5.9%,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지작물 가격이 상승세가 계속되고 내년 이후 하위도 전도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10% 떨어질 경우 곡물 수급은 내년에 185만톤, 2010년에 175만톤 정도로 줄어들고 종과 쌀 가격은 각각 355달러, 308달러로 상승률이 14.1%, 12.8%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밀은 2010년에 361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행사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 (2007.12.5)

□ 행사 개요

- 목적
 - 소비자에게 품질·위생·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제공
- 일시 및 장소 : 2007.12.5 (수) 11:00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관 및 주최 :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 농림부 후원, 축산물등급판정소 협조
- 행사 내용 : 2007 우수 축산물 브랜드인증 선정 결과 발표

□ 참석자

- 농림부장관,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인증 브랜드 경영체, 소비자·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지자체 브랜드 업무담당자, 언론사 기자 등 300여명

□ 행사 결과

- 2007 우수 축산물 브랜드인증 선정 결과

구분	한우	육우	돼지	육계	전체
신청 경영체 수	27	2	22	8	59
인증 경영체 수	21	1	20	6	48
비율	78%	50	91	75	81

※ 인증 경영체수 : (04) 18개소 → (05) 25 → (06) 36 → (07) 48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조선일보 2007년 12월 6일

안성마춤 한우, 이름값하네!

안성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안성마춤 한우'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브랜드 인증 평가에는 전국 시·도 추천을 받은 800여 축산물 브랜드가 출품됐다.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거쳐 한우 브랜드 21개, 육우 브랜드 1개, 돼지 브랜드 20개가 선정됐다. 이날 인증발표는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관하고 농림부에서 후원했다. 평가 기준은 품질과 위생, 안전성, 물량 공급 능력 그리고 브랜드 관리상태 등이다. 안성마춤 한우는 2005년도 제1회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산자와 농협, 행정 기관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브랜드 이미지 설정, 엄격한 상표관리와 품질관리 등을 해 온 결과"라며 "안성마춤 한우를 다양해지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한우 브랜드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mbn 매일경제 2007년 12월 4일

우수축산물 브랜드 48개 선정

소비자시민모임이 우수 축산물 브랜드 48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우는 안성마춤한우와 횡성한우, 장수한우 등 21개이고 돼지고기는 도드람포크와 하이포크 등 20개, 닭고기는 동우 닭고기와 마니커 등 6개 브랜드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내일(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를 열고 선정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

»»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2007.12.6)

□ 행사 개요

• 목적

- 창립 20주년을 맞아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농민단체로서 한농연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공로를 치하하는 장을 마련하여 조직의 힘을 응집

• 주제 : 스무살 청년, 도약! 한농연

• 일시 및 장소 : 2007.12.6(목) 14:00 ~ 18:00

한국마사회 신 관람대(럭키빌) 6층 컨벤션센터홀

•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ATV 한국농림수산방송, 한국농어민신문)

• 행사내용

- 시상 : 우수농업인 장관표창(10명)

-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 기념사(한농연중앙회장), 치사(농림부 장관), 축사(국회의원 등 5명)

- 기념 공연, 떡자르기, 만찬

□ 참석자: 약500명

• 임상규 농림부장관, 홍문표·최규성·김춘진 의원, 농특위원장, 오충일 민주신당대표, 박홍수 전장관을 포함한 역대 회장단, 정재돈 농민연합회장 등

□ 행사 결과

• 인력육성의 중요성 인식, 농민단체의 역할 재조명의 기회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한국농어민신문 2007년 12월 10일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 후원행사’ 성료 “뜨거운 열정으로 제2도약”



20세 성년을 맞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가 지난 6일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가 성료 됐다. ‘스무살 청년, 도약!!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임상규 농림부장관, 황민영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정·관계 국회의원, 농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한농연 역대

임원 및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한농연의 20세 성년을 축하했다.

이날 박의규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농연이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선두 농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농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선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한농연은 1987년 창립 이래 우리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농민단체로 성장했다”면서 “한농연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상, 역대 중앙회장단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함께 축하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요 행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비전 찾기 연찬회 (2007.12.11)

□ 행사 개요

• 목적

- 농업인·소비자단체, 농업 및 식품 관련 CEO, 정책담당자, 농업경영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농업·식품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제시

• 일시 및 장소 : 2007.12.11(화)~12(수) / 경기 용인 현대인재개발원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개막식 참석 및 격려사

- 초청강연 : 「식객」전윤수 감독, KREI 박성재 박사, BBQ 윤홍근 회장

- 분임토의 및 정리결과 발표 : 농업·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농업인지원제도 등 총 6개 분임으로 나누어 토론한 후 토론내용 정리·발표

- 만찬 및 문화공연 (WMF 음악친구들)

□ 참석자

• 정책담당자 및 농업 관련단체 관계자, 농업CEO 등 총 110여명 참석

- 농림부장관, 농림부(40여명) 및 농촌진흥청, 유통공사, 농협 등 관련조직(10여명)

-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20여명), 농업CEO(15여명)

- 민간업체 : 씨즐러, 롯데마트, 삼성테스코 등(5여명)

- 학계(연구소 포함) 등 기타(20여명)

□ 행사 결과

• 농업계 이외의 식품·유통·기술·문화·인적자원개발 전문가가 초청강연 및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농정이슈에 접근하는 기회 마련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연합뉴스 2007년 12월 10일

농업계, 영화 '식객' 과 BBQ 성공비결을 만난다

개방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농업계·비농업계가 함께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농림부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 용인 현대인력개발원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비전찾기' 연찬회를 갖는다. 특히, 농림부는 연찬회 첫날인 11일에 영화 식객 전문수 감독과 BBQ 윤홍근 회장의 특별강연을 마련하여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업무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농림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연찬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농식품 및 유통관계자, 지역개발전문가,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계와 비농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함께 한다. 농림부는 이번 토론회를 농업계와 비농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수렴의 장으로 여기고 농림부 국·과장 이상의 간부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림부 임상규 장관은 "이번 강연과 토론이 식품·유통·기술·문화·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슈를 집중 토론하고 농업·농촌의 비전을 찾아나서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농촌·식품산업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농업기술개발, 농촌지역개발 등에 대한 주제별 분임토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

»» 외식업계 CEO 간담회 (2007.12.14)

□ 행사 개요

• 목적

- 외식업계 등 한식세계화 선도자를 격려하고, 전통 한식과 전통술 명품화·세계화 방안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2007.12.14(금) 19:00~21:00

한식당 가온 (광주요 조태권 회장 운영 한정식 업소)

□ 참석자: 9명

- 정부측(3) : 농림부 장관, 농림부 차관보, 식품산업과장
- 외식업계(6) : 조태권 광주요 회장, 윤희근 BBQ 회장, 김순진 놀부 사장, 윤숙자 한국 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 소장, 박형희 식품외식경제 대표

□ 행사 결과

- 정부가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시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
 - 농림부 관련부서 등에 외식 전문가 채용 필요
- 우리 음식 세계화 촉진 방안으로 음식과 문화의 결합, 조리사 교육, 기업형 외식업 진출 지원 등 의견 제시
- 우리 전통술 세계화를 위해서는 음식과 맞는 술, 각테일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술 개발이 필요
- 앞으로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가칭) “우리 음식 세계화 포럼”을 운영하여 지속 협의 추진, 한식과 식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한식 세계화 기반 구축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내일신문 2007년 12월 17일

임상규 장관, 한식 세계화 사업 업계 의견 수렴



시장 등이 참석해 외국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면서 느꼈던 한식의 경쟁력 실태와 한식당 해외진출의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 소장, 박형희 식품외식경제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상규(왼쪽에서 세 번째) 농림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의 대표적인 외식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정부에서 본격 추진할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조태권 광주요 회장, 윤희근 BBQ 회장, 김순진 놀부

주요 행사

»» 농촌지역가꾸기 합동시상식 (2007.12.21)

□ 행사 개요

• 목적

- 2007년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합동으로 시상함으로써 행사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도모
- 우수 마을 주민 및 관계자 상호간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농촌지역 가꾸기 사업의 관심 및 홍보제고
 - ※ 시상분야 : ① 2007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 ② 제6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③ 제4회 나의농촌문화체험기 ④ 제2회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콘테스트

• 일시 및 장소 : 2007.12.21(금) / 한국농촌공사 연수원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시상 및 축사
- 분야별 심사위원장 심사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 농특위 위원장의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등 농촌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
- 식전행사로 수상작품 전시 및 축하공연

□ 참석자

• 농림부장관, 농특위원장, 한국농촌공사장, 주민 등 300여명

□ 행사 결과

•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사업에 기여한 마을, 단체, 개인을 격려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 유도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한국농어민신문 2007년 12월 24일

2007 농촌지역가꾸기 시상

“농촌 주거환경, 중소도시 수준으로” 임상규 장관, 농촌지역가꾸기 시상식서 밝혀

정부가 도시의 자본과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농촌을 전통과 자연이 함께 하는 정주·휴양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임상규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농촌공사에서 황민영 농특위원장과 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농촌 지역가꾸기 합동 시상식'을 갖고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데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시상했다.

임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촌지역에도 돈과 인재가 모이도록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원마을과 체험마을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임장관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21일자로 공포됐다”며 “이 법을 근간으로 도농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요소를 발굴해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수상한 지역과 마을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주변의 도움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농촌마을주민과 도시민, 출향인사들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임장관은 △2007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평가 △제6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제4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제2회 내 고향 잠재자원 개발 콘테스트 등 4개 분야 53점에 대해 시상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장흥군 수문권역이,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는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이 대상을 받았다. 또 농촌문화체험기 대상은 민족사관고 김지영 학생이, 잠재자원개발 콘테스트에

주요 행사

»» 강화약썩의 주요 효능 연구 보고회 (2007.12.28)

□ 행사 개요

- 목적
 -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강화약썩의 주요 효능 연구보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7.12.28(금) 13:00~17:00 / aT센터 5층 대회의실
- 행사 내용
 - 강화약썩의 주요 효능 연구 성과보고(9개 주제)

□ 참석자: 330여명

- 농림부장관, 농촌정책국장, 농촌산업과장, 농진청 관계자 등 10여명
- 강화군 농업인 250명 및 유관기관 및 학계 70명 등

□ 행사 결과

- 강화군에서는 연구결과를 상품화로 연결하여 산업화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세수 증대에 기여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노컷뉴스 2007년 12월 28일

강화군, '강화약쑥' 효능 연구결과 발표

강화군이 신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강화특화작목의 브랜드 파워창출 사업 중 강화약쑥의 주요 효능 연구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28일 13시부터 aT센터(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강화군이 타 지역과 명백히 차별화되고 국내의 경쟁력이 있는 강화약쑥을 대상으로 항 당뇨 효능 등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신물질의 항암효과 등에 대한 물질특허 7건을 포함한 치료용 조성물 등 15건의 특허와 국제저명학술지인 Planta Medica(SCI급) 등에 우수논문 게재 및 학술발표를 30여건 그리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개발연구 등 20여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강화약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강화약쑥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약쑥" 책자 발간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실 관계자는 제1기 신 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강화약쑥 효능 연구 성과 대국민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많은 참석을 요청하였다.

한편 강화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강화약쑥 추출물의 당뇨병 증상 개선효과 등에 대한 우수한 효능 검증 결과를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에 만전을 기해 강화약쑥이 세계인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슬로건이 완성되어 강화약쑥이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 행사

»»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 유통대책추진 유공자 시상식 (2007.12.28)

□ 행사 개요

• 목적

- DDA · FTA 등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헌한 농업인, 관련기관 · 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 일시 및 장소 : 2007.12.28(금) / 정부과천청사 3 · 4동 지하대회의실

• 행사 내용

- 훈 · 포장 등 정부포상 시상 및 농림부장관 축사 등

□ 참석자

• 농림부장관,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전남 농정국장, 안동시장 등 80여명 참석

□ 행사 결과

•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헌한 농업인, 관련기관 · 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농민신문 2008년 1월 1일

‘고품질브랜드쌀 생산·유통 유공자’에 유남영조합장

농림부는 ‘2007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 유공자’로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과 한건희 전북 군산제회미곡종합처리장 대표를 선정, 2007년 12월 28일 시상했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유조합장은 2006년 11월 서울 문래동에 소비지 미곡종합처리장(RFC)을 열고 정읍에서 생산된 <단풍미인쌀>을 도정 후 하루 만에 배달하고 있다. 산업포장 수상자인 한대표는 계약재배를 통해 연간 1만5,000t의 <철새도래지쌀>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 쌀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요 행사

»» 농업전망 2008 대회 (2008.1.23)

□ 행사 개요

• 목적

- 농업 장기관측 사업으로 매년 초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동향분석 및 품목별 장단기 전망을 제시

• 일시 및 장소 : 2008.1.23(수) 09:30~18:00 / 잠실 롯데호텔

• 주최·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 개회사(농경연 원장), 격려사(농림부장관), 만찬사(농림부차관)

□ 참석자

• 총 참가인원 : 1,700여명

- 농업관련업체, 지방공무원, 교수 / 연구원

□ 행사 결과

•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대 주제아래 총 35개 세부주제 발표

• 제1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에 약 1,200여명 참석

* 한국 경제전망과 농업 / 2008 농업·농가 경제전망 / 농정 선진화 방향

• session 별로 진행된 제2부, 3부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 “국제 무역 동향과 전망” 및 “쌀·곡물” 주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YTN 뉴스

올해 농가소득 4% 늘어날 듯
2008-01-08 14:30

올해 농가의 연소득이 지난해 보다 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 곡물 가격과 모가지 등의 상승에 농축산물가격 부담은 거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2008년 농업전망 보고서에 보면 올해 농가당 소득은 3,890만 원으로 지난해의 3,690만 원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쌀과 돼지고기, 닭 등 곡물 가격이 지난해 48% 이상 오른 것으로 전망돼 축산업계의 기대는 무리입니다.

반구름안 곡물 가격과 상승으로 사육가격은 19~14% 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지난해 50~110% 오른 2250~2300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등 고기가격도 양고기 가격의 상승 5~10%를 반영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류와 닭 가격도 각각 85%와 10%정도 오른 경우 반반만 상승 등 사육 후 소득 증가도 8~15% 예상되고, 180일간을 넘어가면 소득 감소율이 13~20%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 경제 economy

01월 23일 004면

올 농가소득 4% ↑ 3583만원

올해 농가소득이 4% 증가한 3580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농업전망 2008' 대회에 앞서 확보한 보도 자료를 통해 2008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하겠지만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3583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가소득에서 농원소득 외환되는 재화 분야에서는 반면 직불제 확대 등으로 이천소득의 비싼 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주 기자 yong@

mbn **방송TV**

올해 농가소득 4%증가 전망...4% 늘어날 듯
2008년 01월 08일 14:30

올해 농가소득이 지난해에 비하면 4%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오늘(8일) 발표한 2008년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가당 소득은 3890만원으로 지난해의 3690만원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쌀과 돼지고기, 닭 등 곡물 가격이 지난해 48% 이상 오른 것으로 전망돼 축산업계의 기대는 무리입니다.

올해 농가소득 4%전 늘어날 듯

농업전망 2008 - 농업전망이론 400쪽 예상

올해 농가소득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583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08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는 지난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높은 부가가치인 양돈 산업 부문 상승에 따라 양돈업의 농가당 소득은 지난해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업 전망)

농가소득의 50%인 1,941만원(1인당 소득 증가율 20%)은 직불제 확대 등 농업소득의 50%인 1,941만원에 해당한다. 올해 농업소득은 2007-08년도의 평균 4,000억 원에 비해 4,200억 원(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당 소득은 3,890만 원(1인당 소득 1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 부문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2,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직불제 확대에 따른 400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해 08년 4월 1일 기준 농가당 소득은 3,890만 원(1인당 소득 1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업 전망)

19~24%에 비해 2007년 19%의 비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준 기자 jmg@mbn.com

주요 행사

»»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2008.1.23)

□ 행사 개요

• 목적

– 농업·식품산업·농촌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 일시 및 장소 : 2008.1.23(수) / 팔래스 호텔 12층 라일락룸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인사말, 위원 소개, 토의 진행

* 농업·농촌 발전계획 보고 : 농촌정책국장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박의규 한농연회장, 신중목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박정수 연예인 농촌돕기운동본부 이사 등 27명

□ 행사 결과

• 농업 외부의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농업·농촌정책의 아이디어 창출 기회 마련

– 농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언론·문화계 인사 참여

• 농업·농촌 발전계획 보고를 통한 비전 제시 등 농업·식품·농촌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기여

〈주요행사 사진〉



주요 행사

»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 (2008.1.23)

□ 행사 개요

• 목적

-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농촌사랑선포식 4주년을 기념하고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지도자와 기업체 자긍심을 고취

• 일시 및 장소 : 2008.1.23(수) 14:00~15:10 / 농협중앙회 대강당

• 행사 내용

- 농촌사랑운동 성과와 2008년 계획 보고
- 농촌사랑대상 마을부문시상(농협중앙회 회장)
- 도농교류 정부포상 마을부문, 기업체, 개인부문시상(농림부장관)
- 격려사(농림부장관)
- 농촌사랑운동 확산 우수기업 감사패 증정(전경련 부회장)
- 축사(국회 농림해양위 권오을 위원장)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권오을 농해위위원장, 전경련 이윤희 상근부회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병규 문화일보사장 등 500여명

□ 행사 결과

• 농촌마을, 기업체 등 도농교류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국민적
동참 분위기 확산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문화일보 2008년 1월 24일

“‘1사1촌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3일 오후 열린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는 1사1촌운동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다. 1사1촌운동에 앞장서온 기업·단체 대표, 농촌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에서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보다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1사1촌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이날 축사에 나선 주요 참석자들은 농협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1사1촌운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일보에 대한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 장관은 “그동안 1사1촌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캠페인을 펼쳐오신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의 노고에 치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 1사1촌운동을 쫓 지켜봐왔다”면서 “1사1촌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준 많은 회사들, 농촌을 직접 방문해 활기를 불어넣은 국민들, 1사1촌운동 캠페인으로 농촌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이 문화일보 사장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 장관은 “그동안 8000여건의 결연 실적을 올리고, 1사1촌운동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지난해 553억원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1사1촌운동은 짧은 기간에 범국민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1사1촌운동을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다”며 1사1촌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주요 행사

»» 설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2008.1.30)

□ 행사 개요

- 목적
 - 설(2.7, 목)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
- 일시 및 장소 : 2008.1.30(수) 15:00 / 양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행사 내용
 - 설 대비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판매계획 보고
 - 매장 순람 및 관계자 격려
 - K-TV 인터뷰

□ 참석자

- 농림부장관, 농식품유통국장, 소비안전과장, 이승우 (주)농협유통사장, 김경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 외 농협관계자 다수

□ 행사 결과

- 『설 대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하여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수급 및 물가안정에 기여

〈보도내용〉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2008년 1월 30일

농림부장관, 농축산물 수급 안전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장관이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양재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소비자 물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 제수용품으로 쓰일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과일은 출하량 증가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동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축산물은 공급여력이 충분해 설 기간 중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가격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 장관은 시민들에게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설 명절에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행사

»» (사)전통주진흥협회간담회 (2008.2.4)

□ 행사 개요

• 목적

- 전통주진흥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 전통주 주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장관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 증정

• 일시 및 장소 : 2008.2.4(월) 12:00~13:30 / 서초동 소재 두리반(한정식당)

• 주요행사 내용 : 업계 의견청취, 전통주 시음 및 식사

□ 참석자

- 농림부 : 장관, 차관보, 식품진흥과장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조재선 회장 등 9명

□ 행사 결과

- 전통주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주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 주세법 개정안 개요

- 전통주 주세 50%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주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07.12.28)

□ 주요 내용

- 전통주(민속주+농업인 생산주류)에 대해 주세 50% 감면
- 전통주의 범위 정립 및 대상범위 확대(과실주 → 전통주)

구분	주세(%)		전체세율(%)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탁주	5	2.5	15.5	12.8
약주·청주	30	15	43	26.5
증류주·리큐르주	72	36	113	61.5

* 과실주는 '05년부터 50% 감면 적용

- 주세법 개정령 공포('08. 1. 9)

□ 시행령개정 추진 경과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재경부, '08.1.16~ 2.5)
- 그동안 농림부 조치사항
 - 재경부 의견수렴에 앞서 생산 업계 및 단체, 지자체 등에 의견수렴 문서 조치 ('08.1.9 및 1.21)
 - 의견 수렴결과 조정을 위한 협회, 지자체 등 관계자 회의 개최(2.1)
 - ※ 의견수렴 결과 : 당해연도 발효주 500kl, 증류주 300kl
 - ※ 재경부 예고안 : 당해연도 발효주 200kl, 증류주 100kl
- 향후 조치계획
 - 수렴된 업계의견을 재경부에 통보(2.5) 및 지속 협의 추진

주요 행사

»» 전남해남 옥천농협 「OK 라이스센터」 준공식 (2008.2.20)

□ 행사 개요

• 목적

- 해남옥천농협 OK 라이스센터 준공식 참석으로 우리 쌀의 품질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08.2.20(수) 14:00~15:30 / 옥천농협 OK 라이스센터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준공식 참석

- 축사, 표창장 수여(준공 유공자 4명), 기념식수, 시설 시찰 등

* 표창장 수여자 : 건축사 사무소 구성 소장 김성국, 한림건설 차장 송장섭, 협동엔지니어링 과장 김규태, 옥천농협 상무 이재안

• 주요시설 및 사업비(대지 23,254㎡, 건평, 4,962㎡)

- 사업비 : 122억원 (국고보조 등 13, 중앙회 용자 50, 자부담 59)

- 처리용량 : 20톤/시간당 (전국 최대 규모임)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채일병 국회의원,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충식 해남군수, 김경진 농협 경제대표,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전국 농협 및 민간 RPC 장,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인, 관련 공무원, 농업인 등

□ 행사 결과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으로 우리 쌀의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농민신문 2008년 2월 22일

옥천농협, 국내 최대·최첨단 RPC 준공

임상규 농림부 장관(왼쪽 네번째), 채일병 국회의원(왼쪽 여섯번째), 김경진 농협 농업경제대표(오른쪽 두번째), 윤경하 옥천농협 조합장(왼쪽 다섯번째), 이덕수 전남농협지역본부장(맨 왼쪽) 등이 옥천농협 'OK라이스센터' 준공식에서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OK라이스센터' 시간당 20t 가공 능력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건립됐다. 전남 해남 옥천농협(조합장 윤경하)은 옥천면 영신리에 'OK라이스센터'를 건립하고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총 122억원(중앙회 차입 50억원, 자부담 59억원 등)을 들여 대지 2만3,254㎡(7,047평)에 지상 3층 건물 규모로 들어선 OK라이스센터는 종합품질분석실·로봇 자동적재 시스템·건조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해썬(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춘 공기사위실·먼지제거 집진시설 등을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쌀 생산이 가능해졌다. 시간당 20t을 가공할 수 있는 OK라이스센터는 해남지역 벼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OK라이스센터 준공이 우리 쌀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쌀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농촌 현실이 어렵지만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물량 규모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며 "OK라이스센터 가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행사

» 제9회 한국농업대학 학위수여식 (2008.2.21)

□ 행사 개요

- 목적
 - 한국농업대학 (학사)학위수여식
- 일시 및 장소 : 2008.2.21(목) / 한국농업대학 대강당
- 행사 내용
 - 농림부장관 학위수여식 참석 : 장관상 시상(1점) 및 치사
 - *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격려사, 한국농업대학장 식사 등
 - 학위수여식 후 오찬

□ 참석자

-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증양회장, 윤요근 농촌지도자회장,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김준기 한국 4-H 운동본부 회장 등

□ 행사 결과

- 졸업생 205명 등에 학사학위 수여
- 농림부장관상(1점) 포함 우수 졸업생에 시상(각 단체장상 등 46점)

〈주요행사 사진〉



〈보도내용〉

경향신문 2008년 2월 21일

한국농업대 30대 여성이 수석졸업

“주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농(歸農)의 모델이 될 작정입니다.”

21일 경기 화성시 한국농업대학 제9회 학위수여식에서 수석 졸업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특용작물학과 김영주씨(34·여)의 목소리에는 소박하지만 대단한 농업의 꿈이 들어있다. 김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2005년 31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농업대학을 입학, 이날 졸업했다. “굳이 10년 후 제 모습을 설명하라면 제 땅에서 자급자족하며 허브 등 특용작물을 기르는 것 정도입니다. 다만 제 주변에 땅을 고르는 사람은 여럿 있을 겁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농업에서 삶의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김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단순히 주기만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그 대안으로 농업을 선택했다. 자신의 농업이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면 어려운 이웃들이 농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김씨가 품고 있는 거창한 ‘함께 하는 농업’의 꿈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 한국농업대학은 졸업 후 6년 동안의 의무적 영농 종사를 조건으로 학비와 기숙사비, 실험실습비, 교재비 등 일체를 국비로 지원하는 3년제 국립대학으로 이날 7개 학과, 20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장 방문

»»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시찰 (2007.9.10)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9.10(월) / 농촌진흥청 본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① 10:00~10:30 전통주 심포지엄, 양조연구동 시찰
 - ② 10:30~11:00 농업유전자원센터 시찰
 - ③ 11:10~12:30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 행사 내용
 - 농업유전자원센터 시찰 및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 방문 결과

〈 지시사항 〉

- FTA 대응 품목별 기술개발전략을 이행하여 계획된 목표 달성
- 농식품, 농촌관련 연구 강화 및 환경변화에 맞게 기능정비 필요
-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강화
- 탐프로젝트 기술을 인근농가에 조속히 확산하는 방안 강구
- 농진청 지방이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머쉬하트, 안성마춤 브랜드 방문 (2007.9.10)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9.10(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대덕면

① 15:00~15:30 머쉬하트(새송이버섯) : 미양면

② 15:50~16:30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APC)
: 대덕면

• 행사 내용

- 방문업체의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격려
- 종균배양시설 및 재배실 견학(머쉬하트)
- 배 선별 및 포장, 신선편이식품 제조 공정 견학(안성마춤)

□ 방문 결과

〈 건의사항 〉

• 머쉬하트

- 유럽수출확대를 위한 컨테이너전용 콜드체인시스템 설치 지원

• 안성마춤

- 산지유통(브랜드) 활성화자금 금리 인하 : 3% → 1%
- 전처리 시설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 상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

〈 당부사항 〉

- 개방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성마춤과 머쉬하트의 노력과 혁신, 역할분담을 통한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
- 최근 농림부가 생산·유통·가공분야 외에도 식품산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적극적 참여 당부

현장 방문

»» 태풍 ‘나리’ 피해지역(제주시 조천, 구좌읍) 현장점검 (2007.9.18)

□ 방문 개요

- 목적
 - 제11호 태풍 ‘나리’에 의한 제주지역 피해현장 방문 및 피해농업인 위로
- 일시 및 장소 : 2007.9.18(화) 15:00~17:00 /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 조천읍 함덕, 구좌읍 감녕리 일대 등 태풍 ‘나리’ 주요 피해지역

□ 방문 결과

- 피해지역 확인 후 피해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위로

〈 건의사항 〉

- 수해상습지(김녕·행원·월정)를 2008년 신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선정
- 함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속추진(저수지 2개소, 350만톤규모)
- 채소류 가공·세척 등 종합처리를 위한 APC설치지원(국비 200억원)

〈 조치사항 〉

-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

》》 전남 농촌현장 방문 (2007.9.28~29)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9.28(금)~29(토), 전남(나주·담양 등) 및 광주 일원

- ① 9.28일 14:50~15:40 농업기술원 및 농업박람회 준비장 방문
- ② " 16:10~16:40 농업인 신문고 설치행사 (농관원 나주출장소)
- ③ " 16:50~17:20 나주배원협 수출선과장 방문
- ④ " 17:40~18:00 남평농협 RPC 방문
- ⑤ " 18:30~20:00 농업인단체 간담회
- ⑥ 9.29일 오전 담양 한이직기념도서관 방문

• 행사 내용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및 농업박람회 준비장 방문, 나주배원협, 남평농협 RPC 방문
- 농업인 신문고 현판식 및 신문고 타고

□ 방문 결과

〈 건의사항 〉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생산비 보장차원에서 설정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 자기 부담비율 완화 및 보험요율 인하 필요
-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지원 필요 등

〈 지시사항 〉

-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사안별로 추진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

현장 방문

〈보도내용〉

연합뉴스 2007년 9월 27일

농업인 신문고 119곳에 설치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정부에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농림부는 27일 경기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과 전국 11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장소 등 모두 119곳에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불편·애로사항 접수 센터로, 농림부는 모인 민원들을 취합한 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나 개선을 검토한다. 보다 근본적 성격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농림사업 리모델링 위원회에 상정,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농업인은 애로사항이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는 취지에서 농림부는 지역담당관 제도도 시행한다. 농림부 공무원들을 전국 141개 시·군·구에 배정,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당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듣게 하고, 이 결과를 매 월 차관 주재로 열리는 지역농정 회의에서 논의하는 제도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28일 농관원 나주 출장소에서 열리는 농업인 신문고 현판식에 참석, 이 같은 ‘현장 농정’을 강조할 예정이다.

내일신문 2007년 9월 27일

농림부가 전국 119개소에 농업인 신문고를 설치해 농업인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나섰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28일 오후 전남 나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에서 열리는 ‘농업인 신문고’ 현판식에 참석해 현장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농업인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지역 신문고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농림부 신문고(고객만족센터)에서 종합해 민원 해소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접수된 민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5~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처리 결과는 반드시 전산 등록하고 안내 상담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고에 제기된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농림사업 리모델링 위원회’(위원장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벼 수확 현장(용인) 방문 (2007.10.23)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10.23(화) / 경기도 이천시
 - ① 16:20~16:50 벼 수매현장 방문(용인 원삼면 맏리 미평들)
 - ② 17:10~17:50 RPC 산물벼 수매현장 방문(용인 원삼농협 RPC)
- 행사 내용
 - 벼 수확작업 농업인 격려, 임상규 장관 콤바인 벼 수확작업 시연
 - 원삼농협 통합RPC 시찰, 농업인 등과 간담회

□ 방문 결과

〈 건의사항 〉

- 쌀직불금 실경작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곽길영 농가)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인상(이종홍 농가)
- 용인시 이동면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용인 부시장)
- RPC 수매자금 확대 및 조기 지원(원삼 RPC)
- 2009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요망(원삼 RPC)
-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확대(개소당 10억원 → 20억원)

현장 방문

»» 고양 화훼단지 방문 (2007.10.24)



□ 방문 개요

- 일시 : 2007. 10.24(수) 09:00~14:00
- 장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소재 화훼단지
(육종연구소 포함)
- 참석인원 : 32명 (농업인 6, 언론인 7, 농업관
련기관 16, 연구소 3)

□ 화훼단지 시찰(우수경영인 농장 6개소) 및 간담회 개최 결과

- 농림부장관 인사말
 - 고양단지가 성공사례의 모델을 제시하여 농업이 집약된 미래농촌의 희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 단지 시찰 및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내용
 - 고양시 2009년 화훼브랜드사업 경영체로 선정 지원 요청
 - 그린벨트 내 판매시설 설치 및 판매행위 허용 확대
 - 아시아 화훼산업의 허브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 및 로드맵 제시
 - 수출물류비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선도농가 해외연수 실시
 - 업무 소관을 초월한 화훼분야 협조체계 구축, 면세유 공급확대
 - 국내품종 개발 보급, 수출시장 확대, 농협마트 내 화훼 판매장 지원 등

〈 조치사항 〉

-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사안별로 추진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

»» 원주 영흥영농 파프리카 농장 방문 (2007.11.11)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11.11(일) / 강원도 원주시
 - ① 13:30~14:00 영흥영농 파프리카 농장 방문(원주시)
- 행사 내용
 - 원주시의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후 원주시 신림면 소재 영흥영농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하여 내부 시찰
 - 파프리카산업 현황, 농장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 방문 결과

〈 건의사항 〉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리온실 자동환경제어 장치 필요
 - 우수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생산시설현대화가 가능토록 내년부터 시설원예품 질개선사업 지원
 - 생산단지 미소속 우수농가는 지역특화사업 등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해 시설현대화 추진시 사업 반영되도록 협조
-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 대책 필요
 - 투입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당초 금년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
 - 고유가에 대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을 현재 마련중

현장 방문

»» 경남 사천, 진주, 산청 농가 방문 (2007.12.7)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12.7(토)
경남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 ① 09:50~10:40 茶자연 '녹차원' 영농조합법인 : 사천시
- ② 10:00~11:40 대평딸기영농조합법인 : 진주시
- ③ 13:50~14:40 꽃감농가 방문 : 산청군

• 행사 내용

- 녹차원 영농법인에서 친환경녹차단지조성 현황, 사업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녹차단지 및 가공·포장시설 시찰
- 대평딸기 영농법인에서 딸기특화단지조성 현황, 하이베드시설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딸기재배시설 시찰
- 꽃감농가마을에서 감 동해피해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꽃감 저온창고, 건조장등 시설 시찰

□ 방문 결과

〈 건의사항 〉

- 경남 단감 동해발생에 대한 지원요청 및 산청꽃감 명품화 사업(꽃감 건조장, 저온창고, 감제피기 등) 지원요청
- 진주 대평지구 딸기특화단지에 대하여 수출지구지정을 통한 시설지원(하이베드) 및 직판장시설 지원요청
- 사천녹차단지 승용엽채기 지원요청
- 경남 화훼산업육성 프로젝트 지원 건의

》》 해가든, 부래미마을 방문 (2007.12.15)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7.12.15(토) /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 ① 11:00~13:00 대농바이오 '해가든' 영농조합법인(광주시)
 - ② 14:00~16:00 부래미마을(이천시)
- 행사 내용
 - 해가든 영농법인에서 새싹채소산업 현황, 사업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재배실 및 포장·세척실 시찰
 - 부래미마을에서 마을현황 청취 및 짚공예, 도예 등 체험시설 시찰

□ 방문 결과

〈 건의사항 〉

- 종자개발 등 R&D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내년부터 새싹을 신선편이식품으로 분류, 일정 위생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영세업체의 시설보완을 위해 정부지원 필요

〈 지시사항 〉

- 대덕의 연구원과 도농업기술원 관계자 등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 신선편이식품의 시설보완 지원내용, 친환경물류센터 및 경기도 그린농업벨트에 대해 파악·보고

현장 방문

»» 전남·북지역(순창, 담양, 곡성)현장 방문 (2007.12.22~23)

□ 방문 개요

- 일시 : 2007.12.22(토)~23(일)
- 장소 : 전남·북 3개 시·군(순창, 담양, 곡성)
 - 장류연구소 및 농공단지(순창, 12.22)
 - 강천사 군립공원(순창, 12.22)
 - (주)담양한과, 안복자한과(담양, 12.23)
 - 금호타이어 폐열활용 시설 및 곡성 기차마을(곡성, 12.23)
- 참석 : 각 지역 군수 및 관계자 등

□ 방문 결과

- 장류연구사업소, 담양한과, 안복자 한과 등 업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격려



“농정, 가슴으로 보듬고 발로 뛰자”

부록

VII

주요 농정 일지, 감사패, 임·퇴임관련 기사, 에피소드

》》 주요 농정 일지

■ 2007년 8월 ~ 9월

일자	내용(장소)
8.31	임상규 제56대 농림부 장관 취임식
9.1	국별 업무보고 : 국제국 → 농정국 → 식량국
9.2	국별 업무보고 : 축산국 → 유통국 → 농촌국
9.3	국회 본회의
	FTA 국내대책위원회 4차회의(재경부)
9.4	한여농 전국대회 개회식
9.5	한·EU FTA관계 장관회의
9.6	2007 서울국제건강식품박람회
9.7	민주신당 - 정부 정책협의회
	농민단체 간담회
9.1	전통주 한·일 심포지움 축사(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신축 유전자원센터 시찰
	머쉬하트, 안성맞춤 브랜드 현장방문(경기 안성)
9.11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검토회의
	농림부 제1회 호프데이
9.12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개관식(대전KOTREX)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2차 국제심포지움
9.13	제2기 신활력사업출범식(청양)
9.17	제4회 대한민국혁신박람회(COEX)
	국회 상임위(상정법률 9건)
9.18	태풍피해 현장점검(제주)
9.19	국회 법사위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9.20	국회 상임위 : 법률 5건, 감사청구결의 등
	국회 본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

9.21	남북정상회담 사전 보고회의
	정상회담 수행원 워크샵(남북회담본부)
9.27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
9.28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현장점검(나주) - 전남농업기술원 / 농정신문고 / 원예조합 / RPC
9.29	농민단체간담회
	추석절 어려운 이웃 방문(담양)

■ 2007년 10월

일자	내용(장소)
10.2~4	제2차 남북정상회담 수행
10.8	본회의(국회)
10.9	경제상황 점검회의(재경부)
	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10.10	국회 상임위
10.12	정상회담 이행 종합대책위
10.15	국회 상임위
	노르웨이 농업식품부장관 면담
10.17	정종 에임하이 국제운송 회장 접견
10.18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전원생활엑스포(안산 농어촌연구원)
10.19	국정감사
10.20	전남 순천 썬테크(순천시 조례동) 현장방문
10.23	농업CEO아카데미 참석(용인 현대종합연수원)
10.24	고양시 화훼단지 현장방문 및 오찬
	영화 '식객' 시사회
10.25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COEX)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aT센터)
	한농연 간부 초청 만찬

10.26	정부혁신토론회(중앙청사)
10.27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10.29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10.30	경제상황점검회의
	농고 공동운영 MOU 체결(프레스센터)
10.31	제17회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및 오찬(aT센터)

■ 2007년 11월

일자	내용(장소)
11.1	국회 대정부질문 대비 관계장관회의(중앙청사)
11.2	국회 종합감사
11.5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접견
	경제상황점검회의(한·EU FTA)(재경부)
11.6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제천골한방약선음식전(국회의원회관)
	여수박람회 유치위(중앙청사)
11.7	국정현안조정회의(중앙청사)
11.8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11.9	농업인의날 기념식(올림픽공원)
	축산발전협의회 접견
11.11	현장방문 : 원주
11.12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1.13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상임위 법률안처리(국회)
11.14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법사위(국회)
11.15	예결위 예산 부별심사(국회)
11.16	상임위 법률안처리(국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보고(장관실)

11.16	농림R&D정책협의회
11.18	로마방문
	대사관저 만찬
11.19	FAO총회 개막식 참관 및 면담(FAO본부)
	FAO총회 기조연설
11.20	농수산물유통시장 시찰(로마)
	파리방문
	OECD대사관저 만찬
11.21	한불 농업협력 약정체결(프랑스 농수산부)
	상빠뉴 외인협회 시찰(상빠뉴)
	삼페인 GI 현장시찰(상빠뉴)
	제네바방문
11.22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 면담(WTO)
	팔코너 농업협상국장 면담(WTO)
11.23	인천공항 관련기관 순시(인천공항 식검, 수과원)
11.26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오찬(교육문화회관)
	농림부 제2차 호프데이
11.27	불가리아 에너지경제부 차관 내방 오찬
	혁신클러스터 국정과제회의
11.29	과기장관회의
	농림R&D기관 간담회(대전 유성호텔)
11.30	명예박사수여식(목포대 박물관 대강당)

■ 2007년 12월

일자	내용(장소)
12.3	FRIB 행사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선정 및 표준조리법 발표회(aT센터)
12.4	국제곡물가 상승 대응 워크샵(aT센터)
12.5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 발표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미래농정연구회와 오찬

12.6	농협중앙회 방문
	기자간담회
	한농연 20주년 행사(마사회)
	전문지 간담회
12.7	사천 녹차단지 방문
	진주 딸기 특화단지 방문
	산청 곱감농장 방문
12.8	경기 양평 산음휴양림 방문
12.10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12.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비전찾기 연찬회
12.14	균형발전정책보고회(BH영빈관)
	외식업계 초청 만찬
12.15	대농바이오 해가든 방문(광주)
	부래미마을 방문(이천)
12.17	주한일본대사 접견
12.18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중앙청사)
12.20	과학기술위
	중앙농정심의회 및 오찬(aT센터)
	위문 : 해군 3함대(목포)
12.21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재경부)
	농촌지역가꾸기 합동시상식(농촌공사)
12.22	현장방문(순창, 담양)
12.23	현장방문(담양, 곡성)
12.26	법사위(국회)
12.27	국정현안조정회의(중앙청사)
	가양시니어스타워 방문
	국토관리방안 보고회
12.28	제5차 산림기본계획보고(장관실)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우수 시상 및 오찬
	강화약속효능보고회(aT센터)

12.28	신임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접견(잠사회관)
	국회 본회의(국회)
12.31	종무식(대회야실)

■ 2008년 1월

일자	내용(장소)
1.2	국립묘지참배(동작동 국립묘지)
	시무식
1.3	정부 신년 인사회(BH 영빈관)
1.7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농업인 신년 교례회(농협중앙회)
1.8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소공동 롯데H 2층 크리스탈볼룸)
	축산인 신년 교례회(마사회 신관람대 6층 홀)
1.10	서남권 등 투자촉진위원회 방문(중앙청사)
	도농교류 유공자 포상(장관실)
1.17	정책협의회(국회)
1.18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사전보고(장관실)
1.22	쌀전업농협회 신임, 전임회장 접견
1.23	2008 농업전망
	농업·농촌혁신협의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농협중앙회)
1.24	개성 방문
1.28	국회 상임위(국회)
1.29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국회 상임위(국회)
1.3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농축산물 수급동향 현장점검(양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31	현장방문(태안)

■ 2008년 2월

일자	내용(장소)
2.1	국회 대정부질문 - 경제(국회)
2.4	전통주협회 간담회
2.12	법사위(국회)
	법무부장관 오찬
	윤경하 옥천농협조합장 접견
2.14	상임위(국회)
2.18	외식산업협의회 간담회(장관실)
	국회 본회의(국회)
2.20	해남옥천 RPC 준공식
2.21	농업대학 졸업식(농업대학 대강당)
2.24	국무위원 환송간담회
2.25	제17대 대통령취임식(국회)
2.27	조찬특강
2.29	장관 이임식(대회의실)

감사패

존경하는 임 상 규 농림부 장관님

장관님께서서는 농정관련 국정 최고책임자로 국가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행동하는 리더쉽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며 금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과 농수산식품부 탄생을 주도하셔서 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외식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민국 외식산업인 모두는 장관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 외식산업 중흥과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8년 2월 18일

한국외식산업협의회공동대표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고 인 식
사)한일외식문화교류협회 회장 고 인 식
제 너 시 스 B B Q 그룹 회장 윤 홍 근



感謝牌

農林部長官任祥奎

貴下는 農林部長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農業人을 사랑하고 國民을 위하는 農政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특히 傳統酒 産業 발전에 기여하신 功勞가 至大하므로 그 功績을 높이 받들고 傳統酒 産業에 종사하는 모든 人들의 뜻을 담아 感謝牌를 드립니다.

2008년 1월

社團法人 韓國 傳統酒振興協會
會長 曹 哉 銑



감사패

한농연 제2008-1호

농림부장관 임 상 규

귀하는 평소 한국농업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政務에 힘쓰시며 농업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전국 12만 농업경영인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8년 1월 1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 의 규



功 勞 牌

농림부장관 임 상 규

님께서 2007년 8월 31일부터 농림부 장관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卓越한 徑輪과 指導力로 韓國農業·農村의 先進化와 發展을 위해 獻身하시었습니다.

님의 獻身的인 勞力에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앞날에 보다 큰 榮光과 發展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농림기관장 전원의 명의로 退任의 아쉬움을 이 牌에 담아 드립니다

2008년 2월 27일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산림청장 서승진

한국농촌공사 사장 임수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농협중앙회장 최원병

산림조합중앙회장 장일환



» 보스기질있는 두주불사형

〈동아일보〉

이공계 출신 경제관료

경제 관료로는 드물게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업무를 주로 다루다가 과학기술부 차관에 발탁돼 '전공'을 살렸다. 리더 기질이 강해 조직 장악력이 빠르다는 평가.

△광주(58) △광주제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행정학과 △행정고시 17회 △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실장 △과기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매일경제〉

◆ 개각 주요인사 ◆

임상규 농림부 장관 내정자의 공무원으로서 능력은 평가에 정평이 나 있다.

이는 그가 과학기술부 재직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맡았을 때 잘 엿볼 수 있다. 당시 그는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새로운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 아무런 잡음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만큼 조직 장악력이 탁월하다.

상관에게도 당당하게 행동할 만큼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추진력과 친화력도 좋다. 행시 17회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이공계 출신 ‘예산통’ – 두주불사

예산 업무를 주로 해온 예산통. 경제관료로서 드물게 이공계 출신이다. 보스 기질이 강하고 “흥어를 같이 안 먹었다면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흥어를 즐기는 두주불사형이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으로 “새만금특별법 수정안 마련 등 농정관련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평택기지 이전 ‘산파’

행시 17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쳤다. 경제관료로는 드문 이공계 출신이다. 2004년 과학기술부 차관에 발탁된 후 참여정부 ‘최장수 차관’ 기록을 세웠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장 임명 후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주(58) ▲광주제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과기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국민일보〉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친 정몽 경제관료로 지난 1월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뒤 18년간 해결이 안됐던 장항산단 문제,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처리하는 욕심을 보였다.

〈서울신문〉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보스 기질이 강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내면서 농업구조개선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림부와 인연을 맺었다. 경제관료로는 드물게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부하 직원들에 권한을 많이 주는 분권형 스타일. 애주가로 '홍어사랑' 은 남다르다. 부인 유경희(53)씨와 2남.

▲광주(58)▲서울대 금속공학과, 행정학과▲미 시러큐스대학원▲재정경제원 물가정책과장▲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무조정실장

<p>특별취재 특별연재 서울신문</p>	
<p>농업구조개선 119조원 투융자 계획수립</p> <p>●최상규 농림부령관 내정자 및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보스 기질이 강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내면서 농업구조개선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림부와 인연을 맺었다. 경제관료로는 드물게 서울대 금속공학</p>	 <p>과를 졸업했다. 부하 직원들에 권한을 많이 주는 분권형 스타일. 애주가로 '홍어 사랑' 은 남다르다. 부인 유경희(53)씨와 2남.</p> <p>▲광주(58)▲서울대 금속공학과, 행정학과▲미 시러큐스대학원▲재정경제원 물가정책과장▲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무조정실장</p>

퇴임관련 기사

»» 옛 선비 처럼

〈CBS 2008.2.15〉

농업계 우군 심어놓고 떠나는 마지막 농림부 장관

이달 말이면 32년여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임상규 농림장관이 재임 시 주도한 비공식 모임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농업외 분야의 명사들을 농업계의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농업계뿐만 아니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정택 KDI 원장, 텔런트 박정수 씨 등 각계의 유명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의 농수산식품부 첫 장관에 내정된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 회장도 회원에 포함돼있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 모임은 짧은 ‘관록’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전현직 장관을 배출하게 됐다.

임 장관은 15일 기자들과의 고별 오찬에서 6개월간의 농림부 재임기간을 회고하며 식품산업 업무를 확보하고 농림예산을 증액하는 등 굵직한 성과도 있었지만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운천 회장이 장관에 내정되기 훨씬 이전부터도 “새 장관이 오더라도 이 모임은 계속 명맥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라며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결국 임 장관은 이달 말 공직을 떠나더라도 신임 장관이 업무지휘에 바쁜 사정을 감안해 현재 맡고 있는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그의 표현대로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농업계 주변에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한편 임 장관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총선 출마설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안 남은 공직생활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 임 장관은 향후 거취에 대해 “옛 선비들은 중앙무대에서 은퇴하면 낙향해서 후학양성에 힘썼다”며 교수직 쪽을 모색중임을 내비쳤다.

〈매일경제 2008.2.15〉

임상규 농림 “후배 양성 힘쓰고 싶어”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퇴임후 학교에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32년동안 공직 생활에 후회가 없었다며 퇴임하게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 공직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학교에 머무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장관은 또 짧은 6개월 동안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식품 산업을 농림부로 가져오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2008.2.21〉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일단 고향인 전남쪽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자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32년 공직 생활에 후회가 없었다는 그는 최근 “옛 선비들은 중앙무대에서 은퇴하면 낙향해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고 말했다. 호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임 장관은 주위로부터 총선 출마 권유도 적지않게 받았으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싶다는 소신에 따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사

덴스 로승	후학 양성	해의 유학
		
조선고공직부총리	임상규 농림부 장관	고려대 1기부 총장

경제부처 장관들 퇴임후 어디로

경제부를 향한 도전부터 덴스 로승에 로승,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어 한다는 임 장관의 공직생활 퇴임 후 인연관계가 가늠되자이다.

10년 공직에 입당한 조선고공직부총리는 일단 대학으로 후학을 길러줄 것이다. 조선인 덴스 로승을 본 적으로, 사생활 제정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공직에 출장 가서 행정직을 총 해마다 후학 길러 주고 싶다고 했다. 임 장관은 말이 맞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해 정교사에게 보낸 그의 노래를 다룬다는 말을 들은 후는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어 했다.

그동안 총장이 계속직업을 했다. 다음달 총 위임 기간의 경제 포럼을 분석하고 제를 도입, 우리기 가가 할 일을 제정한 적도, 총리할 제정이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일단 고향인 전남쪽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자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32년 공직 생활에 후회가 없었다는 그는 최근 “옛 선비들은 중앙무대에서 은퇴하면 낙향해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고 말했다.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어 한다는 임 장관은 퇴임후 학교에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32년동안 공직 생활에 후회가 없었다며 퇴임하게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 공직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학교에 머무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장관은 또 짧은 6개월 동안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식품 산업을 농림부로 가져오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사 1기부 총장은 농림부 후학 제사, 임 장관은 노승환이 이끄는 로승이 이끄는 전남의 소신대로 올 것이다. 로승은 전남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뜻을 밝혔다. 로승, 로승이다. 김 장관은 재직기간에 전국 최초로 민간 공공정책 연구기관의 어떤 연구원 제 이를 지원해 제의 차이를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기자해상직 장관의 아들 임 장관은 임 장관은 4월 총선에 대한 임 장관은 후배로 총재가기 위해 임 장관의 장관직을 사임했다. 로승해상직

〈조선일보 2008.2.21〉

경제 장관들의 퇴임준비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주변에서 총선 출마를 권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쉬면서 다음 일거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향인 광주나 목포 인근 대학·연구기관에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내후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관측이다.

朝鮮日報

“책 출간… 유학… 총선… 휴식”

경제 장관들의 퇴임준비

**권오규 부총리, 책 출간에정
활형환 예산책, 4월 총안에
감영주 신자, 美 연구원으로**

**김우식 과거-임상규 농림
장무편 해탈-유형환 철물은
“임단 쉬면서 생각하겠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요즘 책을 쓰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쓴 대한 '유형환이 길을 걷다' (기타출판)는 책이다. 30일 후 3월 말쯤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유럽 각국의 경제 보편을 분석한 내용이다. 그는 “공직 생활을 정리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편

지리 회고엔 것은 어떤 생활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외 5개 대학에서 초빙을 받았지만 모두 사양했다. 3년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워싱턴 스포츠앤스쿨을 다시 참가 시작했다. 주말마다 부인과 함께 라틴댄스의 기본인 춤대를 배우고 있다. 보글레를 배우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와낙 나가서 영영학을 쓸 때 중요성을 느꼈고, 다음 다스리는 데도 좋다고 해서 부글체도 배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저변을 면서 많은 장관들이 보따리를 싸놓고 ‘퇴임 후’를 준비하고 있다. 총선 출마, 해외 무족, 저서 출간 등 제다 다 더했다.

김우식 과거기술부 장관은 최근

거기간담장에서 과거부 폐지에 대해 “새로 정신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퇴임 후에는 일정을 정하는 계획이다. 3월 중순쯤 여행 일정을 잡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본인이 앞둔 ‘경제정책의’ 앞에 정념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권 개혁예산의 장관은 4월 총선에 출마한다. 지난 4월 임박감이 퇴임한 뒤 광주광역시 하급 선거구 총후를 위해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한 주만 인사는 “지역구민들이 얼굴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얼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퇴임 후에는 공부를 하겠다”고 했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국 위촉된 연근 공공정책 연구기관에 재원 연구원으로 특별히 될 것으로 보

인다. 신자부 고위 공무원은 “해방에 머물러 그동안 못했던 컨디션, 공부 등을 하면서 머리를 식힌 후 6개월이나 1년 뒤를 구해보려 할 계획도 나감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주변에서 총선 출마를 권하기도 했지만, 당분간 쉬면서 다음 일거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향인 광주나 목포 인근 대학·연구기관에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내후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관측이다.

대검찰처 기자 news@koreatimes.com
이영민 기자 yml@koreatimes.com

》》 농림가족 희망나눔 캠페인 ‘그린하트’의 탄생

“농업인에 더욱 다가가는 농림부를 만듭시다.”

지난해 10월 중순, 아침회의에서 임상규 장관이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간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농림부 공직자들이 농촌의 혼자 사는 노인등 소외계층을 후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50여개에 달하는 예산사업과는 별도로 농림부 공직자들이 매달 일정액을 모아 후원활동과 결연활동을 병행기로 했다.

농림부 공직자들의 이 희망나눔 행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전제였다. 여성정책과, 총무과, 여직원회 등으로 캠페인 준비팀이 구성됐다. 직원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이 실시됐다. 11월8일부터 3일동안 진행된 설문에서 농림부 본부에 근무하는 4백 50명이 질문에 답했고, 대다수 직원들이 ‘농림가족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후원금 모금에 시동이 걸렸다. 농림가족을 상징하는 ‘그린 하트(Green Heart) 캠페인’이라는 애칭으로 직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후원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한개도에 한개마을씩 노인들을 잘 돌보는 마을 부녀회를 후원하여 지역의 자조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다른 곳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결론. 한 마을에 매월 2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한편, 농림부 사진예술 연구회와 함께 후원마을에 혼자사는 노인들의 장수사진(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12월 26일에 드디어 첫 후원금 전달행사를 가졌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추천으로 선발된 전국 9개마을 중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기암마을을 방문했다. 농림부 노조 부지부장, 여직원회장 등 직원 대표들이 마을부녀회와 함께 혼자사는 유만희씨 집을 찾았다.

새해들어 1월19일에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 다시마을로 장수사진 촬영에도 나섰다. 3월8일에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정1구와 충남 연기군 서면 성제2구 승작골에도 다녀왔다. 농림부 사진예술동호회가 사진촬영행사는 영락없는 마을 축제날. 깊숙이 넣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입고 화사한 화장을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입가에 웃음이 그려진다.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장구가락에 흥도 심는다. 사진촬영이 끝나면 농림부 직원들과 토종닭을 맛있게 나누기도 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로 거듭난 농림부. 수산식구들과 함께 '농림수산가족 그린하트 캠페인'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다. 임 장관의 제안은 그린하트 캠페인을 펼치는 작은 불씨였다.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

»» 「두리반」에서

「두리반」은 여러 사람들이 둘러 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둥근상이라는 의미이다. 금년 입춘(2.4), 서초동에 있는 작고 아담한 정통 남도 한정식 전문점 「두리반」에서 (사)한국 전통주진흥협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통주 산업육성과 주세 인하에 대한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조촐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장관님께서 술을 좋아하시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셨다. 지난 연말 주세법이 통과될 무렵은 국회에서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챙기셨을 정도다. 사실, 주세법의 소관이 재정경제부이고 관리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농림부장관으로서 지나친 관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날, 「전통주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전통식문화에 최첨단 R&D를 접목시킨다면 한식세계화의 한 축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장관님의 주세인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큰 곳, 즉 농림수산식품부로 거듭나는 농림부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당신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주 주세인하는 하나의 시작이고 전통산업의 육성과 세계화라는, 우리 농정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여 주신 것이다.

공직생활의 상당기간동안을 장관님의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필자로서는 현실정책을 바탕으로 항상 먼 미래를 입체적으로 설계해오신 장관님다운 착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 밖은 쌀쌀했고 기념촬영 때에는 일행이 건배주로 마신 한산소곡주 몇 잔의 향기가 도심 한겨울의 쌀쌀함을 훈훈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김홍우 식품진흥과장

에피소드

》》 쾌도난마(快刀亂麻)!

쾌도난마(快刀亂麻)!

어지럽게 뒤엎힌 일을 빠르고 명쾌하게 처리할 때 일컫는 말이지요.

장관님은 한·미 FTA협상 타결 후 농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을 때 농림부장관 직을 맡으셨습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농업문제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관님은 그런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장관님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폭넓은 인간관계, 그리고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농림부 직원들에게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일하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지요. 농업계 내부의 힘만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우군을 많이 만들라는 당부도 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2월 25일 신정부 출범 전날까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장관님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쌓으신 노하우와 경륜으로 더욱 큰일을 하실 것으로 믿으며 마음으로부터 성원을 보냅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 공직 떠난 ‘인생 이모작’ 은 더욱 찬란하길…

임상규 장관님과 함께한 시간은 내 개인적으로도 많은 자극을 받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장관 취임식 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취임사 중의 한 대목이 지금도 기억난다. 요약 하면 “농림부 직원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함께 일하려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 스타일에 맞춰 일하면 오히려 일이 쉬워지고 편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알게 됐다.

하루에도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5~6개의 현장 일정을 소화해 내는 데는 그러한 체계적인 시간관리와 계획이 뒷받침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흔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는 말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임 장관 밑에서 2~3년 일하다보면 업무는 물론 인생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장관님과는 기자와 공무원으로서의 만남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관님의 삶의 방식을 많이 배우고 싶었다. 장관님을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었는데, 벌써 떠나시게 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장관 퇴임을 며칠 앞두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날만 잡으면 홍어는 언제든지 공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삭은 홍어에 막걸리를 기울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기자와 공무원이 아니라, 인생 대선배로서 세상사에 대해 겸손하게 많이 배우고 싶다.

부디 농림부를 떠나더라도 농민과 농촌을 잊지 말고 이 땅의 자연처럼 항상 넉넉하고, 생기 넘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기 바란다. 농림부장관직을 끝으로 ‘공직’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맞는 30여년만의 휴가도 마음 편히 잘 보내시기 바란다.

공직을 떠나 새로 시작될 장관님의 ‘인생 이모작’ 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한다.

박창희 농민신문 기자(농림부 전문지 기자단 간사)